

第145回國會
(閉會中)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政治
權力型非理調查特別委員會會議錄 第29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9年3月17日(金)

場 所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室(145號室)

議事日程

1. 不實企業整理關聯非理調查聽聞會

審査된案件

1. 不實企業整理關聯非理調查聽聞會 1 面

(10時21分 開議)

○委員長 李基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9次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不實企業整理關聯非理調查聽聞會

○委員長 李基澤 議事日程 第1項 不實企業整理關聯非理調查聽聞會를 上程하겠습니다.

오늘 聽聞會의 證人 出席 狀況을 잠깐 報告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當 特委의 聽聞會 日程에 따르면 오늘 出席할 證人은 邊康雨 朱昌均 李哲熙 張玲子 安秉華 崔元碩 金俊起 등입니다. 그리고 3月13日 第26次 委員會의 決議에 의하여 오늘 오후 聽聞會에 證人으로 出席하게 된 尹錫祥씨 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8人의 證人 중에서 李哲熙證人 그리고 張玲子證人은 건강상의 이유와 安秉華證人은 國際會議 참석으로 崔元碩證人 및 金俊起證人은 外國과의 事業相談으로 海外出張 중이어서 出席하지 못하고 그러한 事由書가 當 特委에 提出되어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企業을 빼긴 被害者側만 出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企業을 引受한 企業主들은 역시 오늘도 不參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聽聞會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실을 직접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特委가 調査하고 있는 不實企業整理對象의 引受企業 選定이 얼마나 正當性이 없고 荒唐無稽했던가 하는 점 그리고 引受過程에서 引受者에게 얼마나 많은 不當 利得을 政府와 政策 立案者들이 안겨 주었다는 점 그것 뿐만 아니라 金融特惠와 租稅減免惠澤이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 聽聞會를 통해서 具體的으로 실감 있게 들었습니다.

반면에 政策立案者 들 그리고 實務責任者 들 企業을 引受한 財閥「그룹」들의 不參 사태에 대해서는 被害者들이 주장하는 대로 강제로 빼앗고 헐값으로 넘겨 주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政治資金이 第5共和國 政權에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이네들이 不參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시인하는 것이라고 規定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特委는 앞으로도 調査過程에서 이 聽聞會에 不參하고 있는 이 들이 우리 特委의 規定에 대해서 억울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證言할 수 있는 時間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5共特委에서 이미 5共非理調査班의 對策委員會 小委員會를 만들었습니다마는 不參하는 사람들에 대한 調査와 더불어서 그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被害者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證言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聽聞會의 證人訊問順序에.....

○金東周委員 證人訊問 들어가기 전에 證人關係에 대해서 議事進行發言 좀 합시다.

○委員長 李基澤 예. 한마디 하세요.

○金東周委員 金東周委員입니다.

물론 오늘 出席하지 않은 企業을 引受한 企業家들이 대부분 事業을 빙자해서 逃避性 여행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委員들이

전체가 거의 동감이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特委에서 철저한 對策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月9日 우리가 永登浦拘置所와 安養矯導所에 수감되어 있는 張玲子 李哲熙를 면회했을 때 분명히 法務部當局에서 강력한 방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張玲子證人 같은 분도 실은 身病으로 지금 몸은 아픕니다.

그러나 충분히 調查活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矯正當局 그러니까 法務部當局에서 아직까지도 12代와 똑 같은 못된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同僚委員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더구나 李哲熙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날 本人이 健康狀態에 대해서 많이 물었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證言臺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本人이 억울하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張玲子 李哲熙事件을 확대 선전해서 大型詐欺事件으로 조작한 그 인물들이 지금 현재도 民正黨의 重要職責을 國策委員 등을 맡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許和平 許三守 등등의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 우리 國會議員들이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압력을 넣었지 않느냐 하는 강력한 의혹도 가져 집니다.

이래서 지난 번에 우리 特委에서 調查妨害에 대한 調查小委員會를 구성했으니까 즉각 그 委員會를 발동해서 法務部當局의 精神狀態 故意的으로 特委活動을 방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을 해서 依法措置 해 주시기를 委員長에게 議事進行으로 부탁드립니다.

○崔洛道委員 물론 金東周委員 말 같이 과연 그들이 방해를 받아서 나오지 못했느냐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健康上의 이유로 못나온다고 하면 우리 特委가 출장을 가서라도 矯導所를 訪問해서라도 그들이 證言을 기어이 받아 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建議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東周委員 議事進行發言이나 崔洛道委員 말씀이 全的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이 聽聞會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對策을 여러분들의 意思를 충분히 반영하는 對策을 樹立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聽聞會의 證人訊問順序에 따라서 邊康雨證人에 대한 證人訊問과 證言聽取가 있겠습니다.

證人宣誓에 앞서서 宣誓의 취지를 알려 드리고 證人이 證言을 拒否할 수 있는 경우와 證人에 대한 處罰規定에 대하여 미리 證人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證人이 宣誓를 하는 이유는 證人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證言하겠다는 誓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證人은 자기 또는 자기의 親族 등 近親者가 刑事訴追 등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는 證言을 拒否할 수 있는 刑事訴訟法 第148條와 業務上 취득한 他人의 秘密에 관한 事項으로 證言을 拒否할 수 있는 刑事訴訟法 第14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宣誓 또는 證言을 拒否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證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宣誓 또는 證言을 拒否하거나 宣誓하는 證人이 虛偽陳述을 한 때 그리고 證人이 證言臺에 있어서 暴行 脅迫 기타 모욕적인 言行으로 國會의 權威를 훼손할 때는 國會에서의 證言·鑑定 등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告發·處罰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邊康雨證人의 宣誓가 있겠습니다.

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邊康雨

(證人宣誓)

○委員長 李基澤 邊康雨證人에 대한 當 特委 聽聞會의 訊問要旨는 共榮土建 倒産經緯 共榮土建資金의 政治資金化 疑惑 共榮土建과 東海生命株式處분에 관한 事項 그리고 其他 關聯事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證人訊問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順序에 따라서 平和民主黨의 林春元委員이 證人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春元委員 平和民主黨의 林春元委員입니다.

먼저 證人은 당시의 職責이 社長이었던가요 會長이었던가요?

○證人 邊康雨 社長이었습니다.

○林春元委員 현재 年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55歲입니다.

○林春元委員 住所는 어디입니까?

○證人 邊康雨 松坡區新川洞 「크로바 아파트」

에 있습니다.

○林春元委員 李哲熙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김수철씨를 통해서였나요?

○證人 邊康雨 그렇습니다.

○林春元委員 81년1월인가요?

○證人 邊康雨 81년2月初로 기억합니다.

○林春元委員 김수철씨가 張玲子의 前 男便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김수철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저하고 서울大學經營大學院 同窓이었습니다.

○林春元委員 그 당시 김수철씨에게 共榮土建의 資金에 관해서 얘기한 일이 있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資金에 관해서 얘기한 일은 없고 한달에 한번 정도 만났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資金關係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김수철씨가 왜 李哲熙씨를 소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邊康雨 그 당시 國內外로 景氣가 어려울 때니까 특히 建設業界는 資金壓迫을 많이 받았던 전반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林春元委員 李哲熙씨가 健全企業을 육성할 목적으로 特殊資金을 지원했다는 말을 했다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證人 邊康雨 김수철씨가 李哲熙씨를 도쿄 호텔에 가서 만나라고 해서 만났더니 자기는 特殊資金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전한 企業育成에 기여하고 싶다 그러니 邊社長이 자기 나름대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調査해보니까 企業도 성실히 하고 하니 같은 값이면 도와주고 싶다 지금 國內外景氣가 이렇게 어려울 때인데 資金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林春元委員 그 때 特殊資金이라고 하는 얘기를 무슨 政治資金으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靑瓦臺祕資金으로 들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저희 企業人으로서 듣기에 解釋이 애매합니다. 어떤 하나로 꼬집어서 이것이 무슨 資金이다 하기에 저는 解釋하기 어려워서 本人에게 特殊資金의 내용이 뭐요? 하고 물었더니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까 그냥 資金만 마음놓고 쓰면 되지 않습니

까? 하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李哲熙씨가 그 막대한 資金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충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 당시는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한 500億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林春元委員 條件은 무엇이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 당시 公金利에 「플러스」 2% 정도라고 했습니다.

○林春元委員 擔保얘기는 안했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것은 나중에 사용하는 과정의 얘기라고 처음에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林春元委員 처음에 4月6日까지 100億원이 入金되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리고 李哲熙씨는 秘密維持를 계속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證人 邊康雨 예. 자기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런 條件으로 2年据置를 할 수 있으니 企業으로서는 마음놓고 쓸 수 있는 餘裕資金이다 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 資金에 대해서 저도 한 번 相議를 重役들하고 해 봐야 되테니까 시간을 주시오 나도 또 經理內容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會社에 와서 이러이러한 條件으로 資金을 제공하겠다는데 그 사람의 身分이 國會議員도 지내고 또 中情次長도 지내고 陸軍少將을 한 분이 이런 資金을 재의하는데 상당한 資金이 있는가 보더라 했더니 그런 條件이라면 會社에 그렇게 불리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李哲熙씨 있는 데 가서 좋다 그런데 내가 직접 資金을 취급할 수가 없으니 우리 經理責任者하고 잘 상의해서 하라 그랬더니 그것은 안된다 이렇다. 왜 안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特殊資金이니까 만일에 누가 알게 되면 곤란하니 社長이 직접 나하고 未來를 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할 수 없다 내가 1년에 3分の 2는 海外에 나가서 사는 사람이고 또 會社 社長들이 대개 資金을 직접 管理를 안합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經理責任者가 믿을 수 있느냐 하길래 會社에서 經理責任者 안믿고 누구를 믿

겠느냐 그렇다면 좋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욱 부탁할 것은 이 資金은 特殊資金이니까 만일 누설이 되면 共榮土建뿐만 아니라 邊社長 身上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점잖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시오. 어느 企業이든 資金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비밀을 보장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그 때 변태수씨가 經理責任者였습니까?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李哲熙씨가 銀行長도 아니고 또 그 당시 靑瓦臺 무슨 現職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누설되면 邊社長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무서운 資金을 쓸 용기를 가지신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共榮土建이 그렇게 資金難에 허덕였습니까?

○證人 邊康雨 무서운 資金이라고 그러셨는데 資金 自體는 다 무서운 것입니다. 단 우리가 資金을 活用하는데 있어서는 會社內에서도 비밀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로서는 그 정도의 좋은 條件의 資金이면 어떤 비밀도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銀行貸出資金도 그렇고 會社 社長 自身도 그렇고 資金의 흐름에 대해서는 대개 비밀이 일반적입니다.

○林春元委員 그렇다면 企業에서 資金捻出을 하는데 銀行을 통하거나 무슨 直接金融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私債를 쓰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私債形態의 얘기인데 무슨 特殊資金이란 얘기 아닙니까?

○證人 邊康雨 저희들이 그 당시에 海外工事에서 資金이 좀 부족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赤字가 좀 났고 새로운 工事を 受注하기 위한 資金이 필요했는데 그런 提案을 해서 저희들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條件도 좋고 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로 보아서요.

○林春元委員 알았습니다. 張玲子씨를 만난 것은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로부터 한 3·4個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李哲熙씨가 張玲子씨를

자기 부인이라고 소개하던가요?

○證人 邊康雨 예. 부인이라고 소개합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그 당시 張玲子씨가 李圭光씨 처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소개를 받고 얼마뒤에 처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張玲子씨가 처음 만났을 때 본인이 어떤 權力層의 姻戚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형태로 암시하던가요?

○證人 邊康雨 그런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니고 자기 남편 李哲熙씨가 社會의인 身分 그리고 경륜 이런 것으로 봐서 그런 資金을 관리하던 분이니까 邊社長이 잘 資金을 活用하면 좋은 企業人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 資金걱정은 하지 말고 좋은 事業에만 열중해 주시면 저희들이 뒷받침을 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82年2월에 李哲熙와 張玲子가 結婚式할 때 「사파리 클럽」에 초청받아서 갔습니까?

○證人 邊康雨 예.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林春元委員 그 때 혹시 賓客中에 權正達씨를 만났습니까?

○證人 邊康雨 못만났습니다.

○林春元委員 그 당시에 혹시 기억나는 사람 중에 民正黨과 관계되었던 사람들 이름을 혹시 舉名하실 수 있습니까?

○證人 邊康雨 저는 結婚式이 파할 무렵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經理責任者만 보내고 저는 안갔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모두 다 오셨는데 왜 안오시느냐고 그래서 늦게 갔더니 마침 結婚式이 파하고 李哲熙씨가 賓客들에게 人事를 하고 있길래 그때 저도 人事를 해서 누가 왔는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證人은 權正達씨하고 軍 尉官時節부터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權正達씨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權正達씨를 陸軍大尉 時節부터 알았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權正達씨가 그 당시 民正黨事務總長으로서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李哲熙씨 하고 張玲子씨를 통해서 私債를 조달할 때 權正達씨 하고 의논 안했습

니까?

○證人 邊康雨 權正達씨가 저희 會社의 經營顧問도 아니고 또 친하기는 합니다마는 企業人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굳이 아는 분들과 상의를 안합니다. 원래 會社內 重役들하고도 상의를 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林春元委員 그런데 그 資金이 一般銀行에서 쏜다든지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特殊資金이고 누설이 되면 여러가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權正達씨 하고 의논을 안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證人 邊康雨 그것은 林委員님도 事業을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事業하는 분들에 대한 資金은 사실은 會社에서 쓰는 資金의 움직임은 부모형제간에도 이야기를 안해 줍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李哲熙씨 하고 張玲子씨 하고 去來한다는 것을 權正達씨가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쯤입니까?

○證人 邊康雨 마지막 事故나서 알았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그 당시 權正達씨하고 邊社長이 만나셨을 때 대충 政治 얘기도 주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證人 邊康雨 政治 얘기는 별로 주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事業하는 사람이 政治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하면 뭐하지만 별 관심이 없습니다.

○林春元委員 그 당시 혹시 李圭光씨 얘기라든지 3許씨 許和平씨라든지 許三守씨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일이 없습니까? 權正達씨로부터?

○證人 邊康雨 들은 일 없습니다.

○林春元委員 전혀 없습니까?

○證人 邊康雨 없습니다.

○林春元委員 도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邊證人께서 상당히 진실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대단히 서로에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質問 다시 하겠습니다.

證人은 李哲熙씨 하고 張玲子事件이 터진 다음에 權正達씨에게 사실을 알렸고 그 때에 權正達씨가 놀랐다고 하는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 張玲子씨가 永登浦拘留所 88年12月22日字 집견표를 보면 그것은 本委員이 직접 調査를 갔다가 입수해 온 것입니다. 제가 참 바보였어요. 權正達씨가 다 해먹고 제가 나가면

밝혀지겠지요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證人은 權正達씨 하고 그 사람 尉官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연 몰랐다고 하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것은 저는 백번 이야기해도 성립되고 남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企業人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기 「비즈니스」關係 特殊한 어떤 利害問題가 아니고는 또 있더라도 그런 政治人과 이야기를 잘 안합니다.

그리고 權正達씨도 그 당시에 바빴고 저도 바빴고 왜 그러느냐 하면 1년에 저도 많이 나갈 때는 한 열세번 열네번 海外를 나갑니다. 平均 열번이상 나갑니다. 그러면 그 분은 그 분대로 바쁘고 해서 1년에 한두번 만나기가 사실 바쁩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證人은 權正達씨로부터 그 당시 與圈에 있는 高位人事 어떤 분을 소개받은 일이 있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런 것 없습니다.

○林春元委員 전연 소개받은 일이 없습니까?

○證人 邊康雨 소개받은 일 없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82年5月12日 檢察發表에 의하면 共榮土建이 李哲熙 張玲子로부터 받은 金額은 169億이고 發行한 어음은 1,468億이라고 發表했습니다. 共榮土建이 82年2月부터 4월까지 불과 2個月사이에 發行한 어음이 800億 규모였다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證人 邊康雨 예. 맞습니다.

○林春元委員 그 시기에 李哲熙 張玲子로부터 받은 資金額數는 얼마입니까? 169億 맞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 당시는 한 200億 되었을 것입니다.

○林春元委員 200億 받았어요?

○證人 邊康雨 예. 200億씩 계속 썼으니깐요.

○林春元委員 그러면 82年2月末頃 證人은 태화산업 어음 818億 일신제강 어음 100億을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邊康雨 예. 사실입니다.

○林春元委員 82年4月頃에 證人은 檢察에 李哲熙 張玲子의 內査를 요청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邊康雨 內查가 아니고 4月末쯤 되니까 뭔가 처음 이야기들... 물론 저는 經理責任者로부터 간혹 報告를 받습니다. 자주는 못받지만 간혹 報告를 받는데 뭔가 조금 괜히 불안감을 좀 느낀다 표현이라 하면 그런 표현을 느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의 特殊資金이 뭔지 어떻게 한번 더 알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것도 한번 그래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약속이 자꾸 좀 흐려지고 그러나 계속 지켜온 것은 사실이지만 만에 하나 모르니까 과연 그런 特殊資金이 檢察같은 계통에서는 알고 있는 것인지 그런 資金이 과연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林春元委員 檢察누구한테 물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것은 제가 잘 지금... 擔當者를 시켜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이 있다 그러길래 제가 만나보라고 그래줍니다.

○林春元委員 누가 만났습니까?

○證人 邊康雨 우리 經理責任者가요.

○林春元委員 經理責任者 변태수씨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러던가요?

○證人 邊康雨 檢察關係者를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林春元委員 檢察關係者 누구니까?

○證人 邊康雨 그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기가 아는 분을 만나보았더니 자기들로서는 지금 그런 것을 아는 바가 없다... 그러면 調査를 해 한번 알아보마 그랬습니다.

○林春元委員 證人は 대충 사람 대는 얘기에 가서는 자꾸 말을 피하시는데 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檢察發表는 4月29일부터 搜查가 착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證人이 檢察에 얘기함으로써 搜查가 착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邊康雨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이야기한지가 제가 기억하기는 불과 며칠사이가 아닌데 그래서 그랬는지... 저희들은 그냥 그런 資金을 쓰는 분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활용하는 분이 情報가 들어온 것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었지 搜查를 해 달라 拘束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林春元委員 혹시 證人이 어떤 사람이 요구해서 檢察에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證人 邊康雨 아닙니다. 우리 自體內에서 重役들하고 이야기가 이 資金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한번 더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 말이 지금까지는 잘 지켜왔지만 요 근래에 와서는 조금 이야기가 안 맞아 들어가니 저희들로서는...

○林春元委員 하여튼 돈은 그 때 제대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檢察에 얘기했어요?

○證人 邊康雨 왜 그랬냐면 저 사람들이 자꾸 많이 끊어달라고 그러고 처음하고 약속이 조금 달라져 삽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때는...

○林春元委員 張玲子씨를 마지막 만난 것이 4月29日 맞습니까?

○證人 邊康雨 예. 4月29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직접 張玲子씨를 만나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우리 經理責任者가 했지만 經理責任者의 報告를 들어보아서 내가 조금 납득안가는 점이 있어서 그러면 몇번 만나서 거기에 대한 화답을 가져오라고 그래도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張玲子씨에게 좀 연락해라.

○林春元委員 마지막 만나셨을 때 張玲子씨가 證人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證人 邊康雨 「프라자호텔」에서 만났는데 어음을 좀 더 끊어달라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어음이야 지금 끊어준 것만 해도 많은데 또 왜 끊어주느냐 그래도 어음을 200億만 더 끊어주면 이것을 1週日內에 모든 것을 해결할 테니 끊어달라고 그래서 1週日 아니라 내일이라도 해결을 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직접 취급하겠다 지금까지는 우리 責任者에게 맡겼지만 200億 아니라 300億이라도 끊어줄 테니 당장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200億 끊어주면 100億을 먼저 현금으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그럴 입장이 아니고 어쨌든 1週日內에 다 해결할 테니까 책임지고 자기 명예를 걸고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끊어주었습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더 물겠습니까마는 그 당시 證人에게 張玲子와 손을 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지요?

○證人 邊康雨 우리 自體內에서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있어서 저도 마지막에 4월에 만난 것입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그 때 張玲子씨가 뒤에 資金管理者가 있다는 말을 하던가요?

○證人 邊康雨 예, 했습니다.

○林春元委員 그 資金管理者란 누구를 말하는 것 같던가요?

○證人 邊康雨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때 그 사람을 그러면 내가 만나게 해주마 만나게 해 줄 테니까 직접 이야기를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張玲子 당신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林春元委員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던데 그때 누구라고 하던가요.

○證人 邊康雨 누구라는 이야기는 안하고 그냥 이 資金을 관리하는 사람이 또한 사람이 있으니 만나달라 이래서... 그것은 그 당시 느낌으로 봐서는 변명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그런 사람 내가 지금 바쁘게 뭐하러 만나냐 지금 이야기하는 당신하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長時間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날 拘束된 것을 알았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5月5日 李哲熙 張玲子 두 사람이 外國換管理法 違反으로 拘束되었는데 그 때 이미 오래전부터 私債市場에 거액의 企業어음이 特殊資金 財源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말이 파다하게 얘기가 돌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요?

○證人 邊康雨 그것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당시 檢察發表는 李哲熙 張玲子が 1,801億의 어음을 騙取하여 그 중 1,445億을 썼다는 것이었고 여기서 差額 460億의 행방이 어디로 갔다고 發表했는데 그 어디로 갔다고 알고 있습니까?

○證人 邊康雨 저도 지금 제일... 檢察過程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資金이 그렇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 많은 資金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그 당시

선의의 被害者들에게 빨리 좀 그것을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못해 지금까지도...

○林春元委員 지금도 모르고 계십니까?

○證人 邊康雨 그럼요. 지금 어떻게 압니까?

○林春元委員 그러면 지금은 政治資金으로 흘러갔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邊康雨 그것도 모르지요. 내가 알면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林春元委員 그러면 李哲熙 張玲子씨가 관련된 企業體가 6個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共榮土建하고 日新製鋼만 司法處理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邊康雨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證人은 業務上 背任罪로 拘束되어 있는 동안 共榮土建과 자매회사인 東海生命이 法定管理를 받게 되었는데 事件당시 共榮의 負債는 얼마였습니까?

이 부분이 證人의 얘기하고 李哲熙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證人 邊康雨 李哲熙와의 負債말입니까 아니면 會社 全體負債입니까?

○林春元委員 會社 全體 負債입니다.

○證人 邊康雨 그 당시 會社 資產은 2,470億이고 會社 總負債는 모두 海外支給保證이니 전부 합해서 2,200億입니다.

○林春元委員 共榮에 法定管理人인 우재구씨에 이어서 崔元碩 東亞建設 會長이 된 것이 商業銀行이 지정한 것인가요?

○證人 邊康雨 그 과정은 제가 그 당시에 拘束狀態에 있어서 商業銀行이 했는지 아니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管理人으로서 商業銀行에서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林春元委員 평소에 證人과 崔元碩씨 하고는 잘 아는 사이입니까?

○證人 邊康雨 예. 잘 아는 사이입니다.

○林春元委員 당시 崔元碩씨가 法定管理人으로 지정되는데 대해서 證人의 소감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

○證人 邊康雨 좋은 企業人이 이런 어려운 企業을 맡아서 마음으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82年3月4日 李順子씨의 동서인 홍순두씨가 東亞建設系列인 大韓通運의

航空貨物 代表理事가 된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證人 邊康雨 저는 홍순두씨가 거기에 있었는데 또 그 당시에 홍순두씨가 누구였는지는 몰랐습니다.

○林春元委員 사전에 崔元碩씨가 管理人이 되기 전에 證人과 崔元碩씨간에 그와 같은 얘기를 주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證人 邊康雨 일체 없었습니다.

○林春元委員 通報반은 일도 없지요?

○證人 邊康雨 예, 받은 일도 없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홍순두씨의 존재가 崔元碩씨의 共榮土建 引受에 영향을 어떻게 끼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證人 邊康雨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 나라의 모든 不實企業 整理過程의 의혹들로 보아서는 다소의 영향력이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확실하는 모르겠습니다.

○林春元委員 83年10月17日에 商業銀行과 東亞「그룹」 崔元碩씨간에 東亞「그룹」會長 자격이 아니고 개인 崔元碩씨간에 共榮土建 및 東海生命 擔保 株式讓渡를 위한 合意書가 체결되었는데 證人은 당시에 이 合意書 체결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몰랐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언제 알았습니까?

○證人 邊康雨 요 근래에 알았습니다.

聽聞會에 나오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林春元委員 商業銀行과 崔元碩씨 양자는 合意書에서 83年4月30日 현재 共榮土建의 資産을 1,910億 負債는 同 資産을 잠식하고도 2,927億 債務가 남아온다고 합의했는데 證人이 아마 얘기한 資産負債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요.

○證人 邊康雨 그것은 李哲熙 어음 1,400億이 會社負債로 편입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렇습니까?

그래도 金額이 안 맞는데요.

○證人 邊康雨 그렇지 않지요.

그것만 빼면 2,900億중에 1,000億만 빼도 1,900億 아닙니까?

○林春元委員 1,900億의 資産을 빼고도 2,900億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證人 邊康雨 그것은 제가 지금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남득이 안 갑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東海生命의 營業權을 300億으로 평가했는데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까?

○證人 邊康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렇습니까?

○證人 邊康雨 예.

○林春元委員 그러면 나머지 현금 차액의 609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商業銀行이 崔元碩씨 개인에게 政府發注工事を 3,000億 수주해 주기로 계약했는데 證人은 같은 建設業을 해본 경험으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證人 邊康雨 그것은 東亞建設이 共榮土建을 관리하자면 의당 거기에 대한 赤字가 누적되기 때문에 넷가를 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共榮土建에다 계약을 해주어서 그 共榮土建이 利益을 축적시켜서 負債를 償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林春元委員 그런데 共榮土建에는 안주고 東亞建設에 그것을 주었거든요. 共榮土建 引受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證人 邊康雨 결과는 그렇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證人 邊康雨 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林春元委員 그 계약하고 崔元碩씨 개인이 하는 東亞建設에다가 3,000億 工事を 주는 것하고는 안맞는 얘기입니다.

○證人 邊康雨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東亞建設에 어떤 그만한 보상은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共榮 관리하는 데에 대한 보상은 주어야 東亞建設에 어려운 會社를 관리하지 그렇지 않고는 관리할 의무가 없으니까요.

○林春元委員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東亞建設이 共榮土建에 資金支援이 제대로 돌아가고 會社를 생성하고 있는 과정에 동의하십니까?

○證人 邊康雨 거기에 대해서는 企業은 결국 社會의 것이고 누구나 유능한 사람이 관리하

는 것이 도리입니다마는 지금 제가 財務 상태라는가 상황을 事件난 이후 囹圄의 몸에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볼 기회도 없었고 해서 지금 뭐라고 제가 評할 수 없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東海生命株式하고 共榮土建의 株式이 넘어간데 대해서 證人은 지금 거기에는 아무런 瑕疵도 없고 정당하게 잘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證人 邊康雨 東海生命이 넘어간데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瑕疵가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그것은 다시 되돌려 올 생각이십니까?

○證人 邊康雨 당연히 잘 못된 것은 되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林春元委員 그럴 措置를 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證人 邊康雨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永登浦矯導所에 張玲子씨를 저희가 調査를 하러 갔을 때에 그 사람은 물론 몸도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아마 상당히 누구로 부터 脅박에 의해서 무슨 진실을 밝힐 수 없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보았는데 그 5共 시절이 다 지나고 지금 6共和國인데 현재까지도 혹시 證人도 외부로부터 자유스러운 얘기를 證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일이 있습니까?

○證人 邊康雨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企業人으로서의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企業人들은 말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러면 張玲子씨가 이영숙이라는 假名으로 88年9月6일부터 9月9일까지 88年10月31일부터 同年 11月8일까지 2회에 걸쳐서 성가病院에 入院하고 또 昨年 12月21일부터 今年 1月11일까지 「세브란스」病院에 이영숙이라는 假名으로 또 入院하고 이런 식으로 위장해 가면서 그렇게 감추어야 할 특별한 무슨 事由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企業과 그 사람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체험하신 當

事者로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證人 邊康雨 지금 現 時點에서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 확실한 자신이 없네요.

○林春元委員 무슨 感이 잡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證人 邊康雨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林春元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安養矯導所에 가서 李哲熙씨를 만났는데 그 때 李哲熙씨는 負債가 1,270億인데 共榮土建과 관련된 負債가 500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실을 맞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 사실은 저도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당시 日新어음과 大和産業의 어음을 저희를 어음과 相計를 시켰답니다. 相計를 시키고 나머지가 500億이었답니다.

그 相計시킨 資金外에 殘額이 500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表現한 것 같습니다.

○林春元委員 내가 직접 들었는데요. 그 사람 얘기는 共榮土建 500億 라이프,住宅 450億 三益住宅 100億 해태 30億 日新製鋼 98億 합쳐서 1,270億인데 現金을 465億을 주었고 殘額이 805億인데 그 중에 자기네 擔保를 不動產擔保를 569億 주어야지고 자기가 갚은 負債는 440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數字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證人 邊康雨 이 數字까지는 저희들 會社것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會社關係만 보면 全體金額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기어음과 日新製鋼 어음을 저희들 어음하고 서로 交換을 했기 때문에 그 差額이 500億입니다. 그래서 아마 500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리고 그 사람들이 拘束되기전에는 不渡難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證人 邊康雨 사실입니다.

○林春元委員 張玲子씨가 상당한 骨董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본 일이 있습니까?

○證人 邊康雨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많은 財産을... 骨董品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林春元委員 82年4月末頃に 밤 11時頃に 檢察搜查官 40餘名이 張玲子씨 李哲熙씨가 자고 있는 그 집에 들어와서 搜索令狀도 없이 無差別 搜索을 해가지고 집에 있는 外貨 40萬弗을 發見하고 外換管理法로 拘束했다고 李哲熙씨가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證人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 당시는 저는 29日 張玲子를 만나고 저녁에 그러면 다시 연락을 해주겠다고 그러고 소식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 그렇게 調査를 받고 거기에 집이 搜索 당하고 있는 것을 證人은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邊康雨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었지요.

○林春元委員 그러면 證人도 拘束되어 있을 때 서로 그 쪽하고 무슨 書信이나 어떤 사람은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만나기는 더러 複道에서 만났습니다.

○林春元委員 複道에서 같은 矯導所內에서...

○證人 邊康雨 그런 때도 뭐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解決해 준다는 이야기 정도는 들었습니다.

○林春元委員 李哲熙씨가 그랬습니까?

○證人 邊康雨 張玲子가 그랬습니다.

○林春元委員 張玲子씨가 같은 矯導所에서 다 解決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證人 邊康雨 예. 서울拘置所에서 그랬습니다.

○林春元委員 李哲熙씨의 얘기는 지금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大和産業 財産을 整理하면 骨董品하고 整理하면 깨끗하게 자기 負債를 다 갚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認定할 수 있으십니까?

○證人 邊康雨 예. 저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그 사람이 15年을 받고 있는 그것은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게 보십니까?

○證人 邊康雨 억울하고 안하고 法律的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林春元委員 證人이 생각하기에는 經濟事犯을 15年씩 그렇게 두 사람 다...

○證人 邊康雨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볼 때는 좀 억울하다고 봅니다. 과정을 생각한다면 억울하다고 봅니다.

○林春元委員 그러면 대충 마감해가면서 몇 가지 다시 더 물겠습니다.

張玲子씨가 자기가 病院에 가서 약간 治療가 돼서 얘기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우리 國會聽聞會에 나와서 모든 것을 證言하겠다고 本委員에게 직접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 張玲子씨가 거기에서 어떤 脅拍이나 그런 면에서 다 풀려서 나와서 證言하게 되면 이 共榮土建에 관련된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질 수 있다고 證人은 생각하십니까?

○證人 邊康雨 그렇게 생각합니다.

○林春元委員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證人께서 權力과 癒着되어 돈을 벌려던 經濟人들이 또 그 權力에 의해서 破産하고 矯導所까지 가고 하는 우리 經濟人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國民앞에 그런 權力들에 의한 經濟人들이 더 이상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참으로 깊이 이럴 때 反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다시 張玲子와 같은 女子가 또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다만 부당한 政治權力이 아직까지 이 眞實을 가려낼 수 있는 사람들을 矯導所에 가두어가면서 事實을 隱蔽하려는 데에서 우리가 같이 탈피하기 위해서 國民앞에 證人도 지금 오늘 혹시 밝히지 못하는 얘기가 있으면 용기를 가지시고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本委員 이외의 다른 委員들이 앞으로 계속 물으실테니까 용기를 갖고 말씀해주시고 證言해 주시는 것이 國家와 國民앞에 오늘 國會에 나오신 證人의 입장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林春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 金東周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周委員 統一民主黨의 金東周委員입니다.

前 共榮土建 社長 邊康雨씨지요?

○證人 邊康雨 예.

○金東周委員 편의상 證人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共榮土建은 國內外 免許를 다 가졌지요?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런데 그 당시에 都給限度額이 國內 몇 位입니까?

○證人 邊康雨 저희들이 그 당시 한 12位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金東周委員 12位... 상당히 큰 企業이군요.

○證人 邊康雨 예. 아주 큰 企業이었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런데 企業은 企業家는 누구나 銀行에서 正常的인 金融도 쓸 수 있지만 私債도 쓸 수 있지요?

○證人 邊康雨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대부분 大企業도 쓰고 있지요?

○證人 邊康雨 그 당시는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金東周委員 그 당시에 「오일·쇼크」 이후에 國內 景氣가 좋지 않았지요?

○證人 邊康雨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金東周委員 저는 우리 同僚委員들하고 張玲子 李哲熙씨를 만나 본 이후에 저는 확실한 心證이 가는 部分이 있습니다. 그런 次元에서 이 사건을 質問할테니까 혹시 앞의 委員의 質問에 翻覆이 있다면 다시 이 자리에서 翻覆하는 것은 偽證罪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대로 證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邊康雨 예. 알겠습니다.

○金東周委員 먼저 정리를 해 보면 李哲熙씨와 張玲子씨가 經營하는 大和産業은 여기에 여러가지 事業目的이 있지만 그 이후에 張玲子씨가 지금 현재 國稅廳을 상대로 해서 訴訟을 내서 金融業法 違反이 되었습니다. 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免許를 許可를 내지 않은 無免許 金融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張玲子 李哲熙씨는 뭐냐? 私債놀이를 했다 이 말이에요. 돈 장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合理化되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 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張玲子事件이... 張玲子 李哲熙事件이 없었다면 만일 그 당시에 拘束이 안되었더라면 82年4月29日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共榮土建이나 日新製鋼이 不渡가 나지 않았지요?

○證人 邊康雨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金東周委員 틀림없지요?

○證人 邊康雨 예. 없습니다.

○金東周委員 바로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張玲子 李哲熙事件이 그 당시에 國內政治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오늘 모양으로 서울地下鐵 이런 것이 問題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全斗煥政權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 당시에 7·8,000億을 해먹은 大型 어음詐欺事件이라고 言論은 報道했지요?

○證人 邊康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1,249億의 어음을 割引했습니다. 그리고 本委員은 國會議員이 되기전에 저도 한 6·700名 데리고 中小企業을 한 두 個 해 보았습니다마는 돈 빌려러 가는 사람이 돈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꿈쩍을 못 합니다.

또 하나 내가 만일에 돈을 100億 빌릴 때 나는 銀行에 信用이 없어서 어음割引이 안되지만 돈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擔保物이 있고 公信力이 있기 때문에 그 어음을 銀行에서 再割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大韓民國의 어느 事業家가 돈 100億을 빌려줄테니까 100億은 내가 決裁하니까 빌려달라 했을 때 안빌려 쓸 수 있는 事業家 있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을 私債市場에 들어온 어음 資金으로는 참 事件나고서 알았지만 그 중간까지의 그런 資金을 活用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金東周委員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위의 資金은 어떤 資金인지 아직 안물었습니다.

또 하나는 張玲子씨의 경우에는 저는 法律家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詐欺事件의 成立與否 자체가 나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地下金融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金融이 實名制 안되고 현재 金融이 特惠로 나가고 一般 「백」없는 中小企業은 企業은 돌려야 되고 不渡는 안내야 되고 人件費는 줘야 되고 하니까 급한 私債라도 빌려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社會的인 배경에서 分析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특히 이 張玲子 李哲熙씨는 鑑定院 鑑定이 100億이 나가는 擔保物을 日新製鋼이나 共榮土建에... 거기에다 아마 거기

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共同擔保도 되어 있어요. 銀行에...

또 하나 분명히 大和産業이나 혹은 다른 데 어음을 有價證券입니다. 그쪽에 擔保로 제공했어요. 그래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떤 어음의 하나의 個人과 個人의 商去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런데 이 全斗煥 그 당시의 大統領은 이 張玲子事件이 保安을 유지하다가 폭로가 되자 이 張玲子란 이 人物이 문제예요. 바로 李圭光의 처제니까... 그러니까 結果的으로 자기 처삼촌이요 李順子에게는 삼촌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당시의 政治의인 형태가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靑瓦臺에 있는 民情이나 司正首席 兩許씨는 民正黨의 創黨「멤버」인 權正達事務總長과의 눈에 안보이는 엄청난 政治的인 權力 암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래되었을 때 이 事件을 단순 張玲子 李哲熙씨가 연행되던 4月29日은 어떤 事前 家宅 搜索令狀이나 혹은 法院의 令狀 없이 두 사람을 분리해서 3·40名의 搜查官을 동원해서 거기에서 집을 전부다 뒤진거예요. 그 당시에 美貨 40萬弗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外換管理法 違反 중다 이말이야... 이 事件을 가지고 이제 張玲子 李哲熙事件을 전부 다 內査를 하기 시작하니까 日新製鋼 共榮土建 「라이프」住宅 여러가지 會社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사실 經濟事件을 가지고 또 一般 크게 흉악범 아니면 부부간에 拘束하는 것 봤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證人 邊康雨 못본 것 같습니다.

○金東周委員 못봤지요?

○證人 邊康雨 예.

○金東周委員 한 사람은 不拘束해야 됩니다. 두 사람을 拘束시킴으로 인해가지고 그 다음 5月14日 證人을 檢察에서 불렀지요?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래서 5月16日 拘束했지요?

○證人 邊康雨 예. 맞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러니까 會社는 社長이 없으니까 또 去來處인 張玲子 李哲熙씨도 拘束해 버리고 이쪽의 證人 會社 社長도... 바로 社長이지요?

○證人 邊康雨 예.

○金東周委員 拘束해 버리니까 會社는 不渡가 날 수밖에 없지요?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래서 2年6個月間 刑務所 생활했지요?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러면 이 事件은 어떻게 보면 왜 證人 會社와 日新製鋼을 지적했는지 모르니까?

○證人 邊康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金東周委員 張玲子가 어음 할인해 준 會社가 전부 다 詐欺에 해당이 되고 어떻게 犯罪事實이 있다면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약 7·8個 業體가 다 이런 處罰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證人 邊康雨 그렇지요.

○金東周委員 그런데 本委員이 調査를 해보고 또 항간에 들은 말에 의하면 證人 會社는 共榮土建은 權正達씨하고의 아주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日新製鋼은 李圭東씨가 자기 아들인 李昌錫이를 鐵鋼業의 하나의 代父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음모로서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計劃的으로 不渡를 내게끔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邊康雨 그런 데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事實이 그렇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金東周委員 그런데 그런 경향이 안삽니까? 「라이프」住宅도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도 왜 證人 會社만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證人 邊康雨 그런 다소의 의심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 수 없으나...

○金東周委員 알 수는 없으나 의심은 있지요?

○證人 邊康雨 좋은 일이 아니지요.

○金東周委員 그리고 그 당시의 檢察搜查記錄이나 혹은 稅務署에서 張玲子의 財産을 調査해 보니까 460億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의 時價는 1,000億정도의 財産이 되었다는데 그 점은 알고 있지요?

○證人 邊康雨 그것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金東周委員 들었지요?

○證人 邊康雨 예.

○金東周委員 大和産業이나 혹은 張玲子の 個人財産… 지금 證人이 생각하니 그 당시의 생각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들은 말에 의하면 本委員이 이야기 하듯이 이것은 분명히 許三守 許和平과 權正達 李圭光의 두 사람의 「파워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런 거의 政治的인 문제까지는 저로서는 企業人으로서는 잘모르겠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런 이야기도 안합니까?

○證人 邊康雨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金東周委員 없었다… 좋습니다.

그 당시에 이 事件을 두고 화살 하나에 토끼 두 마리 잡았다는 事件입니다. 이것이… 許三守 許和平이 가 쓴 화살 하나에 巨物 權正達이 李圭光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두 마리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權正達씨야 民正黨 事務總長이고 李圭光씨는 大韓鑛業振興公社 社長 아닙니까? 그렇지요? 엄청난 사람들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느냐 이 事件을 조사한 法務部長官 檢察總長이 날라갔어요. 그것은 알고 있지요?

○證人 邊康雨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다 이 事件에 介在된 것이예요. 계속 이 民正黨 金斗煥 政權下에서는 權力싸움의 이것이 바로 始發點이에요. 그리고 張玲子씨가 永登浦拘置所에 가니까 억울하다고 살려달라고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資金의 背後에는 항간에 저에게 오는 提報에 의하면 李順子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靑瓦臺에서 그렇게 壓力을 가해서 張玲子 李哲熙를 拘束시키고 共榮土建 日新을 파산시켰느냐 하는 이유는 바로 李順子씨나 金斗煥씨의 介入說을 강력히 遮斷시키기 위해서 그런 가혹한 행위를 한거예요.

또 企業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企業家를 拘束을 시킨다 하면 우리나라 大企業家中에서 여기에 法증 違反 안하고 돈벌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괜찮아요.

○證人 邊康雨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委員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金東周委員 그렇지요. 企業은 하나의 社會的인 責任도 있고 從業員들에 대한 責任도 있는 것 아니요?

또 證人이 가지고 있던 東海生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東海生命은 그 株式이 共榮土建 法人이 48.5%고 그 다음에 證人外 35人으로 되어 있는 株式이 51.5%지요?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맞습니까?

○證人 邊康雨 예. 맞습니다.

○金東周委員 이 東海生命하고 共榮土建을 引受한… 현재는 東海生命이 東亞生命이지요?

○證人 邊康雨 예.

○金東周委員 引受한 東亞建設에서는 그 당시에 金斗煥씨의 그 妹弟입니까 同壻입니까? 막내 同壻이지요? 洪淳斗가 그 系列의 會社에 있었지요? 社長으로 있었지요?

○證人 邊康雨 요즘 알고 있었습니다.

○金東周委員 그 會社 이름이 무엇입니까?

○證人 邊康雨 그 會社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있었다 하는 것만…

○金東周委員 전부 다 모른다 하고 있어요!

○證人 邊康雨 요즘은 알고 있습니다.

○金東周委員 무엇입니까? 어느 會社입니까?

○證人 邊康雨 東亞 系列會社 社長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래요? 자기 物件을 뺏겼으면 똑똑히 알아야지요. 大韓航空貨物株式會社 아닙니까?

○證人 邊康雨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金東周委員 내가 일일이 다 알으켜 주어야 합니까?

또 그 당시에 證人은 東海生命의 株式을 引受할 때 그 당시의 主來銀行인 商業銀行에 이 株式을 보관시켰지요?

○證人 邊康雨 예. 보관시켰습니다.

○金東周委員 擔保提供한 것 아닙니까?

○證人 邊康雨 아닙니다.

○金東周委員 그 당시에 보관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證人 邊康雨 與信管理規程을 받는 會社는 새로 企業을 引受하면 株式을 主來銀行에 보관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관했습니

다.

○金東周委員 그래서 절대로 擔保나 質權設定한 것이 아니고...

○證人 邊康雨 예.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金東周委員 분명히 보관시켰다...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틀림없지요?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런데 왜 商業銀行에서는 보관시킨 어음을 가지고 자기들 任意대로 이것을 東亞建設에 넘겨주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의문이...

○金東周委員 의문이 아니라 억울하지요?

○證人 邊康雨 예. 억울합니다. 말이 안 될 이야기지요.

○金東周委員 그것은 말도 안되고 턱도 없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證人 邊康雨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바로 이것이 不法입니다. 또 우리가 企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生命保險같은 것은 하나의 企業의 꽃이라 안합니까? 돈 제일 活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證人 邊康雨 資本主義에서 企業의 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렇지요?

○證人 邊康雨 예.

○金東周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 東亞生命 價格이 한 2,000億 넘어 갔다는데...

○證人 邊康雨 당시 價格으로요?

○金東周委員 아니 당시는 한 7·800이고 현재는 한 證券市場에서 證券關係者들 이야기에 의하더라도 한 3,000億 정도는 간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邊康雨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몇 千億 된다고...

○金東周委員 아니 몇 千億이 아니라 이것「인플레」가 되어가지고... 대강 얼마정도 됩니까?

○證人 邊康雨 지금 會社에... 分析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3,000億은 된다고 推測을 할 수 있습니다.

○金東周委員 2·3,000億 價値가 있다 그런데 結果적으로 2·3,000億의 財産을 不法으로 지

금 현재 奪取당한 結果지요?

○證人 邊康雨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리고 아까 우리 同僚委員이 質問했는데 우리가 문제의 陝川「댐」과 住岩「댐」이 工事が 2,000億 이래 지금 나간 양으로 알고 있는데 本委員이 建設委員會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追加工事設計變更해 가지고 3,000億이 넘는데 이 工事は 당연히 이것은 共榮土建을 再生시킨다는 名目으로 주었으면 분명히 共榮土建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證人 邊康雨 당연하지요.

○金東周委員 이것을 東亞建設에 주었다는 것은... 東亞建設의 崔元碩이는 일개의 株主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렇지요.

○金東周委員 이것은 오히려 共榮土建을 빙자한 하나의 이것도 特惠지요? 共榮土建 債權者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證人 邊康雨 그런데 共榮土建을 管理하기 위해서는 東亞建設에 어느 정도 特惠는 주어야 되지만 그 외에 共榮土建을 살리기 위해서는 共榮土建에다 契約을 또 해주고 東亞建設은 별도로 어떤 支援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金東周委員 아니지요. 아까 證人이 저쪽하고도 무슨 손이 잡혀있는 感이 있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崔元碩이 個人이 法定管理人입니다.

東亞建設株式會社가 法定管理人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證人 邊康雨 法定管理人이 아니면 아마 法人이 될 수 없어서 아마 個人이...

○金東周委員 될 수도 있습니다.

○證人 邊康雨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러면 崔元碩씨가 지금이라도 죽어버리면 法定管理人이 없어지는 것이요. 個人이... 東亞建設이 되었으면 社長이 崔가 되든 내가 되든 누가 되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東亞建設이 營業을 잘해 가지고 나오는 利益金에서 共榮土建 債務者에게 돈을 갈라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證人 邊康雨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金東周委員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李哲熙씨가 그 당시에 調査를 받을 때 約 500億 이상되는 資金이 行方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보통 公務員들 혹은 公職者들 단 돈 100萬원 정도만 「와이로」를 먹이면 그것 追跡하는 데 있어서 大韓民國 檢察 잘해 냅니다. 非搜查 專門家인 나도 이번에 日海財團 다 追跡해 냈는데... 手票 다 保管하거나 「마이크로 필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500億 이상의 資金을 檢察에서는 搜查를 했는지 안했는지 發表조차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證人 邊康雨 저도 지금까지 疑惑이 안풀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돈을 그 당시 찾았으면 그 善意의 많은 被害者도 發生하지 않고 저희 共榮土建도 이렇게 참 비참한 現實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저는 確信합니다.

○金東周委員 그러면 이 돈의 行方에 대해서는 證人도 의심이 가지요?

○證人 邊康雨 갑니다. 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資金을 왜 못찾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金東周委員 그래서 本委員은 엄청나게 이 事件에 대해서 깊이 지금 현재 調査를 하고 있고 張玲子씨를 罪가 있다면 그 罪는 미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제가 꼭 살려서... 죽지 말고 이 事件을 國民에게 밝혀야 된다 하는 데에 제가 깊이 파고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事件을 金斗煥 李順子 權正達 하나의 그 당시의 政治 權力者들이 張玲子 李哲熙씨를 앞장 세워가지고 民正黨의 政治資金 陰謀가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心證이 가는 것이 바로 張玲子씨와 자기 父親과 母親 張玲子씨와 큰손님간의 賣買 등에서 나오는 矯導官이 作成한 하나의 接見表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證人은 그렇게 좀 생각 안합니까?

○證人 邊康雨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金東周委員 하도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不渡가 낫지 않아요. 또 하나...

한번 다시 整理를 합시다.

내가 오늘 質問要旨는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에 그 당시에 張玲子 李哲熙씨를 緊急拘束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共榮土建이나 日新製鋼은 不渡가 안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을 같이 합니까?

○證人 邊康雨 예. 그 점에 대해서는 確信합니다.

○金東周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 할 얘기있습니까?

○證人 邊康雨 이런 기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企業을 찾기 위한다기 보다는 저를 믿고 저희 共榮土建을 믿고 그렇게 많은 國民과 被害者들이 억울한 犧牲을 당한 것을 이 기회에 어떻게 하면 救濟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하는 것을... 사실 저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企業이야 公開企業이 누가 하면 무슨 관계 있습니까? 有能한 사람이 經營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저를 믿고 저희 共榮土建을 믿은 많은 善意의 被害者들과 우리 會社 任職員들은 漂流을 하고 있으니 참...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도저히 부족합니다마는 정말 이런 기회 만이라도 그런 것을 救濟해 주지 못하면 어디 누가 하겠나 하는 데에서 사실 제가 나온 것입니다.

○金東周委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東周委員 끝냈어요?

○金東周委員 예.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共和黨 金 炫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 炫委員 新民主共和黨 金 炫입니다. 지금 先輩委員님들이 質問하신 것은 重複되는 것은 가능한 한 빼겠습니다.

우선 지금 權正達議員하고의 大尉 시절부터 아는 사이였었다 또 그 당시 資金의 가장 中樞役割을 했던 金동희씨가 妻男이지요?

○證人 邊康雨 妹夫입니다.

○金 炫委員 아! 妹夫입니까? 金동희는 權正達씨하고 安東農高 同期同窓이지요?

○證人 邊康雨 安東高等學校 同期同窓입니다.

○金 炫委員 지금 世俗에서 얘기하기를 지금 나오신 證人에게 女子에게 놀아난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企業을 하시다보면 급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資金調達을 하셔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海外工事쪽에서 「쿠웨이트」쪽 많이 損害를 보셨지요?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金 炫委員 「사우디」쪽은 어땠습니까?

○證人 邊康雨 「사우디」는 좋았습니다. 資金이... 既成高가 낮았지 工事內容은 좋았습니다.

○金 炫委員 工事內容이 좋았다는 것이 利潤을 追求하는 企業에서 利潤이 남은 것을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證人 邊康雨 예. 利潤이 많이 날 수 있는 工事を 좋았다고 그런 것입니다.

○金 炫委員 그런데 그 당시 「사우디」에서 「사우디」政府 發注 원명으로 JHC 등등 기억하십니까? 「주베일」工事...

○證人 邊康雨 代表的인 것이 「주베일」工事입니다.

○金 炫委員 「주베일」工事 36番道路工事 등등을 해서 그쪽에서 不渡가 나기 시작했지요? 어쨌든 「쿠웨이트」쪽에서 赤字가 났든 어떻게 했든 해서 그 쪽에서 不渡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證人 邊康雨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 당시 「사우디」에서는 既成이 낮어지고 「쿠웨이트」에서 마친 工事は 赤字가 났습니다.

○金 炫委員 既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쪽 政府쪽으로부터 制裁를 받기 시작했지요?

○證人 邊康雨 그러한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金 炫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제가 다른 것을 證人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過熱된 事業意慾에서 일들을 하시다보니까 여기저기 벌리다보니까 既成을 제대로 못 맞추고 해서 相對方 國家로부터 상당히 곤욕을 치렀던 사실의 原本을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힘이 약하고 國力이 약한 나라도 「사우디」같은 경우 銀行에서만... 相對國 銀行에서만 支拂保證을 해주면 모든 工事を 했는데 「사우디」같은 경우 유독 우리 大韓民國은 銀行保證 갖고는 안되어서 國家保證까지 해주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애기지요?

○證人 邊康雨 初期에는 그랬습니다.

○金 炫委員 어쨌든 國家保證까지 했었지요?

○證人 邊康雨 初期에는 國家保證해도... 銀行保證이었습니다.

○金 炫委員 그러면 그 쪽에서 事故가 났을 적에 여기 財務部長官 韓國銀行 商業銀行長이 措置를 전부 다 책임지고 國家次元으로 해결테니까 工事を 그대로 하게 해 달라고 하는 公文이 간 사실을 압니까?

○證人 邊康雨 그것은 事故가 난 뒤라서 재가 잘 몰랐습니다라는 저회 會社 하나로서 다른 建設會社에 波及效果가 있을까봐 아마 政府次元에서 協調를 부탁했으리라고 충분히 봅니다.

○金 炫委員 그렇습니까?

○證人 邊康雨 예.

○金 炫委員 그랬는데도 그 쪽에서 SAMA 措置라는 措置를 취해버렸지요?

○證人 邊康雨 初期에 그랬다가 나중에 解決되었다고 봅니다.

○金 炫委員 나중에 解決은 되었지만 나중에 어느 工事が 들어가서 그것을 國家次元에서 모든 損害를 감수하고도 그 工事を 끝내 주었기 때문에 그 措置가 끝난 것 아닙니까?

○證人 邊康雨 그러나 發注處로 볼 때는 그 會社가 不渡가 났다 하면 거기에 대한 對備措置를 하는 것은 「사우디」나 韓國이나 똑같은 措置입니다. 하나의 依例에 불과할 것입니다.

○金 炫委員 本委員이 證人에게 묻는 것은 이런 식으로 海外工事만 하면 무조건 남는 것으로 자꾸 확장을 하다보니까 國家的인 망신 또 여기서 나간 모든 우리나라의 建設企業들의 망신 오죽하면 銀行이 保證을 해도 안된다고 할 정도의 이 문제에 대해서 企業人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邊康雨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委員長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초기에는 우리 國家가 外換事情이 어려워서 政府에서 과감하게 支援을 해서 海外에 나가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정말 1,000萬弗 얻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外換危機時節을 우리 建設이 가서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과정에 다소의 問題點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회들 會社는 적어도 20年 가까운 海外技術蓄積이 있고 人力이 돼있었습니다. 절대 무리한 工事は 아니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金 炫委員 危險工事は 아니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아니었습니다.

○金 炫委員 혹시 張玲子씨로부터 돈을 빌렸을 적에 「이라크」에 鐵道工事 14億 하는 것이 또 탐이 나서 돈이 굉장히 급했었지요?

○證人 邊康雨 탐이 나는 것이 아니라 工事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라크」에 進出權을 가지고 그거와 「하비타」 25億弗 工事도 저희 3社가 「조인트벤처」를 해서 곧 推進決定段階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工事は 이것이 한번 끝나면 바로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중복이 돼 나갑니다. 중복이 돼나가는 人力과 資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國際적으로 信用을 얻은 탓에 그런 큰 工事が 저희들에게 受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金 炫委員 그러니까 赤字가 나더라도 信用만 얻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여기 表를 이따가 證人에게 보여드리지요.

○證人 邊康雨 「쿠웨이트」 빼놓고는 저희들이 赤字난 現場이 없습니다. 東南亞에서도 그렇고요. 「사우디」에서도 赤字난 現場이 없었습니다.

○金 炫委員 그래서 지금 「이라크」의 鐵道工事を 하기 위해서 資金이 굉장히 필요했을 당시에 그것을 노린 사람들이 있어서 시작이 됐겠지요. 우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不渡가 나기 직전 共榮土建株式會社は 本事務室은 鹽倉洞에 있었고 또 하나의 事務室이 있었다는...

○證人 邊康雨 또 하나의 事務室은 市內에서 銀行 가까이 資金管理하는...

○金 炫委員 고려「빌딩」 3層에 資金管理를 하기 위한 事務室이 있었지요?

○證人 邊康雨 예.

○金 炫委員 資金問題에 대해서만은 세 사람이 거기서 勤務를 했다면서요?

○證人 邊康雨 아닙니다. 거기서 市內連絡事務所 역할을 한 것입니다.

○金 炫委員 結果적으로 連絡事務所이 됐는데 資金擔當 변태수씨 그 다음에 아까 지적했던 權正達이 高等學校 同窓이자 妹夫인 金동희씨

그리고 女職員 이렇게 勤務를 했지요?

○證人 邊康雨 예.

○金 炫委員 대부분 會社 어음이나 手票를 發行하는 도장은 하나인데 貴會社는 그 당시 도장이 두 個로 찍혔었다는대요?

○證人 邊康雨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나 하면 印鑑圖章은 하나입니다.

○金 炫委員 하나였는데 手票發行하는 圖章이 두 個였었다는데...

○證人 邊康雨 그럴 수가 없습니다.

○金 炫委員 鹽倉洞 事務室에서 發行하는 어음이나 手票는 主去來銀行인 商業銀行 交換用이고 光化門事務室에서 發行하는 어음이나 手票는 副去來銀行인 朝興銀行 交換用이지요? 양쪽이 달랐지요?

○證人 邊康雨 그 관계는 조금 訂正하겠습니다.

저희들이 商業銀行과 朝興銀行 두 군데를 去來를 했는데 그 銀行마다 印章은 다른 겁니다. 朝興銀行 去來銀行이 따로 있고 商業銀行 去來印章이 따로 있었습니다.

○金 炫委員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본 것은 원 事務室에서는 主去來銀行인 商業銀行 것으로 끊고 鹽倉洞에 나와 있는 事務室에서는 朝興銀行 것으로 끊고 양쪽이 분리돼서 끊었다는대요...

○證人 邊康雨 분리해서 끊은 것은 사실이지만 事務室 자체를 분리해 놓고 끊은 것은 아닙니다.

○金 炫委員 張玲子씨와의 去來는 80年5월부터 시작된 거지요?

○證人 邊康雨 81年2월부터 했습니다.

○金 炫委員 여기서 잠깐 거꾸로 하나만 물어보고 가지요.

지금 현재의 東亞生命 그것을 언제 引受하셨습니까?

○證人 邊康雨 80年6월인가 했습니다.

○金 炫委員 여기서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引受하기 얼마전에 張玲子씨 權正達씨 해서 만난 적 없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런 일 없습니다.

○金 炫委員 없습니까?

○證人 邊康雨 예. 없습니다.

○金 炫委員 그럼 이 東海生命을 얼마에 引受하셨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 당시에 105億에 引受했습니다.

○金 炫委員 支給한 것이 105億입니까 전체다 計算하고 支給해 준 것이요. 損費處理하고 현찰로 넘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證人 邊康雨 전부 105億을 쳐서 計算했습니다.

○金 炫委員 105億을 쳐서 負債蕩減 다 따지고 證人의 현찰로 支給된 것이 얼마입니까?

○證人 邊康雨 그것이 損費處理되고 난 것이 105億 아니겠습니까? 105億일 것입니다.

○金 炫委員 틀림 없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 計數關係는 제가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105億으로 契約을 했습니다.

○金 炫委員 契約을 105億으로 하고 그 당시 負債를 잔뜩 졌으니까 그것 蕩減시키고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당시 支給額?

○證人 邊康雨 그당시 負債 전부 저희들이 안고 現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金 炫委員 現金 일부 얼마를 지급하셨는지?

○證人 邊康雨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金 炫委員 그 당시 넘어갈 적에도 權力型에 의해서 넘어간 것이라는 말이 있고 불과 얼마 주지 않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證人 邊康雨 그런 일은 없습니다.

○金 炫委員 105億을 계산해서 그 당시 資本金이 10億이었는데 그 당시 負債가 많았고 했기 때문에 計算은 105億으로 契約을 하고 실지 넘어간 額數를 證人의 입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證人 邊康雨 그것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 炫委員 證人! 共榮土建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고 東海生命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는데 本人이 가져올 적에도 과연 얼마짜리가 얼마짜리로 됐고 지금에 와서 얼마가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진실하게 對答해 주시기 바랍니다.

80年10月 어느날 9時 朝興銀行 그러니까

이쪽 事務室에서 고려「빌딩」에서 끊은 어음때문에...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德壽支店 안에서 이상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共榮土建의 資金擔當 변태수 資金擔當 김동희 그리고 그당시 朝興銀行 德壽支店長 會社印鑑圖章을 갖고 온 資金擔當部長등 일행과 朝興銀行支店長은 理事會 決議書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제일 첫번 事故난 문제입니다.

○證人 邊康雨 그런 實務의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金 炫委員 상당히 급하셔서 알았을텐데요.

○證人 邊康雨 왜 그러냐 하면 資金은 資金 責任者가 하지 社長이 일일이...

○金 炫委員 張玲子에게 준 어음이 처음 40億짜리가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기억을 못하십니까?

○證人 邊康雨 돌아오고 끊어주고 計劃은 社長에게 일일이 報告를 하지 않습니다. 全體的인 計劃만 가지고 目次만 가지고 報告하는 것입니다.

○金 炫委員 다시한번 證人에게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40億짜리 그것이 돌아오지 않아야 할 어음이 갑자기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社長에게 報告가 안됩니까?

○證人 邊康雨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달에 몇 백 億씩 거래가 되는데 일일이 資金報告를 저희들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企業들이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資金責任者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 炫委員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도대체 200億을 빌려쓰고 1,467億의 어음을 끊어준 사실은 분명하지요?

○證人 邊康雨 그렇습니다.

○金 炫委員 어음은 현찰과 똑같은 것인데 그렇게 많이 끊어줄 수 있어요?

○證人 邊康雨 結果를 놓고 볼 때 經營者로서 분명히 사과드립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金 炫委員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證人 邊康雨 대개 시간이 길고 제가 說明

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李哲熙씨의 과거 經歷 또 去來하면서부터의 그 사람이 지켜온 信用 그러다가 어음을 교환하는 과정에서의 計數에서 처음에 서로가 약정한 計數보다 다소 차가 나는 것은 저도 具體적으로 說明을 드리기가 잘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직접 겪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조금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 日新어음과 大和어음을 가지고 와서 서로 相計를 시키자고 해서 서로 相計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보스럽게도 그 어음을 보관해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金 炫委員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200億원의 돈을 빌려쓰고도 1,400얼마 정도씩 이 건질어음을 주지 않으면 이 事業이 힘들 정도로 각박했던 것은 사실...

○證人 邊康雨 그때에 가서 企業이 어려우니까 저쪽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 준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끊어 줄 수가 없지요.

○金 炫委員 그렇지요. 누가 와서 資金을 준다고 안했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證人 邊康雨 지금까지 信用을 지키지 않고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당시 활용하는 것을 봐서는 충분히 믿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려든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었지요.

○金 炫委員 마지막으로 證人께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몇 가지 서류를 보니까 外國에 나가서 이득이야 남든 안남든 공사만 많이 하면 그 실적 가지고 특혜 등등 또 本人들이 會社를 引受할 적에는 엄청나게 싸게 하고 지금 5共和國 당시에 뺏겼던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은 다 정상인 양하고 있는데 會社를 운영해 가면서 이득 남기는 것보다 負債가 더 많다고 봐요. 그 당시 共榮土建도 2,000 몇 백 億이라는 적자를 냈던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邊康雨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負債가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마는 海外工事에서 어느 業體 못지않게 우리나라 전체 평균으로 봐서도 우수한 業體에 들어가지 부실한 業體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金 炫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을 과욕적으로 하시고 外國 나가서 하다가 이런 SAMA措置나 당하고...

○證人 邊康雨 아닙니다. 이것은 부도를 내고 이런 措置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했지...

○金 炫委員 어쨌든 그 당시 共榮土建으로 인해서 「사우디」에서 나온 SAMA措置를 보면 엄청난 國家的인 망신을 당한 것으로 볼 적에 企業人들에게 나만 살면 된다 우선 하면 된다는 것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남아서 떨어진 것은 우리 國民들에게 稅金밖에는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李哲熙 張玲子씨 또 權正達 등등 權力層者들이 이것을 봐주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의 權力을 누렸고 政治資金이나 뜯어간 것을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企業人들에 대한 하소연이고 절규입니다.

앞으로 어느 분들이 企業을 하시더라도 뭔가 國民들에게 稅金 피해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證人 邊康雨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企業을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아서 78년부터 事業을 했습니다마는 흔히 얘기하는 政經癒着이라든가 權力에 대해서는 분명히 요만큼도 없다는 것을 良心에 걸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海外에 나간 동기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69년부터 海外에 나간 것은 國內에서 그런 政治的인 「로비」를 못하기 때문에 海外 나가면 자유스럽게 능력으로 일할 수 있어서 나가게 되었고 또 나가더라도 工事 자체가 지금도 그때 사고가 나서 다소 추가요인이 들어갔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工事보다도 우수한 工事を 했고 또 우리

「팀」들이 어느 會社에 가셔도 다 훌륭하게 인정을 받았던 것은 그 당시 代表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建設人으로서도 지금도 委員 여러분께 良心에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李基澤委員長, 崔洛道幹事와 司會交代)

○金 炫委員 결과적으로 共榮土建에 어떤 일을 했든 부도가 났든 資本金 잠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國家로부터 재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요?

○證人 邊康雨 결과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저는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金 炫委員 또 그로 인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갔든 어떻게 했든 3,000 몇 백 名이라는 여기에 걸려있는 피해자들 엄청납니다. 그중에 자살한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적에 證人의 얘기는 이것을 말아서 잘 운영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앞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해라 잘 먹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제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洛道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平和民主黨의 朴相千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朴相千委員 朴相千委員입니다. 證人이 역을 한 점도 많겠지요. 그렇지만 國會調査의 客觀性을 위해서 물어야 할 것은 다 묻겠습니다.

證人은 81년2월부터 82년4월까지 李哲熙 張玲子에게 약 200億을 빌렸지요?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런데 共榮土建 會社名義로 된 어음을 7배나 넘는 1,599億원을 發行했네요?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李哲熙 張玲子の 어음詐欺事件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1981년2월부터 82년4월 약 1年 사이에 2年据置 3年分割償還이라고 하는 유리한 條件을 가진 資金을 貸付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會社에게 貸付할 돈에 대한 擔保用 어음 全額用 어음과 割引用 어음을 要求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貸付할

돈의 두 배에 해당하는 額面の 어음을 要求했습니다.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래가지고 그 어음을 두個를 다 私債市場과 金融機關에 割引해가지고 그 돈을 착복하는 이런 형태의 특이한 형태의詐欺事件입니다. 그런데 다른 會社는 전부 두 배의 어음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證人의 共榮土建에서는 일곱 배의 어음을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證人 邊康雨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1年동안 가는 동안에 어음交換과 發行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처음에는 8個月 이상 去來를 잘하다가 저쪽에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意識으로 더 發行을 많이 하도록 유도한 것은 먼저 2個月分을 끊어도 2個月分을 끊어주면 자기들이 回收하는 期間이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끊어주면 이 사람들이 回收를 해 온다고 하면서 回收를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배가 더 나가고 배가 나간 것은 回收가 안된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되고 그것이 결국 지금 물린거죠.

○朴相千委員 그런데 그것은 말이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共榮土建은 오래된 會社입니다. 거기에 방금 그런 식으로 속인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고 여기서 本委員이 주목하는 것은 證人 會社에서 擔保用 어음을 끊어줄 때 擔保用 어음은 李哲熙 張玲子が 가지고 있어야 할 어음입니다. 가지고 있어야 할 어음이기 때문에 구태여 가령 200億을 빌리면 200億을 貸付할 경우에 李哲熙 張玲子は 200億짜리 擔保用 어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割引用 어음 유통시킬 어음은 몇 千萬원이나 몇 千億씩 나누어가지고 받겠지요. 왜냐하면 200億을 한꺼번에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擔保用 어음도 證人會社 것은 4億짜리도 있고 또 記者들의 추적에 의하면 2·3,000萬 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러면 擔保用 어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유통될 것을 예견하면서 證人은 李哲熙 張玲子에게 全額用 어음이라고 해서 어음줄 때 少額도 아닙니다마는 워낙 單位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몇 百億에 비하면 少額입니다마는 少額으로 나누어

진 어음을 주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李哲熙 張玲子가 이 어음을 다른 곳에 유통시키겠구나 하는 것을 예견하면서 주었다 이겁니다.

○證人 邊康雨 그것은 분명히 어느 바보같은 사람이 예견하고 자기어음을 私債市場에 돌리게 끌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朴相千委員 왜 少額으로 나누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것은 本人들이 원해서...

○朴相千委員 本人들이 그렇게 원할 때는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證人 邊康雨 그것은 충분히 特殊資金을 자기들이 管理하는 과정의 하나의 使用上の問題點이니까...

○朴相千委員 使用上の問題點이라고 하는 것이 유통할 때의 문제點이란 말이에요?

○證人 邊康雨 저희들이 그것을 예견했다면 처음부터 去來하지 말지 私債市場에 만일 간다면 저희들이 훨씬 좋은 條件으로 하지 李哲熙 張玲子 얼굴 보고 어음 바꾸는 것이 아니라 共榮土建 邊康雨보고 바꿔 주는 것 아닙니까?

○朴相千委員 特殊資金이기 때문에 나누어진 어음을 주었어요. 證人會社에서 共榮土建에서 200億원을 빌렸으면 1億이나 몇千萬원씩 나누어진 어음을 주었어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擔保로 가지고 있을 어음 건질용 어음은 한장에 200億이라고 써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것도 나누어진 것을 주었다 이거예요.

○證人 邊康雨 그것을 저희들도 그런 委員님과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100億짜리나 200億짜리 한장이면 되지 왜 바뀌었느냐... 자기들이 陰性資金을 陽性化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擔當者가 물으니 그것은 共榮口座를 통해서 陽性化시키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바뀌가니까...

○朴相千委員 그 말은 벌써 그것이 순수 擔保用 保管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그 당시...

○朴相千委員 證人은 이 점에 대해서 82年5月12日字 東亞日報 인터뷰에서 이러한 실수를 한 것이 李哲熙가 國家的으로 중요한 事業에 협조하라고 해서 半強制的으로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國家的으로 중요한 事業이 어떤 事業입니까?

○證人 邊康雨 그런데 國家的으로 중요한 事業이라는 말은 저도 기억에 없고 단 特殊資金을 성실하게 하는 企業人에게 지원해 준다는 資金이라고 했지 國家的인 중요한 事業을 半強制的으로...

○朴相千委員 新聞을 제가 가져 왔습니다마는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國家的으로 중요한 事業에... 證人의 인터뷰 記事에 나와 있습니다.

○證人 邊康雨 그렇게 제가 인터뷰 한 일이 없었을 것인데요.

○朴相千委員 要點이 아니니까 그만 둡시다. 그렇게 틀림없이 했습니다.

혹시 權正達씨가 다른 權力層 人士에게 권유를 받아서 그렇게 많은 어음 7배에 가까운 어음을 끌어주고 또 그것을 少額으로 분할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도록 해서 해 준 것은 아닙니까?

○證人 邊康雨 그런 일은 없습니다.

○朴相千委員 아까도 없다고 하시대요.

○證人 邊康雨 예. 그것은 상식밖의 이야기 아니까요.

○朴相千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證人 邊康雨 結果적으로는 속은 것입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1年餘 동안 이를 충분히 지켜 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되풀이한다면 이제 陸軍 將星出身에 또 中情次長 次長을 지내고 國會議員까지 지내신 분이 나 이도 연만한 분이 또 高位層의 친 인척되는 분들이 어디 할 일이 없어 이런 사기를 하겠습니까?

○朴相千委員 그것을 證人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專門 企業人이 돈 200億원 빌리면서 1,599億원을 끌어준다고 그것도 더구나 분할해가지

고... 액면을 분할해서 어음을 끊어준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證人이 말씀하셔도 저쪽에서 어떤 협박 비슷한 것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주 친한 權力者가 권했거나 이런 사유가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企業人이 이불테면 돈 1億 빌리면서 7億짜리 어음을 2,000萬원씩 3,000萬원씩 나눠서 빌려주는 그런 企業人이 어디 있겠어요?

○證人 邊康雨 거기에 일신하고 대화 어음을 저희가 相對的으로 맞바꿨습니다.

○朴相千委員 일신은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證人 邊康雨 800億 받았습니다. 일신어음 100億 받고... 받아가지고 相計를 했습니다.

○朴相千委員 證人이 아까 처음 質問에서 巨額이 은닉되어 있을 것이라고 李哲熙 張玲子가 그 동안에 다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證人이 그렇게 말하는 根據는 무엇입니까?

○證人 邊康雨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800億이 넘는 돈을 끊어준 것을 事故나기 2個月 전입니다. 2個月 전에 나갔는데 어떻게 2個月 동안에 저희들이 탄 會社 것은 2,000億이나 된다고 합니까라는 저희들이 800億을 도저히 저희 상식으로써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또 사용해도 분명히 어딘가 그 증거가 있으리라고 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러니까 구속되기 2個月 전에 얼마를 끊어줬다고요?

○證人 邊康雨 한 800億 정도 됩니다. 集中的으로 나간 것이 2個月 전입니다.

○朴相千委員 그러니까 割引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證人 邊康雨 아니! 割引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 아니라 사용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고 또 사용했다고 그래도 使用處를 충분히 밝힐 수 있다 이것입니다.

1年이나 2年전 어음같으면 찾기가 어렵지만 2·3個月전 어음이야 어디가서 못찾겠습니까?

○朴相千委員 그것 一理가 있네요. 그것은 一理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檢察은 李哲熙 張玲子가 流通시킨 어음의 延額面... 전부 합친 額面이 7,111億입니다. 7,111億인데 이중에 미처 못쓴 것 또 돈으로 바꾸어서

갓다가 놓은 것 이런 등등을 다 빼면 5,775億입니다.

그런데 檢察은 처음에 이것을 搜查할 때에는 用途를 다 說明하고 77億이 행방불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82年5月29日 마지막 발표에서는 한문도 행방불명된 돈이 없다하고 다음과 같이 꼭 明細를 밝혔습니다. 제가 읽어 볼테니까 이중에 어느 項目에 지금 證人이 말씀하시듯이 2個月전에 끊어준 800億이란 어음을 어떻게 사용했을지 말이에요. 어느 項目에 함정이 있는지 한번 지적을 해보십시오.

어음回收에 쓴 돈이 4,487億이라고 그러니까.

○證人 邊康雨 어음回收에 필요한 돈...

○朴相千委員 예. 자기들이 어음을 돌리고 期日이 돌아오면 다시 막기 위해서 집어넣은 돈이 4,487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邊康雨 그것은 그 資金이 다시 돌아왔으면 또 자기 수중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돌렸으면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지요.

○朴相千委員 關聯會社에 빌려 준 돈이 576億 그것 證人들의 會社 200億 받듯이 거기에 다시 200億 들어가 있겠지요.

다음에 株式投機損失金이 387億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銀行預金誘致費用이 81億 個人財産取得資金이 195億 個人純粹消費가 49億이라고 發表를 했습니다.

이러면 아까 額數하고 總額하고 딱 들어 맞습니다. 그래서 한 문도 행방불명된 돈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그 중에 어음回收에 쓴 돈 4,487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被害者들이 被害額이 얼마지요?

○證人 邊康雨 저희들이 1,200몇십億으로 計算했는데요.

○朴相千委員 被害者들이 이렇게 4,487億을 回收를 했으면 被害者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證人 邊康雨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주장하는 것이 그 使用處를 밝히지 못한 어음을 찾는다면 많은 被害者가 救濟되고 企業도 살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資金은 1年間 쓴 資金입니다.

저희들이 詐欺당한 것은 2個月인데 2個月에 이 金額이 1年 쓴 것하고 相殺한다는 것 맞지않는 것입니다.

○朴相千委員 이렇게 어음을 착실히 막았으면 수많은 李哲熙 張玲子 被害者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本委員이 손대지가 며칠 안되어가지고 제가 被害者들 쪽을 자세히 調査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해둡시다.

그 다음에 株式投機損失金이 387億이라고 했는데 李哲熙 張玲子란 이 사람들은 당초에 4億5,000萬원으로 證券投資를 해가지고 20億 財産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證券에 '베테랑'들이예요.

그리고 81年 여름 그러니까 어음詐欺行脚에 들어간 이후에 建設株가 폭등해가지고 建設株에 投資한 李哲熙 張玲子가 막대한 利得을 보았다는 것이 證券街의 輿論입니다. 그 당시...

그렇다고 한다면 株式投機損失金으로 387億을 損害났다는 것도 믿기가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1年사이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음詐欺行脚한 것이 1年2個月이예요. 1年 약간 넘었습니다. 이 사이에 李哲熙 張玲子 夫婦가 이 財産取得하거나 누구한테 주고 한 것 말고요. 순수하게 消費한 것 다시 말하면 豪華生活해서 쓴 돈 豪華浪費로 쓴 돈이 49億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말은 두 夫婦가 하루에 1,342萬원씩 썼다는 소리입니다. 1,342萬원씩 하루에 매일 쓸 수 있을까요? 어찌다가 어떤 특정한 날 1,342萬원을 쓸 수는 있겠지만 하루도 쉬지않고 매일 1,342萬원씩 쓸 수가 있어요?

저보다는 돈이 많은 분이니까 한번 對答해 보세요.

○證人 邊康雨 거기에 대한 對答보다도 그런 현실이 어떻게 아직 있다는 것은... 그런 說明을 할 수 있다는 자체도 참 한심한 일입

니다.

○朴相千委員 그래서 이것은 숫자놀음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李哲熙 張玲子가 어음을 아까 이런 식으로 流通시켜서 벌어들인 돈중에 相當額이 證人의 말씀에 의하면 證人은 70%라고 新聞에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82年度 新聞에... 70%에 가까운 이 막대한 돈이 어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이 것이예요.

그런데 최근에 張玲子가 獄中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新聞에서 보았습니다.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權正達씨가 다 해먹고 우리만... 하고 말을 못 하였어요. 權正達이가 다 해먹고 우리만 이런다 감혔다 이 소리겠지요?

그래서 지금 부족한 隱匿된 돈이 權씨와 관계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權씨와 세 許씨간의 勢力다툼 와중에서 우리만 祭物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事件화된 원인도 權씨와 관계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證人이 아는데로 말씀해 보십시오.

○證人 邊康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대체 아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朴相千委員 그런 權力者들 문제는 함부로 말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합니까?

○證人 邊康雨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같으면 내가 직접 어음을 私債市場에 돌리지 왜 남을 두어가지고 돌리겠습니까?

○朴相千委員 그리고 아까 다른 委員들이 모두 물으시던데 지금... 다음에 特惠問題로 들어갑니다. 引受企業에 대한 特惠... 東亞建設 崔會長한테 여러가지 特惠를 많이 주었는데 이 特惠를 東亞 그룹 會長에게 준 것은 共榮土建의 어음을 가지고 있는 被害者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證人 邊康雨 被害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건실한 企業이 管理해 주는 것이 미덥고 좋지요.

○朴相千委員 지금 그 전에 한번 물어 봅시다.

共榮土建 어음債務에 대한 辨濟條件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 國民들에 대해서 어떤 條

件으로 辨濟해 주기로 했어요?

○證人 邊康雨 지금 제가 거기에 불만이기 보다는...

○朴相千委員 그 條件을 우선 말씀하십시오.

○證人 邊康雨 5年據置 15年償還입니다.

○朴相千委員 額面을 깎지는 않았습니까?

○證人 邊康雨 깎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朴相千委員 이것은 會社 整理法에 의해서 法院이 결정한 것입니까?

○證人 邊康雨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런데 방금 말씀한 문제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 여러가지 特惠를 東亞「그룹」 崔會長한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共榮土建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李哲熙 張玲子가 돌린 이 共榮土建 어음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중에는 평생 식도살이로 모은 돈 900萬원을 가지고 이 어음을 샀다가 悲觀해서 드러누운 할머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수많은 國民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돈을 못 받게 될 可能性도 있는 것이지요?

○證人 邊康雨 그렇지요.

○朴相千委員 그러니까 特惠를 줄려거든 共榮土建이라는 法人體에다가 特惠를 줘야지요?

○證人 邊康雨 그것이 順理라고 봅니다.

○朴相千委員 아까 의미도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證人 邊康雨 예.

○朴相千委員 그래서 東亞建設 崔會長한테 特惠를 줄 것이 아니라 共榮土建에게 주고 다만 崔會長은 共榮土建의 株式所有者로서 利得을 봐야겠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證人 邊康雨 성실한 管理者로서 利得을 보아야겠지요.

새로운 工事契約을 特惠를 주어도 東亞建設로서는 충분히 補償이 되지요.

○朴相千委員 그런데 特惠問題로 들어가 봅시다.

아까 東海生命말입니다. 당시 共榮土建의 系列會社인 東海生命의 株式을 銀行에 보관시켰는데 銀行에서 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質權設定한 것이 아닙니까?

○證人 邊康雨 아닙니다.

○朴相千委員 왜 보관시켰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 당시 銀行與信管理業體에서

는 새로운 企業을 引受할 때는 株式을 보관을 하라고 憑憑을 하길래 그냥 보관만 시켰습니다.

○朴相千委員 어느 銀行에 보관했어요?

○證人 邊康雨 商業銀行에 보관시켰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러면 그 때 銀行에 貸出金이 있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貸出金 있었습니까. 支給保證도 나가고 主去來銀行이기 때문에...

○朴相千委員 그러면 이번에 押留해서 처분했습니까?

○證人 邊康雨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이번 株總때도 매번 連絡도 없고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다 이번 聽聞會도 나오게 된다 해서 한번 알아보았더니 任意로 그 株券圖章을 보관해가지고 있었는데 任意로 아마 어떤 管理人인가 누군가는 모르지마는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런데 東海生命의 全體 株式을 300億으로 평가해가지고 지금 債務辨濟 中斷했지요?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아까 하시던데 어떤 점이 억울합니까? 金額에 대해서...

○證人 邊康雨 東海生命에 대해서 300億이든지 500億이든지 그 당시로 제가 대개 여러가지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6·700億은 충분히 되는 會社였고 500億이 되는 300億이 되는 중입니다마는 그것을 정당하게 入札을 보이든지 競爭을 시켜서...

○朴相千委員 이 300億은 上場價입니까?

○證人 邊康雨 上場企業이 아닙니다.

○朴相千委員 東海生命은 上場企業이 아니에요?

○證人 邊康雨 上場企業이 아닙니다.

그 억울한 被害者들을 갚아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정리의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朴相千委員 이 문제는 300億이 아마 株式基準市價로 측정한 모양인데 이렇게 全體株式이 갈때에는 株式의 10%나 5%가 갈 때는 별 문제이지마는 全體株式이 갈 때에는 이것은 經營權까지 덧붙여 가는 것입니다. 經營權까지 덧붙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經營權에

대한 價額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證人 邊康雨 당연히지요.

○朴相千委員 商銀에서 그것을 안 한것 같아요.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證人 邊康雨 예.

○朴相千委員 그 다음에 東亞建設 崔會長에 대해서 商銀하고 엮고저께 沈完求委員께서 폭로를 했습시다마는 陝川「댐」政府에서 發注하는 工事 3,000億원 相當을 주어 가지고 被害補償했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陝川「댐」과 佳岩「댐」工事を 隨意契約을 했습니다. 隨意契約을 했는데 證人은 建設業을 오래 하신 분이니까 묻습시다마는 이렇게 建設工事を 隨意契約을 할 수가 있습니까?

○證人 邊康雨 여간 특수한 條件이 없는 한 할 수 없지요.

○朴相千委員 豫算會計法과 豫算會計法 施行令을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隨意契約을 한 根據條項을 豫算會計法 112條1項1號를 꼽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商銀에 가서 들여다 왔어요.

그 條項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契約의 性質 또는 目的에 의하여 特定人の 技術 用役 設備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財務部長官이 인정한 때 隨意契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佳岩「댐」이나 陝川「댐」이 東亞建設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建設業體는 工事を 할 수 없어야 이 隨意契約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證人 보시기에 陝川「댐」이나 佳岩「댐」은 東亞建設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工事 할 業體가 없습니까?

○證人 邊康雨 제가 建設業者로서 거기까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特殊性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그것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共榮을 관리하기 위한 댓가로서는 東亞에 응당의 무슨 補償을 해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 負債를 진 會社를 어떻게 아무 補償없이 管理를 해줍니까?

그러나 그렇다면 그에 상응한 만큼 共榮土建에도 隨意契約을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朴相千委員 다음에 東亞「그룹」會長에게 이러

한 特惠를 준 이유는 李順子씨의 동생인 이신자씨 부부가 東亞의 系列會社 社長과 理事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證人 邊康雨 그것은 모릅니다

전에 金委員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朴相千委員 지금 證人께서 共榮土建과 東海生命을 인수한 東亞「그룹」에 대한 여러 特惠를 준 것을 비판하는 委員들의 質疑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特惠를 주었으면 그 特惠의 惠澤이 共榮土建 어음을 자기가 이때까지 저축한 돈으로 매수한 수많은 우리 國民들 中産層 혹은 庶民層 이런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인데 거기는 5年据置 15年償還으로 해놓고 어떤 特定 財閥「그룹」에만 이런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邊康雨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제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분야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많은 대다수의 國民들에게 피해를 줄여 주는 것이 政府나 關係者들의 기본입장인데 어떤 大企業에게만 그런 特惠가 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5年据置 15年償還이라는 措置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法定管理를 결정할 당시와 지금은 많은 興件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응당 거기다 再調整해서 충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相千委員 證人에 대한 의혹을 아까 추궁하니깐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을 너무 심하게 할 수 없어서 그만 두었습니다마는 그런 의혹을 씻는 의미에서도 證人께서는 이 聽聞會를 마친 이후에 지금 5年据置 15年償還으로 되어 있는 共榮土建의 어음의 辨濟條件 지금 많이 共榮土建 財務構造가 좋아졌다고 하니깐 會社整理法에 의해서 債務償還條件을 결정할 당시와 지금 상황이 바뀌어 졌습니다. 그 당시는 共榮土建이 대단히 어려운 財務構造를 지금 상당히 호전된 財務構造이기 때문에 法에서는 이것을 事情變更의 原則이라고 합니다.

事情變更의 原則이 있었기 때문에 證人이 이것 5年据置 15年償還이라고 하는 휴지조각

비슷하게 만든 그런 무의미한 有價證券으로 만든 이 조건을 바꾸는데 진정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邊康雨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相千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洛道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姜信玉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信玉委員 姜信玉委員입니다.

지금 朴相千委員이 5年据置 15年償還 債權者에 대한 얘기했었지요? 지금 債權者들이 모여서 자기들 債權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슨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런데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姜信玉委員 지금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證人 邊康雨 일체 모르고 있습니다.

○姜信玉委員 그것은 결국 지금 東亞建設에서 引受하기 前에 결정된 것입니까?

○證人 邊康雨 그렇다고 봅니다.

○姜信玉委員 그 당시에 共榮土建이 제일 어려운 시기에 그 당시로서는 債權者들이 할 수 없이 5年据置 15年償還 이런 條件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決定한 것입니까?

○證人 邊康雨 예. 그렇다고 봅니다.

○姜信玉委員 그 다음에 만약에 證人이 拘束이 안 되었다더라면 共榮土建이 不渡가 안 났다 그런 말했지요.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姜信玉委員 張玲子도 그렇습니까?

○證人 邊康雨 張玲子 李哲熙도 한가지로 같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拘束이 안 되었으면 資金을 충분히 動員할 수 있다고 봅니다.

○姜信玉委員 아니 어떻게 動員합니까? 지금 共榮土建과 같은 다른 會社의 어음을 뺏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메꾸고 이런 식이 아닙니까?

○證人 邊康雨 거기까지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지금 1년이 넘도록 해온 그 과정과 저희들의 새로운 資金計劃을 活用하면 절대 不渡가 날 수가 없습니다.

○姜信玉委員 證人은 지난번에 裁判도 쪽 받았고 張玲子 李哲熙하고 같은 法廷에 서서

거의 1년이상 裁判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張玲子하고 李哲熙가 어떤 방식으로 資金을 動員해 왔다 하는 것을 法廷에서 다 알았지 않습니까?

○證人 邊康雨 結果는 보고 알았습니다.

○姜信玉委員 결국 張玲子도 큰 소리를 치면서 내가 拘束만 안 되었으면 충분히 補償도 해줄 수 있고 會社도 살릴 수 있고 債權者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裁判하면서 본 경험으로 보서는 결국 共榮土建같은 다른 會社를 또 하나 좋은 資金條件으로 주는 것처럼 해서 어음을 또 몇 배를 받아내고 그것을 유통시킨다든지 또 資金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證人 邊康雨 結果도 그렇습니다. 檢察에서 그 사람들 財産을 압류한 게 그 당시 400餘億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本人들은 몇千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인정 못하더라도 적어도 1,000億 정도 있으리라는 것은 추측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 대로 새로운 海外工事を 추진하였고 거의 契約段階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막을 수 있었다고 자신했습니다.

○姜信玉委員 證人! 共榮土建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裁判에 관여했던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張玲子하고 李哲熙가 資金을 動員하는 方式은 결국 正常人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우선 어음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만데가서 큰 投機를 해가지고 큰 것을 노리면서 계속 굴러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지 어느 時期에 가서 결국은 많은 會社에 被害를 줄 형태로 운영을 해온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證人 邊康雨 결과를 놓고보면 그렇습니다.

○姜信玉委員 그리고 證人이 자꾸 特殊資金 特殊資金하는데 特殊資金이라는 것이 具體的으로 무엇입니까?

○證人 邊康雨 조금前에도 說明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感을 잡기가 어려워서 特殊資金이 무엇을 가지고 말하느냐 하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具體的으로 說明할 수는 없고 特殊資金이라는 것을 알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邊社長이 자꾸 물으려고 그래요. 이래서 제가 特殊資金이 무슨 資金일까 여러가지로 생

각 안 해보았습니다.

○姜信玉委員 글썄요. 그것이 뭐예요?

○證人 邊康雨 一般에 알려지지 않고 特殊機關에서 활용하는 資金인지 아니면 무슨 資金인지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姜信玉委員 特殊機關에서 활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證人은 經營에 상당히 오랜동안 참여했던 사람이고 資金도 여러가지 資金을 많이 써보았을텐데 80年代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特殊資金이라고 쓰면서...

그러면 李哲熙가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證人 邊康雨 李哲熙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中央情報部 次長을 오래한 情報部 계통이고 더군다나 一般的으로 노출될 수 있는 社會身分이라든가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國會議員을 하였고 우리나라에서 豫備役將星을 하셨으니 이 세 가지 條件을 다 갖춘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이도 지긋하고 어디 할 일이 없어 건전한 企業에 가서 詐欺친다는 것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姜信玉委員 글썄.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알고 보니 결국 詐欺 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姜信玉委員 그렇지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속은 것 아닙니까?

○證人 邊康雨 속은 것입니다.

○姜信玉委員 속았는데 證人도 속아서 안 될 것을 속았다는 것이 우리 同僚委員 朴委員 얘기입니다.

어떻게 200萬원 빌리면서 7倍 소위 擔保라는 어음을 줍니까? 결국 流通이 될 것이고 그것이 돌아오면 우리가 不渡가 날텐데 어떻게 그런 擔保를 주면서 資金을 쓰느냐 그러니 속은 사람도 속을 수 없는 것을 속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證人 邊康雨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저는 분명히 잘못 했습니다. 정말 잘못하고 또 제가 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이 세상에 작고 크고 모든 詐欺나 속음이 결과를 놓고 보면 하찮은 것이

지만 그 과정상에는 委員님들께 설명할 만큼 제가 表現力도 부족합니다마는 그것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韓國企業인이 지닌 큰 問題點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姜信玉委員 그러면 張玲子가 李順子하고 관계가 어떻다 하는 것을 證人 알고 있었지요?

○證人 邊康雨 李圭光씨 妻弟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姜信玉委員 그러니까 金斗煥씨 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 것일...

○證人 邊康雨 관계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姜信玉委員 그것은 證人이 속는데 어떤 보탬을 했다고 생각해요?

○證人 邊康雨 속는데 보탬이 되는 것은 없었지요.

왜 그러나 하면 처음 李哲熙를 만났고 중간에 張玲子가 나타났으니까...

○姜信玉委員 李哲熙 夫人이 張玲子라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런 사람들이 더군다나 구멍가게도 아니고 큰 企業을 詐欺친다는 것은 그 결과가 지금도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姜信玉委員 아니 張玲子の 존재가 證人으로 하여금 더 많이 믿게 한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證人 邊康雨 믿음의 한 요인도 되었지요.

○姜信玉委員 張玲子 스스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證人 邊康雨 너무 잘 아는 것이니까 스스로 내가 누구다 그런 표현은 안 합니다.

○姜信玉委員 사과리에서 結婚式할 때 結婚式도 지금 지내놓고 보면 同居生活하다 結婚式했지요?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姜信玉委員 그것도 상당히 호화판으로 했지요?

○證人 邊康雨 예. 그런 기억 같습니다.

○姜信玉委員 證人은 그때 혼자만 부른단지 몇사람만 부르는 줄 알고 갔는데 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 그랬지요?

○證人 邊康雨 예. 처음에 30名만 초청한다고 꼭 와달라고 그랬는데 30名이 아니라

10명을 초대한다고 하더라도 마침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그래서 經理責任者만 보냈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당신 혼자 갔다 오시오 했더니 아 그래도 30명만 초대하는 데 안 가면 실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하고 거래를 해왔는데 내가 갈 필요가 있느냐 갈 생각도 없다 이랬는데 나중에 會社에 전화가 왔어요. 韓國에 내노라 하는 사람이 다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는데 社長님 예의가 아닙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갔더니 마침 禮式이 끝나고 李哲熙씨가 입구에서 손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잠깐...

○養信玉委員 그때 처음하는 結婚式으로 알고 갔습니까?

○證人 邊康雨 아니예요. 자기들이 結婚式을 못했기 때문에 살다가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 저런 것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안 믿을 수는 도저히... 제가 지금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養信玉委員 그러니까 金斗煥씨 하고 李順子 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고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李哲熙라는 사람은 前職 中央情報部 次長까지 하고 國會議員까지 하고 이런 소위 政治의인 배경때문에 더 속게 되었다는 것은 證人도 인정하는 것이지요?

○證人 邊康雨 政治의인 배경때문에 더 속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초기에는 張玲子가 李圭光씨의 妻弟라는 것을 물랐습니다. 나중 과정에서 그것을 알았는데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해온 결과라고 할까 한 1년간 잘 지켜 주었는데요. 그런 거래를 잘 지켜 주니까 또 그런 과정이 덤으로 믿음에 보충된 것도 사실입니다.

○養信玉委員 不渡날 때하고 結婚式하고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證人 邊康雨 4個月 입니다.

○養信玉委員 證人이 한참 속아 들어가서 被害가 커져 갈때 중간에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養信玉委員 그 후에 듣기에는 李順子도 왔

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養信玉委員 그 후에 新聞에도 났고 調査할 때 裁判할 때 다 나왔지 않습니까?

○證人 邊康雨 모르겠습니다. 나왔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養信玉委員 李圭光하고는 證人하고 압니까?

○證人 邊康雨 인사 없었습니다.

○養信玉委員 그 다음에 항간에서 張玲子가 李順子를 팔면서 자기 과시를 한다 또 그리고 돈 많은 것을 과시한다 이상하다 하는 이야기들은 소문들은 적은 없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런 소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養信玉委員 돈 빌려 주고 할 때 그 女子가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돌아 다니면서 나는 金斗煥이 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있고 또 이래가지고 자기 信用을 돈구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항간의 소문은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없었습니다. 間接的으로 자기가 은연중에 邊社長 돈 내가 가지고 온 돈인데 남을 실수하기 할 일이야 있겠습니까. 내가 뭐로 보나 실수하게는 안할테니까 事業이나 열심히 잘 하시오 하는 정도로 私席에서 있었지 張玲子의 이야기가...

○養信玉委員 그 다음에 證人은 그러면 그런 金融을 正常的으로 銀行측으로 부터 빌리는 것은 한도에 달한 것입니까?

○證人 邊康雨 지금이나 그 당시나 銀行 돈을 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희들이 이런 個人企業에서 돈을 빌렸겠습니까? 정말 銀行 돈 빌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養信玉委員 어려운데 마침 李哲熙가 나타나서 좋은 조건으로 그 사람은 결국은 좋은 企業을 도와주기 위해서 特殊資金을 쓴다고 했다면서요?

○證人 邊康雨 예. 그랬습니다.

○養信玉委員 장래에 유망한 企業이 있으면 내가 利子도 적게 받고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어 가지고 키울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證人 邊康雨 예. 그렇습니다.

○養信玉委員 그러면 證人의 社會的인 地位나

教育背景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權正達이 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證人 邊康雨 예. 친구입니다.

○姜信玉委員 그 다음 그 당시에 制度金融圈을 이용하는 데에도 權正達이 한테 부탁하면 조금은 편리하게 貸出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證人 邊康雨 그렇지요. 모르기는 하지만 다소 도움이 되겠지요.

○姜信玉委員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더군다나 李順子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고 李哲熙도 그런 前職을 가진 사람이고 裁判때도 나타났습니다는데는 대화産業이라는 데는 職員들이 대부분 中央情報部 職員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證人 邊康雨 예.

○姜信玉委員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權正達이 한테 저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나 믿을 수 있느냐 하고 물었다고 보는 것이 常識입니다.

○證人 邊康雨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었는데 거기에 권영백 전에 中央情報部局長을 하던 분이 나중에 우리 經理責任者가 갔다가 오더니 나를 아는 분이 한 분 있다고 해서 저도 그분을 만나 봤습니다. 이 사람이 事業을 어떻게 하는지 당신이 마침 아는 분이 거기 있다니 이상한 特殊資金을 쓴다는데 뭐 아는 것이 없느냐 그러니 자기도 비즈니스 협조는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르지만 잘 알아 가지고 협조를 하더니 그런 것은 신경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알려줄테니 하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姜信玉委員 권영백이한테 묻는 것은 난 잘 이해가 안되고 權正達이한테 어느정도인지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믿을 수 있는지 이런 돈을 써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돈은 어떤 돈인지 한번 물어볼 만한 관계인데 왜 안 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證人 邊康雨 그것은 저 사람이 간곡히 이資金에 대해서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또 1年 잘 지켰고 마침 공교롭

게도 권영백이와 저와 비교적 가까이 지냈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또 있으니 굳이 資金을...

企業은 외부 資金 쓰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거리는 것이 企業의 本能的인 생리입니다.

그래서 안 물어 보았지요.

○姜信玉委員 본능적인 생리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의심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邊社長님이 정직하시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常識人으로서 權正達이한테 안 물었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權正達이가 믿어도 돼 걱정마 이런 정도는 나왔기 때문에 계속 거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證人 邊康雨 의심을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姜信玉委員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권영백 그 사람 이 사건으로 安企部에서 맞고 해가지고 결국 죽은 것은 알고 있지요?

이 사건으로 調査받다가 그 後遺症으로 죽었다고 가족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지요?

○證人 邊康雨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姜信玉委員 그리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항간에서는 왜 터졌다고 新聞에 난지 아십니까? 民正黨 創黨基金으로 썼다 創黨基金을 만들려고 權正達이도 관계했고 張玲子도 관계했다 李哲熙도 그랬다 이렇게 해서 搜查가 진행된 것으로 항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證人 邊康雨 저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무리 民正黨이 어떤 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실한 企業의 어음빌려다가 私債市場에 놓아가지고 創黨資金 만들었다니...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말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姜信玉委員 그렇게 해서 靑瓦臺側에서는 李順子를 팔기 때문에 李順子의 名譽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엄한 搜查를 했고 결과적으로 張玲子라는 여자가 李哲熙하고 詐欺를 한 것이다 이런 것으로 사건이 결론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후에 權正達이는 事務總長을 그만두었는데 왜 그만 두었습니까?

○證人 邊康雨 輿論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야 제가 어떻게 압니까?

○姜信玉委員 그러니까 證人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의심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 말이오.

○證人 邊康雨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權正達씨한테 도움받은 것도 없고 또 도움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위치도 아니었습니까?

저희들 會社는 69년부터 海外에 나가서 70年代 중반에 들어서는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海外工事は 自體信用과 實績이 있으면 政府의 支援이나 權力의 介入없이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그 나라에서 주는 것이지 우리나라 政府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姜信玉委員 證人이 裁判받을 때는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대로 陳述될 분위기였습니까?

○證人 邊康雨 그 당시가 잘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망한 企業人으로서는 왜 어음을 찾아가지고 억울한 被害者에게 돌려 주지 못하고 檢察이 왜 이렇게 빨리 搜查를 매듭했느냐 하는 그 부분만 솔직히 위축돼어 가지고 이야기는 못 했습니다. 그 당시 拘束된 몸에서 여러가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는 말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姜信玉委員 그리고 아까 證人이 張玲子가 한 500億의 행방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의심나는 돈이 얼마입니까?

○證人 邊康雨 제가 볼 때 證券投資다 利子다 이런 손실로 많이 없어졌다 하는데 그것은 1年間 總 累計입니다. 累計로서 그렇게 없어졌지 저는 2個月間 없어진 것이 땅을 합하면 한 1,000億이 넘는데 물론 그것을 利子로 손해본 사람을 꾸어다 주었다라도 그 證據가 있을 것이고 빚을 갚았으면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할텐데 그 1년간 쓴 사용과 불과 2·3個月간에 없어진 돈을 상쇄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姜信玉委員 그것을 張玲子가 밝힐 수 있는 돈 아닙니까?

○證人 邊康雨 그렇지요.

○姜信玉委員 張玲子가 밝힐 수 있지 마치 搜查機關에서 張玲子가 밝힌 액수를 그대로 덮어 주기 위해서 행방이 분명치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證人 邊康雨 그 이야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못찾느냐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누구의 결론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 발표가 남들이 안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姜信玉委員 張玲子는 그 때 法廷에서 證券投資때문에 손해났다는 것 아닙니까? 張玲子 말에 의하면...

○證人 邊康雨 예. 그랬습니다.

○姜信玉委員 그런데 張玲子가 그 행방을 숨길 이유가 무엇이나 말입니다.

○證人 邊康雨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姜信玉委員 그러니 결국 그 돈이 民正黨 創黨基金쪽으로 갔든지 政治資金으로 갔든지 말 못할 곳에 李順子가 가져 갔든지 이런 것하고 관계없느냐 하는 것이 國民들의 의심입니다.

○證人 邊康雨 그 당시에는 그랬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말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姜信玉委員 그러니까 證人은 그런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까?

○證人 邊康雨 저는 그런 것으로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姜信玉委員 지금 추측 짐작은 어떻습니까?

○證人 邊康雨 추측을 할 수 있으면 그 당시에 추측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추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도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姜信玉委員 지금 이 판에 張玲子가 모든 것을 털어 놓는다 그래서 누가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결국 張玲子가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證人 邊康雨 本人이 어디 숨겨 놓았거나 누구를 주었거나 두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姜信玉委員 政治적인 것 같으면 뻔했다 하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요?

○證人 邊康雨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姜信玉委員 그럼 그 당시 證券市場도 活況이었기 때문에 손해날 것은 아니었지요?

○證人 邊康雨 그럼요. 그렇게만 해주었으면 저와 企業을 믿은 많은 선량한 市民들이 피

해가 적었을 것 아닙니까?

○姜信玉委員 하여튼 證人은 權正達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득을 못합니다.

친한데다가 그 당시 어려운 地下金融을 하면서 의심도 많이 가는 그런 표시를 하면서 자꾸 비밀로 해달라 그러고 特殊資金이란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證人이 아무리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證人 邊康雨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姜信玉委員 사건 후에 權正達은 만났습니까?

○證人 邊康雨 나와서 식사 한번 했습니다.

○姜信玉委員 그때 뭐라고 합니까?

○證人 邊康雨 그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姜信玉委員 그것 중요한 것인데...

○證人 邊康雨 姜委員님 저의 심정을 모르실 것입니다. 부모님한테도 그 會社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폭발할 지경이었습시다.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게 느껴서... 여기에도 그때 擔當理事가 있었습시다마는 報告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미쳐 버리거나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상당한 기간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잠을 못잤습시다. 이렇게 저의 정신적인 갈등이란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제 企業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참 성실히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企業이지만 오직 企業만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企業의 어음이 그렇게 市中에 돌아다녀도 저희들이 몰랐던 것은 그 만큼 國民들이 저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신하는 企業같으면 단 1億도 市中에서 유통이 안됩니다.

이렇게 쌓아 온 企業을 저렇게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니 저는 자식으로서 不孝요 또 企業人으로서 社會의 罪人이요. 그것을 어떻게 되었나 따지고 하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姜信玉委員 그 당시 權正達이가 소속해 있는 政黨 政府에서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소문에는 創黨基金으로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政治資金으로 들어갔다는 말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묻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證人 邊康雨 제가 나와서 전국 산천을 돌아 다니면서 마음을 달랬습시다마는 그것이 만나면 자꾸 폭발을 해서 많은 세월이 흘러야 안정이 된디다 물론 성격탓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姜委員님 말씀이 옳습시다마는 그 이야기는 그만큼 꺼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나 하고 헤어졌습시다.

그 뒤에 어느 시기에 만났으면 자연히 물론 물어 보고 하지만 작년까지도 제 감정이 정리가 안됩니다.

○姜信玉委員 좋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십시오.

○證人 邊康雨 거듭 부탁드립니다마는 法定管理過程에 이 社會의 經濟條件과 지금 여건은 많이 달라졌습시다.

그런 法定管理는 수시로 여건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東海生命도 그 당시 보다 10倍以上의 伸張을 했고 또 우리 經濟의 단위도 커졌으니 그 5年據置 15年償還의 被害者들을 재조정해서 하루라도 빨리 償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시다.

○姜信玉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崔洛道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邊康雨證人에 대한 證人訊問과 證言聽取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證人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午前會議를 마치겠습니다. 午後會議는 2時에 다시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31分 會議中止)

(14時11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基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午前會議에 이어서 不實企業整理關聯非理調查聽聞會를 계속 上程하여서 證人訊問順序에 따라 먼저 朱昌均證人에 대한 證人訊問과 證言聽取가 있겠습니다.

證人宣誓에 앞서서 宣誓의 취지를 알려드리

고 證人이 證言을 拒否할 수 있는 경우와 證人에 대한 處罰規定에 대하여 미리 證人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證人이 宣誓를 하는 이유는 證人으로부터 良心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證言하겠다는 誓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證人은 자기 또는 자기의 親族等 近親者가 刑事訴追 등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는 證言을 拒否할 수 있는 刑事訴訟法 第148條와 業務上 知得한 他人의 秘密에 관한 事項으로 證言을 拒否할 수 있는 刑事訴訟法 第14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宣誓 또는 證言을 拒否할 수 있습니다. 또한 證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宣誓 또는 證言을 拒否하거나 宣誓한 證人이 虛偽의 陳述을 한 때 그리고 證人이 證言함에 있어서 모욕적인 言行으로 國會의 權威를 훼손한 때에는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告發 處罰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朱昌均證人께서 나오셔서 宣誓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朱昌均

(證人宣誓)

證人席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證人께서 알고 나오셨는지마는 朱昌均 證人에 대한 當 特委의 聽聞會의 訊問趣旨는 日新製鋼 倒産經緯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事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證人訊問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民主黨의 金東圭委員長께서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圭委員長 統一民主黨의 金東圭委員長입니다.

오늘 日新製鋼의 前 社主 朱證人을 이렇게 만나 뵈고 訊問하게 된 本委員의 심정은 착잡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不渡가 나기 전까지는 財界에서 模範企業人으로 定評이 나 있던 분이고 또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李哲熙 張玲子事件에 말려들어 가지고 企業을 다 망가뜨렸는지 저 자신의 심스럽습니다.

먼저 李哲熙씨와 張玲子씨를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證人 朱昌均 81年2月頃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東圭委員長 李哲熙씨를 먼저 만났습니까 張玲子씨를 먼저 만났습니까?

○證人 朱昌均 李哲熙씨를 먼저 만났습니다.

○金東圭委員長 누구 紹介로 만났습니까?

○證人 朱昌均 한홍수씨라고 銀行長하던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서울綠地會라는 親睦會의 會員인데 하루는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鐵鋼工業이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基幹産業인데 資金도 있는 분이고 해서 이왕이면 그런 데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 의향이 어미냐 이렇게 말을 시작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金東圭委員長 그러니까 前 銀行長이 소개를 해서 만났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李哲熙씨를 만난 朱證人은 어떤 동기에서 그 양반과 私 債去來나 어음去來를 해도 좋다고 확신을 했습니까?

○證人 朱昌均 그 전까지는 저희는 일체 私 債를 쓰지 않았고 그것이 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資金事情이 급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침 융통해 준다니까 그것이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닌가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金東圭委員長 실제로 李·張어음詐欺事件으로 손실을 본 것이 얼마나 됩니까?

○證人 朱昌均 會社가 날아갔으니까 그 金額을 얼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不渡處理 당하고 회사가 날라갔고 모든 주주들 한테 피해를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金東圭委員長 證人이 經營하던 日新製鋼이 82年5月 倒産을 했는데 제가 81年度末의 財務現況을 조사해 보았더니 營業에서는 當該年度에 74億이라는 이익이 났는데 營業外費用이 좀 과다해서 다시 말해서 利子가 212億이 나가서 81年度에 150億의 결손이 난 것으로 財務諸表에 나와있는데 사실이지요?

○證人 朱昌均 예, 맞습니다.

○金東圭委員長 그런데 그 당시에 浦鐵도 그 당시에 需要不振과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營業利益은 발생했지만 소위 營業外費用過多로 인해가지고 그때 赤字要因을 示現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그 당시 적어도 일신제강이라면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鐵鋼工業

體인데 政府하고 얘기를 해서 적절한 金融調達을 朱證人께서 이루었다면 절대 倒産된 企業이 아니라고 本委員은 판단하는데 그때 당시에 政府에 대해서 그러한 金融支援 要請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했으며 반응이 전혀 없어서 이 詐欺事件에 말려든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證人 朱昌均 죄송합니다. 제 불미한 탓으로 銀行當局하고만 했는데 銀行當局에서는 문을 막아 놓고 그 이상 추진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고비를 넘길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제 質問하시는 말씀 가운데 상당히 분석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같은데요 그 전에 5년 동안 75년부터 79년까지는 負債比率이 한 380%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負債比率이 400%도 안된다는 것은 즉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가지 요소가 겹쳤지만 가장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중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석도관 아연도철판 컬러판 아주 國際적으로 모자라고 우리나라도 모자라서 그것을 建設이 다 끝나서 試運轉할 무렵입니다.

아시겠지만 鐵鋼工業은 거대한 裝備産業이고 建設은 한 5년 걸립니다. 그 5년 동안에 무사해야지 환경변화가 일으키면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운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하간 그 3·4년 동안 그세 I場에 대한 建設資金 利子를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부담하고 試運轉이 다 끝나고 이제부터 收益이 올라갈 무렵이었습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不渡處理가 안되고 계속했다면 아주 그냥 대단이 엄격이 좋았을 것이다 그런것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습시다.

○金東圭委員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도 그 당시에 어음詐欺事件에만 말려들지 않고 政府의 政策的 支援만 좀 받았으면 지금은 아마 黑字企業으로 大好況을 누렸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그런데 어음詐欺事件으로 인해서 不渡가 났을 당시만 해도 詐欺에 휘말린 것까지는 다른 證人한테도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묻지도 않지만 그 詐欺를 당하고 나서도 그 당시의 財務構造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과연 일신제강이 回生不能한 不實企業으로 전략을 했어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朱證人이 한번 몇 가지 숫자적인 예증을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證人 朱昌均 우선 숫자적으로 첫째는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저희는 평균 金利負擔을 營業外費用이라고 그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營業外費用이라는 것이 한 4% 5%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량한 편이었고요. 다만 건설이자 석도관 아연도철판 컬러판 중경판 등등을 꼭 國家的으로 필요해서 建設해서 그 費用을 다 물고 그러니까 生産을 안하고 3·4년 계속 營業外費用은 다 負擔을 하고 金利가 나가는 것도 그래서 그것이 회수직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는 그것 하나 하고 그러나 그것 아니라도 아시겠지만 80년에 金利가 24%로 올라갔습시다.

그리고 81년 80년 24% 18% 이렇게 되었는데 그 후에 이 日新事件이 날 때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서 具體的인 얘기를 안하는 것이 좋겠지만 某某自動車도 우리 보다 훨씬 巨額의 赤字가 200 몇 10億 이렇게 났는데 그래서 全體工業이 일단 다 깨지겠다 해서 8%로 낮추었습니다. 또는 10%... 그때 그 24%를 8%로 낮춘 것만 가지고도 당장 黑字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모저모로 봐도 다른 支援이 아니고 그냥 金利를 8%나 10%로 낮춘 것만 가지고도 黑字로 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利子負擔해서 建設한 그 I場이 또 黑字되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將來는 양양했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해나왔습니다.

○金東圭委員 또 하나는 어쨌든 政府에서 李·張事件의 여파로다가 不渡處理해가지고 會社를 不實로 만들었는데 그 후에 浦鐵이 出資한 東進製鋼이라는 데서 日新을 引受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불과 한 1年있으니까 正常化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政府當局에서 本委員의 생각은 그렇습시다. 저도 鐵鋼工業을 아는 사람이지만 이 朱證人이 李·張事件에 말려든 것이 전혀 故意性이 없고 일종의 사기당했다고 판단한다면 朱證人에게 어떤 조건을 붙여서 되돌려 주었으면 韓國鐵鋼工業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후에 수백億의 特惠를

주면서 東部「그룹」으로 넘어갔다 이것입니다. 東部「그룹」이라는 것은 鐵鋼工業에 경험이 전혀없는 데입니다. 그러면서 各種 疑惑事件을 빚어낸 데 대해서 朱證人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朱昌均 제가 이런 일이 만일에 있다면 누구도 企業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企業을 안하면 우리나라 經濟建設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金東奎委員 그래서 오늘 이 事件을 다루면서 수백億원의 特惠를 주면서 東部「그룹」에 引受한 내막을 몇 가지 제가 이 聽聞會에서 公開를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도 안되고 正常的인 創業主에게 돌려줘야 할 財産을 政治權力에 의해서 잘못 정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立證하고자 합니다.

浦鐵이 처음에 資本金을 50億 出資해서 東進製鋼을 設立했습니다. 그런데 그 資産을 82年12月末에 引受해가지고 84年8月6日 東部系列 三陟産業에 賣却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商工部長官이 琴震鎬長官이 여기에 介入해서 不正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은 金斗煥씨의 사전양해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事實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저는 얘기합니다.

浦鐵이 提出한 資料에 의하면 84年5月18日 琴震鎬商工部長官 主宰下에 浦鐵社長 고준식 東進社長 安秉華 商業銀行長 金相燦이 참석한 가운데 東進製鋼 賣却을 위한 民營化方案이라는 것이 수립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制限競爭入札로 東進製鋼을 賣却함에 있어서 賣却金額을 當初 投資金額인 浦鐵出資金 50億원과 그 동안에 支援資金利子인 32億6,600萬원을 合算한 82億6,600萬원으로 결정을 해서 이것을 賣却하도록 指示를 했습니다. 그 指示의 寫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東進製鋼民營化方案이라고 해서 83年5月18日 10時에 商工部長官室에서 會議錄이 作成돼서 이것이 示達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82億6,000萬원으로 決定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東進製鋼의 財務構造 狀態를 볼 것 같으면 83년에 税金내기 전의 利益이 100億 84년의 稅前利益이 85億원 굉장한 優良企業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에다가 營業權을 포함시킨다면 최소 300億원 이상에 달하

는 東國製鋼의 株式을 불과 82億6,000萬원의 價格적인 低價로 삼척산업에 인계시켰던 것입니다.

또 入札方法도 制限競爭入札을 했습니다. 그런데 內定價에 의한 落札者를 사전에 확정시켜 놓고 形式的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뭐냐 하면 投資企業이 自己資本 50%를 초과출자할 때는 出資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主去來銀行의 與信管理規定에 自己資本金 50%이상은 出資를 못한다는 規定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척산업은 自己資本金이 81億원입니다. 따라서 81億원짜리 會社가지고 資本金 82億짜리 東進製鋼을 도저히 與信管理規定에 위반되기 때문에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산업에 入札資格을 부여하기 위해서 東進製鋼 發行株式賣却公告에 84年7月14日입니다. 3-나項에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自己資本의 50% 超過出資를 금지하는 與信管理協定 第1項3號를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賣却公告를 가지고 主去來銀行에 與信管理規定을 배제시키면서까지 삼척산업에다가 入札權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참고로 같이 應札을 했거나 하려고 했던 會社의 狀態를 보면 그 당시 釜山「파이프」가 84年 기준으로 自己資本이 378億입니다. 강원산업이 599億입니다. 둘 다 鐵鋼産業體이거나 鐵鋼産業體를 갖고 있는 企業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삼척산업같이 鐵鋼業의 경험도 없고 自己資本이 모자라서 더 큰 資本金을 가진 東進製鋼을 引受할 수 없는 制限規定을 해제하면서까지 制限競爭入札을 실시했는데 入札結果가 어떻게 되었느냐……누구의 壓力인지 가장 유망한 釜山「파이프」는 應札을 하지 않았고 단지 강원산업만 들러리로 참석해서 應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척산업이 이 日新製鋼 다시 말하면 東進製鋼을 引受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政治權力과 결탁한 확실한 심증을 갖게 되는 것은 東進製鋼이 同 契約이 완성되는 時點인 同年 84年10월에 새세대심장재단에 30億을 냈습니다. 새마을성금 20億 그래가지고 50億원의 巨額寄附金을 育瓦量 政務第2秘書室에 기탁을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反對給付의 特惠要因이 있었다고 저는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結論으로 東部「그룹」이 東進製鋼 引受 特혜받는 과정에서 사전조작된 각본에 의해서 法 規定을 조작시켜 가면서 당시 商工部長官 琴震鎬씨가 金斗煥씨와 결탁해서 200億원 이상의 특혜를 주었고 앞서 말씀드린 50億 誠金외에도 상당한 政治資金이 거래되었다고 本委員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朱證人이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그 당시에 李·張事件이 朱證人뿐만 아니고 상당한 有數企業들이 資金은 아쉽고 한데 또 政府의 지원도 못따라 오니까 사기를 당해서 실혹 손해를 보았다고 치자 이것입니다.

그러나 日新製鋼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까도 證人이 陳述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사기사건은 충분히 건디고도 남을만한 財務構造를 갖고 있었다고 本委員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나라의 有力鐵鋼業體의 하나인 日新製鋼을 그런 식으로 不渡處理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잘못됐다. 또 그 후에 실혹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正常化되고 나면 前社主에게 인수시키면서 그 동안 企業人으로서 흠이 없는 朱證人에게 맡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法 規定까지 어겨가면서 制限競爭人札이라는 허울을 씌워가지고 그것도 商工部長官室에서 이렇게 關係官끼리 전부 모여가지고 東進製鋼 民營化方案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헐값으로 東部「그룹」이 이것을 인수시켰다는 것은 不實企業을 정리하면서 대표적인 不正의 非理의 표본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朱證人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朱昌均 동감입니다.

○金東圭委員 제 訊問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共和黨 崔戊龍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戊龍委員 新民主共和黨 崔戊龍委員입니다.

문제는 日新製鋼이 不實企業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었다는 사실인데 證人께서는 우선 日新製鋼이 사실상 不實企業으로 낙인을 찍힐만한 상태의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證人 朱昌均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崔戊龍委員 그렇다면 이 日新製鋼의 財務構造라고 할까 資金事情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

번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무릇 모든 企業이 충분한 資金가지고 운영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야만 좋겠습니까마는 대개 이렇게 잘못된 企業主들의 말을 빌리면 어느 企業이 자기 돈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잠꼬대처럼 말하고 있는데 證人께서는 물론 그런 측에 속하고 있는 企業人이 아니라고 本委員은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年度 6月쯤 政府의 支援金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朱昌均 銀行을 통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崔戊龍委員 그렇다면 이 企業도 政府의 支援金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200億씩이나 말이지요.

그러한 企業이었었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네요?

○證人 朱昌均 예.

○崔戊龍委員 그런데 30億 밖에 支援을 받지 못했더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朱昌均 예.

○崔戊龍委員 그래서 당시에는 職員俸給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의 불편한 모습이었었다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證人 朱昌均 79년까지는 괜찮았구요.

○崔戊龍委員 그런데 79年6월에 政府의 支援金을 요청한 사실을 볼 때 어찌 되었든 職員들의 俸給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의 궁색한 시절이 있었습니까 79年度에...

○證人 朱昌均 80年度아닌가 생각합니다.

○崔戊龍委員 年度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찌 되었든 이 企業體가 그러한 불편한 資金事情일 때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봅시다. 東亞日報에서 1982年5月12日字로 報道한 것을 보면 "25年 고목들이 비명에 가다" 이런 제목하에 日新도 묶여가지고 참 아쉬운 감정을 담은 記事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日新이 55年 設立후 착실한 성장을 거쳐 당시 國內市場 점유율이 25%에서 30%를 차지하고 있고 年產 140萬t으로 浦項製鐵 다음 규모의 屈指의 會社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外形上的 평가이

고 事實上 內容을 살펴보면 81年度에 賣出額이 1,548億이나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 「데이타」 맞습니까?

○證人 朱昌均 예. 대략 그렇습니다.

○崔戊龍委員 그렇다면 그때 赤字가 150億을 났다는 얘기지요?

○證人 朱昌均 예.

○崔戊龍委員 이러한 賣出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赤字는 150億을 기록했다 이것의 원인을 보면 國內의인 사정 보다는도 輸出面에 있어서 貿易戰에서 敗했다. 具體的으로 말씀드리면 美國市場을 중심으로 한 輸出戰에서 新日本製鐵과 「덤핑」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實收益을 올리지 못한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外形上으로는 이렇게 건전하게 資金事情이 좋은 모양으로 나타나 있지만 內的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本委員이 처음에 前提하듯이 이때만 하더라도 外形上으로는 그렇게 좋게 評價할 수 있는 傳統이 있는 企業體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속으로는 이러한 병을 앓고 있었다 이것은 證人께서 인정을 하십니까?

○證人 朱昌均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후에 끝나고 나와 보니까 그런 것이 일부 記事가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企業家라는 것이 한 두번도 아니고 缺損輸出을 하지 않습니다. 미끼금 처음에 市場을 뚫고 들어갈 때 한 번정도 「샘플」로 할지는 모르지만 계속 赤字輸出은 하는 企業이 없습니다. 또 될 수도 없구요. 다만 야까 말씀한 대로 81년에 1,580億 이제 말씀한 정확한 販賣額인데 그때까지 4·5年 전에 저희는 企業合理化 5次計劃이라고 생각하는데 4·5年 걸려서 工場 계속 建設을 해서 石膏板工場 그것이 外貨가 1,000萬弗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아연도철판 이것도 1,000萬弗 이상이고 「컬러」판工場이라든지 중정工場 등등을 건설해서 그 建設費用을 다 負擔을 할 때고 그런데 81年度에 政府가 갑자기 24%로 金利를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150億원이라는 金額이 나왔지만 이제 말씀한 대로 그것이 만일에 그 후에 82年 事態가 난 후에 8% 내지 10%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거의 15% 20%가 됩니다. 당장 그것만 가치고도 金利는 「카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經營을 잘 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輸出을 缺損輸出을 했다는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崔戊龍委員 알겠습니다. 本委員의 이러한 質問이 결코 證人의 企業體가 不實企業이라는 것을 規定짓기 위한 訊問이 아니라는 것만 다시 한 번 믿어 주십시오.

檢察의 발표에 의하면 發行어음額이 509億이라고 했습니다. 이 數字가 맞습니까?

○證人 朱昌均 예.

○崔戊龍委員 혹시 249億이 아닙니까?

○證人 朱昌均 아닙니다.

○崔戊龍委員 그러면 檢察의 발표가 맞습니까?

○證人 朱昌均 예.

○崔戊龍委員 그러면 實債務額은 157億 맞습니까?

○證人 朱昌均 예.

○崔戊龍委員 그러면 당시의 銀行發表에 의하면 金融機關借入이 2,021億 야까 檢察에서 발표한 어음額 509億이라는 것이 李哲熙 張玲子夫婦를 통한 문제의 어음입니까?

○證人 朱昌均 檢察側에서 발표한 數字가 509億입니다.

○崔戊龍委員 어쨌든 未拂金 161億 合計 負債總額이 2,691億 그런데 이것이 擔保로 확보된 것이 857億 밖에 안되어 있고 擔保不足이 1,843億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評價가 맞는 것입니까?

○證人 朱昌均 도대체 저도 그 후에 調査한 것을 보고 터무니 없는 數字인데 죄송합니다. 저희는 정확히 公認會計士가 決算을 하고 政府의 國稅廳이 인정한 그것이 맞는 것인데 왜 저러한... 저희는 借入金을 商業銀行에서 182億하고 外換銀行에서 나머지하고 780億밖에 借入金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2,800億 이렇게 불어있는 것으로 났는데 왜 그런 것이 新聞에 났는지 저 자신이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터무니 없는 이야기로...

○崔戊龍委員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檢察에서 발표한 數字입니다. 그리고 檢察에서 본 日新製鐵의 財務構造라고 할까요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證人께서 이러한 터무니 없는 전

히 근거도 없는 數字가 作成이 되어 가지고 세상에 報道가 되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不實도 아닌 企業을 不實로 몰아치고 있는 그러한 意圖的인 어떠한 행동이 이것이 檢察에서 조작된 것도 아닐 것이고 이 문제가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캐보자는 것이 우리들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證人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日新製鋼의 不渡라는 것은 不渡를 내지 않았어도 되는데 不渡가 났다 이러한 이야기지요? 말하자면 黑字不渡라는 이야기입니까?

○證人 朱昌均 예.

○崔戊龍委員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간단하게 짚어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證人 朱昌均 저도 배경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돌아가는 이야기야 社會 風문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소한도 이제 그 숫자들이 실지 銀行에서 借入金이 780億밖에 없는데 어떻게 2,000 얼마 있다고 하는 식으로 報道가 나간다는가 이제 509億이라는 것이 신문에 檢察에서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2年5月12日날짜군요. 그 쪽에서 우리가 발표하기 전에 왜 당사자한테 확인을 안 했는지 의심스럽다 저희한테는 확인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쪽 말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후에 해명을 했는데 쓴 금액은 157億인데 나머지는 어음이라는 것이 3個月마다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40億을 제하지 않았구요. 또 하나는 擔保物을 우리가 설정했기 때문에 擔保物을 받고서 어음 쓴 것 제해야 되고 등등해서 초과분이 92億인데 이것을 352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해명을 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결국 제가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崔戊龍委員 지금 證人께서 하시는 證言은 기록이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訊問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지요. 당시 李哲熙 張玲子夫婦事件에 연루된 회사가 6個會社였는데 유독 日新製鋼만 不渡處理解體 賣却되었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朱昌均 그것은 제가 모르겠구요. 實債務額도 日新製鋼이 세번째로 적었습니다. 또 發行額도 적었구요.

○崔戊龍委員 좋습니다. 張玲子 李哲熙夫婦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 등을 한 가지씩 지금 訊問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日新製鋼의 부도로 인해서... 日新製鋼의 방계회사가 많지요? 또 그 회사들과 거래하고 있는 代理店이라든지 이렇게 연계된 회사들이 십여個 이상된다고 봅시다마는 連鎖不渡를 내고 말았어요. 그러면 全從業員數만 하더라도 2萬餘名이 넘는데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아서 法定管理라도 해서 群小株主 및 從業員들이라도 구제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解體를 강행한 것은 이 日新製鋼 企業自體가 전혀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證人이나 저나 함께 무엇인가 權力層의 개입에 의한 의도적인 解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證人께서는 어느 쪽이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朱昌均 높은 데서 壓力을 가해서 不渡를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崔戊龍委員 本委員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證人 朱昌均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裁判過程에서 그 당시의 銀行長도 日新製鋼은 不渡날 줄 몰랐다 또 銀行幹部들도 不渡날 것으로 생각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個銀行長會議에서 지원한 業體로 들어있기 때문에 몰랐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銀行이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銀行보다 더 위에서 했을 可能性이 많지 않은가 저는 그런 感을 가지고 있습니다.

○崔戊龍委員 예. 좋습니다. 그래서 不渡이후에 항간에서도 高位層姻戚이 引受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社會的 物議가 있자 商業銀行이 競賣에 참가 單獨落札했으며 82年10月26日 浦項製鐵이 賣却을 했습니다. 이 賣却은 굉장히 좋은 條件이었습니다만 결국 거기에 그치지 않고 84年7月31日 금기야는 三陟產業에 讓渡되었습니다.

三陟產業이라고 하면 會長이 金俊起씨인데 그 후 東部製鋼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또 東部 그룹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三陟產業이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東部 그룹

으로 落札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浦項製鐵에서 東部「그룹」에 讓渡되기 전에 金斗煥前大統領의 처남인 李昌錫씨가 引受實査팀이 되어서 實査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그 점을 알고 있습니까?

○證人 朱昌均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崔戊龍委員 李昌錫씨하고 金俊起씨 사이를 아십니까?

○證人 朱昌均 제가 구속을 당하고 다 처리한 다음에 내놓아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崔戊龍委員 다시 말하면 李昌錫씨의 영향으로 이것이 東部「그룹」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추측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東部「그룹」이 日新製鋼을 引受받고 난 다음에 새세대心臟財團에 30億 새마을鐵金 20億 도합 50億이라는 막대한 기부금을 냈다는 것과 日新製鋼의 不渡賣却引受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朱昌均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崔戊龍委員 예. 좋습니다. 1982年5月12日 某日刊紙의 記事에 의하면 아까 證人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당시 商業銀行長이 이 日新製鋼이 不渡가 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 不渡가 안났으면 수표가 결제되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조작된 不渡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企業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검은 손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앞에 아무리 經營經綸이 높고지고 어떠한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지요?

○證人 朱昌均 예.

○崔戊龍委員 그래서 그러한 각본들이 日新製鋼에 칠새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각본들도 사실은 사전에 포석이 된 造作이었다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마는 證人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朱昌均 예.

○崔戊龍委員 그렇다면 문제의 李哲熙 張玲子夫婦를 私債놀이를 한 분이라고 보아야겠지요?

○證人 朱昌均 私債도 놓고 뭐... 예. 그렇습니다.

○崔戊龍委員 이 私債놀이라는 것은 원래 큰 손이 있지요? 자기 돈가지고 하지 않았지요?

때문에 去來하면서 證人께서 어음발행을 債務額 액면 그대로 발행했습니까?

○證人 朱昌均 조금 초과했습니다.

○崔戊龍委員 조금 초과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證人 朱昌均 그 때는 그 쪽이 거짓말했는지 약속을 안지켰는지 저는 157億을 쓰고 超過發行이 92億이 있습니다.

그 92億은 자기가 資金을 돌리는데 資金出處根據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어음이 필요하다 저희한테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절대 교환엔 돌리지 않고 擔保用으로만 쓰겠다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崔戊龍委員 이것이 張玲子씨가 사용하고 있는 특유한 기법이거든요. 어느 業體에서나 어떤 業體에서는 100億을 갓다주고 100億의 證書를 받으면 되는데 곱되는 200億도 받고 300億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去來가 어떻게 되어서 成立되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행각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볼 적에 이것은 뭔가 張玲子 李哲熙夫婦가 자기네들의 生計를 위한 營業的 行爲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私債놀이를 하든 뭐를 하든 그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떠한 커다란 돈을 모아가고 잘 살아보겠다는 혼란 그러한 희망에서가 아니라는 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는 李哲熙씨 가서 만나니까 사실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골동품만 하더라도 자기 말로는 時價 무슨 500億 가까운 골동품을 所藏하고 있다 라는 한가지 말로 비추어 보더라도 張玲子하고 李哲熙夫婦가 이렇게 극악스럽게 사기꾼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도 될 수 있는 生活은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더군다나 證人의 경력을 보자면 25年間이나 企業經營 經綸이 계시고 또 돌다리도 두들기고 넘어가는 그런 차분하신 아주 빈틈이 없는 분이라고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張玲子 李哲熙夫婦에게 사실상 속아넘어간 것입니까? 사실 證人이 사기를 당한 것입니까?

○證人 朱昌均 처음에는 저는 아주 간단히 생각했는데요...

○崔戊龍委員 그렇다면 證人! 만약에 張玲子 李哲熙夫婦가 어떠한 詐欺罪로 덤태기 쏘여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계속되었다라면 日新製鋼은 그 덕분에 살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李哲熙씨가 어떠한 事故가 나지 않았더라면 日新製鋼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믿지요?

○證人 朱昌均 물론이고요.

물지 않는 말씀을 제가 안하려고 했습니다. 마는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쓴 외에 92億을 더 발행했지만 일흔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여기서 철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석달마다 改書를 하는데 어음이기 때문에 어음은 기한지나 가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改書 안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차 줄어들어 가서 저희는 92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崔戊龍委員 물론 그렇지요. 어디까지나 끝까지 李哲熙 張玲子의 힘에 의해서 경영되는 日新製鋼이 되어서는 물론 안되지요. 그러나 張玲子 李哲熙事件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日新製鋼은 이러한 화를 입었을까요? 이것이 터지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입습니까? 인계된 사건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張玲子 李哲熙事件과 日新製鋼이 不實企業으로 낙인 찍힌 그것이 인계된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그렇게 인계해서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證人 朱昌均 저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崔戊龍委員 글세 어제 되었는데 그렇게 連鎖作用의 일이라고 생각되지지요?

○證人 朱昌均 예.

○崔戊龍委員 그래서 張玲子 李哲熙夫婦의 詐欺罪라는 것은 이것 역시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李哲熙씨나 張玲子씨는 어떤 큰 손의 심부름하는 第一線에 서서 큰 企業人들과 도저히 정말 믿을 수 있는 그야말로 반석같은 그런 企業人들과 私債去來를 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기반위에서 움직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李哲熙 張玲子 두 사람

이 한꺼번에 어떤 재물양이 됨으로써 그와 去來했던 業體들이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지요?

○證人 朱昌均 예.

○崔戊龍委員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張玲子 李哲熙씨를 상대했을 때 證人께서는 李哲熙씨를 會長까지 추대한 사실이 있었다면서요.

○證人 朱昌均 그것 없습니다.

○崔戊龍委員 없습니까?

○證人 朱昌均 저희가 公開會社이기 때문에 公開會社중에서 初期 公開會社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면 理事會에 걸어서 議決을 해야 되고 또 그 전에 株主總會때 理事로 選任이 되어야 됩니다. 不可能합니다. 法律的으로도 不可能하고 있을 수도 없구요.

○崔戊龍委員 本委員이 그렇게 물은 이유는 그만큼 李哲熙씨를 신임할 수가 있었다 그것이 이지요. 證人께서 둘다라도 두들기고 넘어가는 차분한 틀림없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李哲熙씨를 믿을 수 있었던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李哲熙나 張玲子夫婦를 누가 詐欺를 저지르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행각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진 額數가 7,000 몇 백億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까마는 그보다 더 큰 돈을 만졌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으며 그러한 결과가 결국은 詐欺를 친 행각에서 그쳤다는 사실은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큰 손이 있다 그 큰 손이 누구냐 아까 證人께서는 높은 곳에 있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共非理는 光州特選은 모든 문제를 추궁해서 볼 때 이것이 金世一家가 결국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들이 변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全斗煥前大統領 出席要求해도 안 나오십니다. 李順子女史 出席을 요구해도 안 나오십니다. 本特委가 두번 세번씩 아마 요청을 했는데도 사정에 의해서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서 出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합쳐보았을 때 귀결되는 점은 반드시 그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서 그 분들의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여러 기관 심지어는 政治 全體적인 분위

기까지 흐리게 되고 별의별 사태가 다 벌어지게 되었는데 證人께서 마지막으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證人 朱昌均 먼저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鐵鋼工業을 자기 職業이라고 생각지 않고 天職이라고 생각했고 또 鐵鋼工業을 일으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그렇게 극구 믿고 거의 50年 가까이 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실은 42년에 日本製鐵所에 入社를 했습니다. 入社해 들어가 보니까 그 製鐵所가 軍艦 戰艦 이런 것을 만드는 軍需工業인데 제가 韓國사람 技師 1號로 채용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신바짝 차려서 일 잘해야 2號 3號 韓國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보통 노력의... 職場들어가니까 월급도 받고 좀 편히 지낼 수가 있는데 學校때는 공부를 했으니까 그보다 그 압력 때문에 내가 잘해서 시범을 보여야 韓國사람이 또 2號 3號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8·15解放이 되었고 8·15解放이 되니까 幸인지 不幸인지 교육받고 훈련받은 鐵鋼工業은 제가 1號이기 때문에 祖國이 건설하는데 내가하던 鐵鋼工業은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명감을 느꼈고 5年가고 10年가고 15年가면 그것이 本職이 됩니다. 돈도 문제가 아니고 뭔가 鐵鋼工業 일으키자 그래서 했는데 그 동안에 1·4後退때 釜山서 鐵鋼工業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飛行機 떨어진 것 古鐵이 많아서 그것을 녹여서 처음 제가 주전자를 韓國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原價의 한 20倍 30倍 받아도 되어요. 密輸品은 50倍 100倍니까 質은 물론 訓練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日本製에는 못미치지만...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실지하다 보니까 鐵鋼工業이 장비가 크게 들고 資本도 많이 들고 建設하면 4·5年 오래 걸리고 그런데다 技術者가 없고 經驗者도 없고 政府는 政府대로 經驗이 없고 景氣가 소위 3粉事件이 날 정도로 팽팽도는데 이 鐵鋼은 참 우둔하고 고생이 많았지만 내가 이것 天職인데 本職인데 하는 생각가지고 언제나 일선에서 뛰고 암만해도 제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從業員들한테 부탁하고 손잡고 하다

보니까 日曜日날 와달라고 그러고 내가 日曜日날 만나갈 수가 없어서 日曜日날 나가고 하다보니까 50 몇 年度까지는 日曜日날도 제가 쉬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또 樂입니다.

왜 나가느냐 하면 日曜日날 特勤해 달라고 부탁했으니까 위로를 해줘야지 하다보니까 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한 대로 170萬t 정도의 능력이 되었고 또 이것이 보람이고 또 이렇게 한 것이 세흔자 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從業員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崔戊龍委員 간단하게 마무리지어 주십시오.

○證人 朱昌均 예. 그렇게 해서 제 할 도리는 다 노력은 했는데 마지막 不名譽除隊를 하게 되다니 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픈 점인데 그러나 제 不名譽除隊는 그것은 또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交通事故 당했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대답을 합니다. 애매한 것 같지만 그래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까 崔委員님 말씀대로 저희 株主가 78%가 中小株主들입니다. 저는 누가 株主인지도 모릅니다. 하도 企業內容도 좋고 日新製鋼은 第1次 5個年計劃부터 호응해서 한 政策企業이고 굉장히 將來도 좋고 그래서 市中에서 샀던 분들의 株가 지금 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罪人이 된 셈입니다. 얼마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 輸送業者 혹은 納品業者가 돈 못받은 사람 있습니다. 8·9億인가라고 하는데 제가 완전히 다 없어졌으니 다행이지 뭐라도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連帶保證해던 關係者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罪人같은 심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崔戊龍委員 어떠한 그러한 恨이지요. 證人 뿐만 아니라 證人을 비롯해서 企業이 무너지는 바람에 발생한 가지가지의 後遺症 이런 것들은 사실 企業人의 道義의인 책임이나 人間的인 책임 면치 못하겠다는 말씀은 물론 하고 싶으신 말씀중에 하나이겠습니까마는 보다더 뭔가 그러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의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닌 채 한평생 지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지않은 將來에 그러한 의혹이 풀려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는 밝고 명랑하고 건강한 社會

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청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물론 하고 싶으시겠지요?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 함께 기다리면서 오늘 證人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梁性佑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性佑委員 그 동안 다른 委員님들과 質疑하시고 答辯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것을 피하겠습니다.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두운 지난 날의 金斗煥 獨裁時代 다시 말하면 不實企業整理가 있었습니다.

5共特委 委員의 한 사람으로 끼어서 일해 오는 동안의 저의 느낌 또는 저의 인식은 不實企業이라고 해서 會社를 공중 분해한 加害者들에게도 엄청난 큰 問題點이 있었다... 그러나 반면에 그 不實企業이라고 지목된 企業도 사실상 問題點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리에는 加害性 證人들이 出席하지 않았습니다. 즉 被害性 證人들만 이번 聽聞會에 出席을 합니다. 따라서 質疑하는 委員들이나 答辯하는 證人들이 책임있는 質疑와 答辯이 있어야 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는 절실히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금 朱證人께서는 제가 묻는 몇 가지 간단한 質問에 책임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께서는 企業을 公開하기 시작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973년부터 企業公開를 했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朱昌均 예. 맞습니다.

○梁性佑委員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대개의 企業이 企業公開를 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證人께서는 일찍부터 企業公開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것이 특히 지금 聽聞會를 앞두고 PR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證人 朱昌均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政府가 初期에 우량企業을 선택을 해서 公開를 하지 않으면 融資도 제한한다 하는 정도로 압력을 가해 왔거든요. 또 하나는

제 포부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했지만 外國과 경쟁해서 지지 않는 鐵鋼工場을 建設한다는 것이 포부입니다. 그러면 韓國에서 제일 크다는 얘기가 되는데 큰 企業은 이미 제 것이 아닙니다.

公開 전에는 제가 95%이고 나머지 2·3% 친구를 어울리고 싶어서 했는데 公開후 23%로 줄어 나갔습니다. 企業이 커지면 大企業은 社內에서 훈련받은 유능한 사람에게 인계하는 것이 최고의 상태입니다.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小企業은 中小企業이 주인이 되어서 하고 커지면 이미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將來를 내다보고 그런 社風을 만들고자 생각했기 때문에 지체없이 호응해서 했습니다.

○梁性佑委員 또 하나 물겠습니다.

不渡事態를 맞을 당시에 貴會社의 發行株式數는 얼마이었습니까?

○證人 朱昌均 1,200萬株이었습니다.

○梁性佑委員 그리고 證人과 또는 기타 群小株主의 資本率은 도대체 얼마나 됐습니까?

○證人 朱昌均 제가 한 23%이고 나머지 77%는 群小株主입니다.

○梁性佑委員 당시 日新에서 生産하던 製品의 市場性과 또는 技術水準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證人 朱昌均 좋다는 말씀을 하려니까 제 자랑같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냉간압연강판은 英國 BSC가 國營鐵鋼公社인데 BSC보다 정확도가 10年 앞서 있었고 美國의 US 스틸보다는 6·7年 앞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日本製鐵보다는 한 2年 뒤떨어진 상태 그래서 美國가서 무슨 소리냐하면 철판은 두께 정확도입니다.

지금 大量生産하기 때문에 「프레스」나 뭐니 하는데 두께가 정확해야 되는데 BSC「스틸」이 두께를 보장하려면 5.5%만큼 더 두껍게 밀지 않으면 不合格이 납니다.

US 스틸이 4.5 英國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3.5 US 스틸이 3.5 하려면 사람도 再訓練하고 設備도 우리에게 따라와야 합니다.

그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우리 製品은 US 스틸 쓰던 사람한테 가면 됩니다.

같은 한 t이라도 2%가 길이가 더 나오니 다. 더 나오고 정확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 또 「파이프」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만네스망」하면 教科書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 「만네스망」의 誤差는 우리는 規格의 4분의 1 「라운드네스」라고 해서 規格 誤差가 規格의 4분의 1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것이 供給되는 한 美國 西部에는 「오일 컨트리 튜브」인데 우리 것이 있는 한 「만네스망」이 못 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오랜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技術에는 자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장래 전망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으니까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 不實企業을 했다는데 무슨 소리인지 제가 모를 것이 82年 당시 우리나라의 鐵鋼生産이 약 1,000萬t입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2·300萬t을 輸入했습니다.

그것을 政府豫測은 2,500萬t 정도 까지는 需要가 늘어간다 그렇게 豫測했습니다.

1,000萬t 生産할 때 우리 日新製鋼이 t數 들어갔는데 현재 벌써 2,000萬t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需要가 급니다.

그때 日新事故날 때 過剩増設이다 하는 것이 상당히 弘報가 되었는데 누가 그것을 흘려서 弘報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増設하고 금방 모자라서 그 후에 많은 増設을 더 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그때에 선구적으로 設備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었다 생각하고 저도 그것은...

○梁性佑委員 좋습니다.

당시에 年間 賣出額과 輸出額은 어느 정도였지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지요.

○證人 朱昌均 그 전전해인가 1億弗 돌파해서 1億弗 탑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梁性佑委員 企業解體 과정에 있어서 問題點한두 가지 제가 의심나는 것을 묻겠습니다.

당시 主去來銀行이 어디였지요?

○證人 朱昌均 韓國商業銀行이었습니다.

○梁性佑委員 그런데 解體過程에서 法院에 商業銀行이 任意競賣申請을 했다는 말을 앞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商業銀行이 또 落札을 받았지요?

○證人 朱昌均 예.

○梁性佑委員 그리고 商業銀行이 主人이 되었지요?

○證人 朱昌均 예.

○梁性佑委員 그리고 證人과 社長 이 분들이 拘束되었지요?

○證人 朱昌均 예.

○梁性佑委員 당시에 꼭 商業銀行이 法院에 任意競賣申請을 해야만 商業銀行으로서는 債權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었던 것입니까?

○證人 朱昌均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그 당시 資本金 拂入資本이 60億이고 利益金이 70億 있었고 資本金 까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이 會社가 1952年 창설해서 꼭 나오던 것입니다. 굉장히 潛在力이 많이 있습니다. 손해볼 까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가운데 이제 돈 부족한 문제야입니까? 資金이 부족하면 너 언제까지 최소한도 여유를 줄테니 수습해라 그래야 수습할 時間도 있는데 반대로 13日 사람부터 連行해 가둬놓고 3日만인 16日 不渡處理해서 정식 拘束했어요. 나와보니까 그날로 法院에 競賣申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6月28日 商業銀行이 또 自己落札하고... 自己落札하는 것은 좋은데 日新製鋼으로서 하면은 강제로 費用을 많이 지출하게 됩니다.

우선 賣渡하니까 賣渡讓渡稅 물어야돼 뭐 물어야돼 뭐 별것 다 지불해가지고 몇 百億을 負擔시키고 그런것이 다 끝난 다음에 세가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다 끝나가지고 書類도 아무것도 없었고 이런 과정을 볼 때 이것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사태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梁性佑委員 會社의 實査評價는 누가 했습니까? 商業銀行이 했지요?

○證人 朱昌均 보니까 實査도 할 時間이 없지요.

○梁性佑委員 實査를 안했습니까?

○證人 朱昌均 몇해 전에... 企業은 다 鑑定을 합니다. 實査를 안하고 鑑定한 그것을 아마 이용한 것 같습니다.

○梁性佑委員 鑑定도 당시의 時價以下로 평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朱昌均 예.

○梁性佑委員 그것은 일단 억울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짚는 것은 결국 이렇게 會社를 時價以下로 평가 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證人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되었고 울분이 쌓인 억울한 일이 되겠지만 公開企業에 投資해 온 群小株主 이 株主들에게 엄청난 不利益을 가져왔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짚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證人 朱昌均 사실은 저야 鐵鋼工場 建設을 쫓았을 때 제가 생각하던 수준보다 훨씬 많이 建設했으니까 후회했습니다.

그게 다 우리나라 國力이기 때문에 누가 경영을 하는 누구한테 所屬되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또 나이도 제가 明年에 七旬이니까 이제 停年退職할 때도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株主는 제가 아니고 市中에서 公募한 株主입니다. 財産이 있는데 왜 株主가 희생이 되어야 되느냐 왜 제가 罪人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잊을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기회가 있으면 그 억울함을 호소라도 해야 되겠고 또 이 호소가 제가 억울한 것을 解明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解決이 안된다면 우리나라 장래를 위해서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데 도움이 이나 된다면 하는 그런 착잡한 생각입니다.

○梁性佑委員 그러니까 證人의 會社를 自己落札을 한 商業銀行長의 입장에서는 사실 日新을 싸구려로 인수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浦鐵에 넘긴 것 아니예요. 浦鐵에 넘기는 과정에서 浦鐵에 金融特惠를 주었다 그것은 엄청난 金融特惠를 주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아주 쉽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證人 朱昌均 간단히 결론적인 말씀만 하겠습니다.

저희 工場이 서울 仁川 釜山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합쳐서 工場도 약 20萬坪 건물은 鐵骨建物 5萬坪입니다. 이 鐵骨建物은 아시겠지만 최소한도 4層 또는 6層높이입니다.

그런데 20萬坪의 土地만 해도 時價로는 1,000

億이 넘습니다. 그런데 工場土地 建物 機械設備... 機械設備는 아까 말씀한 대로 世界的인 水準에 가있는 設備들이 많이... 소위 外國에서도 부러워하는 新銳 鐵鋼設備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800 얼마에 隨意契約을 하고 800 얼마를 또 5年 無利子로 据置하고 그래 15年 分割償還인데 그 率도 참 낮추어 하고 했기 때문에 이 代金を 20年 住宅으로 처리한다 하면 3,088億 時勢를 우리 보고 있는데 한 200億 정도인 것이니까 10분의 1도 안되는 값으로 하고 우리 株主는 손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들어가 있는 동안에 밖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株主들한테 송구스러운 일이고 또 原料製品이 存在한 6萬t 있었는데 그 帳簿價格이 한 108億쯤 되는 것을 72億원에 銀行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代金은 바로 그 전에 우리가 現札處理한 것입니다. 浦項製鐵 材料도 있고 輸入品도 있고 代金은 5年 無利子 据置해서 5年 分割償還이니가 代金 안내고 200億 金利도 없이 現札調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資金部分은 資金은 50億을 拂入하고 現札調達は 金利없이 한 이백 몇 십億 調達하는 식으로 제가 배가 아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일부라도 우리 株主라도 損害 안보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생각할 때 저는 株主한테 罪人이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梁性佑委員 예.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뒤에 즉 84年頃에 東部 그룹이 다시 이 會社를 引受해 갔지요?

그런데 이것은 商業銀行이 浦鐵에 준 金融特惠를 東部 그룹이 그대로 안아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東部 그룹은 證人의 會社를 앉아서 그대로 차지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證人쪽의 주장은 그 동안 여기에 이제 5共和國의 權力的 核心 또 분명하게 말해서 요즘 百潭寺에 가 있는 金斗煥씨가 介入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왜냐 하면 제가 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요

구하는 것은 막연히 모든 문제를 다 또 한 두 사람에게 集中的으로 떠 넘기는 것도 또 책임이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 분명한 이야기가 있어야만 이 세상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 東部[그룹]으로 넘어가는 문제에 있어서의 全斗煥씨와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말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證人 朱昌均 예. 저도 그것이 그 자체가 의문인데 全斗煥씨가 이 事情을 事前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제가 느낍니다.

商業銀行이 東進製鋼에 特惠를 주었는데 그 東進製鋼은 오히려 利益金을 붙여서 그대로 다리 놓아서 東部製鋼으로 넘겨주었는데 東部製鋼은 東進製鋼과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 그 엄청난 特惠를 既存 公開株主까지 회생시키면서 옮긴 特惠를 이제 또 윤곽이 나오지만 주고 또 東部製鋼은 나타난 것만 해도 50億이나 되는 政治資金 내놓으라는 가를 볼 때 이제 말씀하는 그것도 저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梁性佑委員 확신한다 이 말씀이지요?

○證人 朱昌均 예.

○梁性佑委員 그리고 제가 지금 日新問題를 接近하면서 證人の 職員 몇 분을 만난 결과 모두 한결같이 李昌錫씨가 여기에 분명하게 介入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말씀하지지요.

아까 崔委員 質疑에서도 서로 論難이 됐지만 분명하게 듣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證人 朱昌均 그런 風聞은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이 자리에서 그런 論議가 나왔구요.

다만 저보고 증거를 대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梁性佑委員 그렇게 알고만 있다 그 말씀입니까?

○證人 朱昌均 예. 그런 힘이 작용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梁性佑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全斗煥씨라든가 특히 李昌錫씨가 물론 會社를 빼앗는 음모에 重點으로 개입되었다 하는 것은 둘째

치고 全斗煥씨가 이 會社를 빼앗아서 동부[그룹]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全斗煥씨에게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아무 이유없이 이런 일을 했을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부[그룹]이 證人の 日新을 할값으로 인수해 가는 댓가로 어떤 것을 요구를 했었을 것이 아니냐 그 어떤 것이 무엇이나 그것이 誠金이나... 政治資金 비슷한 誠金이나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해 세요.

○證人 朱昌均 具體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막으로 한 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 현상으로 봐서 그런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은 확신합니다.

○梁性佑委員 그러니까 政治資金의 수수가 있었다...

○證人 朱昌均 뭐 그 이상일지도 모르지요.

○梁性佑委員 그 이상도 있을 수 있었다...

○證人 朱昌均 예.

○梁性佑委員 예. 더 깊이 안묻겠습니다. 證人은 세상에 李·張事件에 휘말려서 會社의 해체 즉 企業의 해체를 당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企業의 해체를 당할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證人께서 참여 가지고 나오시고 會社가 남의 손에 넘어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證人과 가까운 친지들 그리고 또 韓國經營者總協會 그리고 심지어 全經聯 또 韓國鋼管協會 또 日新에 근무하는 全職員 從業員 이런 사람들이 모두 선처를 政府에 탄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證人 朱昌均 예.

○梁性佑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全斗煥씨는 이 선처에 전혀 응락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응락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선처를 요구했는데 응락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는 바를 또 그 동안 말씀하고 싶은 바를 말씀하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證人 朱昌均 아가 梁委員님 말씀대로 政治

資金 또는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梁性佑委員 政治資金 이외에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예. 제가 길게 質疑하지 않겠습니다. 할 말은 저도 많습니라마는 證人께서 제가 드리는 이 기회에 마지막으로...

○證人 朱昌均 단정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런 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梁性佑委員 마지막으로 證人께서 그 동안 恨 쌓인 세월을 많이 지냈을 것입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證人 朱昌均 아까도 말씀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와서 논의되는 차제를 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명예롭게 인생을 마치지 못하고 이런 자리에 나오게 되었을까 그런 것부터 반성합니다.

○梁性佑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金東周委員 訊問하세요.

○金東周委員 統一民主黨의 金東周委員입니다.

證人은 72年度부터 현충獎學財團을 운영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本委員이 調査한 바에 의하면 1년에 한 200名 정도의 中·高·大學生까지 獎學事業을 해 나왔습니까?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지금도 합니까?

○證人 朱昌均 지금도 계속합니다.

그런데 人員數는 대폭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金東周委員 돈이 없으니까 그랬겠지요.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總 얼마나 했습니까? 學生數가...

○證人 朱昌均 毎年 大學을 열名家랑 하고 高等學校 한 100名 그 다음에 教授級이 한 1·2億씩 했는데 財團에 日新製鋼株式을 주어서 株式配當 한 1億씩 들어가던 것인데 우선 그 資源이 많았고 등등으로 지금 별로 큰 收入이 없어서 크게 못합니다.

○金東周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社會事業으로서는 그 財團도 하고 또 韓國 보이 스카우트 總裁를 하셨지요?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그 다음에 大韓 럭비協會 會長을 하셨고 그렇습니까?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제가 日新製鋼 우리 朱昌均 會長의 여러가지 調査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요. 企業人으로서 良心的인 사람이고 個人慾心이 없었고 또 社會에서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는 技術者이면서도 經營人이다 저는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또 우리 同僚委員들이 많은 質問을 했습니 마는 本委員이 調査한 것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證人께서 우리 委員들의 質問에 조금 혼동을 하셨는지 故意的으로 위증을 하셨는지 거짓말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묻는 한이 있더라도 答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82年4月29日 張玲子 李哲熙夫婦가 檢察에 연행되고 그 이후에 그 調査에서 日新製鋼의 어음 거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실과적으로 證人을 5月13日 午前 11時경에 大檢中央搜查部에서 불러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그 때부터 감금시킨 상태에서 不渡를 냈지요? 그러니까 부도는 5月16日 나고 檢察에 좀 조사할게 있다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가서 그 때부터 3日間 감금상태에 있다가 16日 拘束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그런데 그 때 證人의 罪가 물론 不正手票團束法하고 그 다음에 賂物供與罪 거든요. 그 당시에 約束어음을 많이 끊어도 刑事責任은 일단 안 물으니까 그런데 當座手票는 商業銀行하고 浦項製鐵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돌렸지요 다른 一般 商去來에 끊어준 것이 아니고 銀行의 貸出받을 때 맡겨놓는 手票나 안그러면 浦項製鐵의 原資材를 사올 때 가져오는 아직 期日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부도를 냈지요?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그리고 하나 더 정말 이것은 事前에 計劃된 음모라고 하는 것이 5月16日 拘束을 당했는데 그날 부도가 났는데 當日附

로 競賣申請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계산상 안맞는 거예요 틀림없습니까?

○證人 朱昌均 예. 틀림없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렇게 되면 사전에 日新製鋼을 도산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던것 아닙니까?

銀行이 계산되는 대도... 부도가 나서 혹시 마감시간까지 막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이 日新製鋼의 부도는 計劃의으로 하나의 조작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지요?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同意합니까?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그 당시에 賂物供與罪에 있어서는 檢察公訴狀에 보면 商業銀行長 孔德鍾씨에게 1,000萬圓짜리 수표 다섯매를 賂物로 주었다 해서 拘束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搜查記錄을 철저히 보면 罪가 이것 억지로 꾸민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000萬圓짜리 保證手票를 다섯매를 주었으면 어느 銀行發行 넘버 몇번 이 수표의 액수가 나와야 되겠는데 그것이 없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이것이 虛偽事實이 아닙니까?

○證人 朱昌均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金東周委員 아니지요? 거기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보세요.

○證人 朱昌均 사실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이나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지만 이 商業銀行長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뭘 씌워야 될텐데 얘기를 안하니까 저는 그런 것 證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人生觀이 그렇습니다.

저도 안 나오니까 商業銀行長한테서 그것을 받아왔어요. 받아오는 것 다 좋다 條件附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언제나 좋다. 제 자신이 기억도 없고요. 이제 말씀대로 무슨 證據가...

우리 회사에 말단 직원까지 서류를 몇 트럭갓다 싣 다 조사했습니다. 물론 없지요.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후에 裁判過程을 보니까 商業銀行長 말씀하기를 그 당시에는 사모님도 拘束 직전 상태고 銀行職員 등등에 피해가 갈까봐 자기

혼자 책임지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다. 그리고 그 후에 취소를 했습니다. 裁判過程에 商業銀行長이... 그래 저도 본래가 이것 기억 없는거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그 당시에 商業銀行長 孔德鍾씨를 拘束을 하려니까 여러가지 그것이 없으니까 돈 5,000萬圓을 받았다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쪽에 虛偽事實을 자백을 받아왔기 때문에 證人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위험한 세상 이니까 그쪽에 바라는 대로 주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요? 준 사실이 없는데도...

○證人 朱昌均 條件附로요. 저쪽이 아니라고 그러면 나도 아니다...

○金東周委員 아 서쪽이 아니면 이쪽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거짓말하면 처벌받습니다. 宣誓했기 때문에... 양심을 두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證人 朱昌均 아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협박에 의해서 銀行長이 그렇게 陳述을 했구만요.

○證人 朱昌均 그 때도 제가 말썸한 것은 이렇습니다.

商業銀行하고 참 오랜... 회사가 30年 歷史니까 가까운 사이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데 가끔가다가 인사도 차리고 하는 정도는 소위 통상적인 인사 그런것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그렇게 하지않았으니까요.

○金東周委員 일반적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인사 정도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1,000萬圓짜리 수표 다섯매 保證手票를 준 사실이 없다.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拘束된지 6個月만인 82年11月5日 出監하셨지요?

○證人 朱昌均 11月15日 나왔습니다.

○金東周委員 만일에 말입니다. 아까 우리 同僚委員들 하고 제가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張玲子에 관계되는 사건은 張玲子가 經

濟秩序를 문란케 한 罪 그 다음에 張玲子가 일정한 직업없이 許可내지 않고 無許可 金融業을 했다 하는 罪 社會經濟秩序를 어지럽혔다 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엄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張玲子사건을 수사하면서 權力機關으로부터 李順子나 李圭東씨 심지어 全斗煥씨의 政權維持次元에서 張玲子事件을 다뤘기 때문에 내가 다소간에 張玲子の辯護人 역할같은 이야기인지 몰라도 거기에 혹시 오해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張玲子하고 證人하고 去來를 할 때는 企業人으로서 私債業者하고 사채를 쓰는 사람이지요?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證人은 私債를 빌린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그런데 張玲子에게 어음割引도 하면서 證人 會社의 約束어음을 張玲子에게 빌려준 사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대신에 제가 꼭 張玲子 財産을 調査하다보니까 不動産에 日新製鋼에 擔保提供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銀行鑑定價格으로 약 100億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100億이라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현재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擔保提供을 하고 어음을 빌려준 것 一般 商去來아닙니까?

○證人 朱昌均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렇지요. 또 지금 證人을 이렇게 權力機關에서 정말 참 건실하게 제일 먼저 政府施策에 따라서 公開企業도 했고 國家의 基幹産業인 鐵鋼業 그 어려운 사업을 했고 이러면 오히려 特惠金融을 지원해 주지 못할망정 실사 이런 資金을 빌려 쓴다고 해서 罪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朱昌均 저는 그 때 그렇게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도 短資를 통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市中 私債형식으로 안 했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만일에 그 당시 5月13日 證人과 배길훈社長 그리고 혹은 張玲子 李哲熙가 拘束이 되지 않았더라면 貴下 會社가 不渡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證人 朱昌均 위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拘束이 안 됐다면 내가 만나지요. 만나서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건의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解體公賣라는 것은 政府가...

○金東周委員 拘束이 안됐으면 不渡가 날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證人 朱昌均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金東周委員 不渡가 안 나는 것이지요?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그리고 또 막상 張玲子 李哲熙가 拘束되더라도 證人만 구속시키지 않았더라면 證人이 소유하고 있는 株式을 팔면 157億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證人 朱昌均 未收어음도 있었고 在庫도 있었고 해서 未收어음 在庫가 4·500億 정도 있었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러니까 拘束만 안 됐다면 不渡는 면할 수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또 日新製鋼이 그 당시에 李哲熙씨로부터 157億의 현금을 借用하고 249億원의 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면 결국 92億을 張玲子에게 빌려준 셈이 되지요?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그런데 檢察에서는 509億을 日新製鋼에 빌려 주었다고 했는데 證人 會社에 와서 장부확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까?

○證人 朱昌均 안 했습니다. 그것이 不可思議하고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당사자에게 확인도 안 하고 李哲熙쪽이 정신이 없었으리라 생각 되는데 그 말만 듣고 이렇게 했는지 심지어 회수한 어음까지 함께 계산한 다는지 하는 것은 지금도 不可思議합니다.

○金東周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에 張玲子 李哲熙가 사기를 당했던 빌려주었던 그 금액은 509億이 아니고 92億이라는 것이지요?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좋습니다. 그 당시에 日新製鋼이 不渡가 날 당시에 銀行負債가 800億이고 支給保證이 500億 모두 해서 約 1,300億이지요?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그리고 不渡를 내고 난 이후에 當日附로 競賣申請해서 商業銀行이 82年6月28日 單獨入札을 보았는데 지금 證人의 계산대

로하면 3분의 1價格인 1,182億6,600萬圓 競落金額이 맞습니까?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이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3분의 1 價格이고 억울하다는 말씀이 시지요?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그 당시에 日新製鋼을 引受한 韓國商業銀行은 82年9月8日 그 당시 副總理 金垓成씨 室에서 商工部長官 財務部次官 主去來銀行인 商業銀行長 浦項製鐵 社長 外換銀行長 이런 사람들을 모아 놓고 金垓成씨가 강력하게 銀行쪽에 이야기 해서 浦鐵이 引受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朱昌均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金東周委員 副總理가 主宰를 해서 銀行이 손해를 보고 넘겨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銀行으로서는 이것을 缺損을 또 보아서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副總理가 이것은 政策的이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그 이후에도 못 들었습니까?

○證人 朱昌均 죄송합니다마는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金東周委員 좋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金垓成副總理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銀行에서 팔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것을 836億圓에 지금 현재 東進製鋼 그러니까 浦鐵의 出資法人인 資産 50億 資本金이지요? 여기에 넘겨주면서 1,357億圓으로 그 당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또 國民들이나 一般 사람들에게 의혹을 준 것입니다. 아까도 어느 委員이 지적을 약간 했습니다마는 5年据置 15년까지의 그러니까 無利子期間을 빼고 5年 이후 15년까지의 利子를 5.78% 計算했습니다. 5.78%라는 것이 그 당시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法院의 競賣費用이 30億 원인가 나갔습니다. 이래서 1,358億이고 실제 證人會社의 動産 그러니까 工場資産을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836億이 틀림없지요?

○證人 朱昌均 834億입니다.

○金東周委員 그리고 法院이 競賣節次를 위반했습니다. 本委員이 조사를 해보니까 法院에

競賣物件을 신청하면 一般慣例가 어떠냐하면 그 競賣物件을 法院은 鑑定機關에 鑑定을 의뢰해서 鑑定機關에서 오는 通報書를 받아 거기에 따라서 入札을 보아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그런데 이件的 경우에는 法院의 별도의 鑑定이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朱昌均 별도 鑑定이 없습니다.

○金東周委員 證人會社에서 5年前인가 자체 銀行鑑定을 해놓은 鑑定價格 837億 이것을 기준으로 했지요?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그러면 이것도 違法 아닙니까? 原因無效訴訟이 되지 않습니까? 財産을 정확히 鑑定을 안하고 했으니까 또 根本的으로 하나 문제가 株式會社의 特別計理가 있는데 株式會社의 特別計理는 財産의 取得 및 處分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株主總會의 승인도 없이 현재 財産만 公賣處分한 것 아닙니까?

○證人 朱昌均 물론이지요.

○金東周委員 그러면 法이 하나도 적용된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商法이나 競賣法이나 모든 것이 다 違法이지요?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이것을 商業銀行長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高位層의 하나의 張玲子事件으로 해서 완전히 지금 현재 張玲子와 靑瓦臺關係가 자꾸 비화되겠다 싶어서 強制的으로 日新을 죽인 것 아닙니까? 法을 무시하고... 同意합니까?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이것은 常識的으로 이럴 수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을 하다 會社 하나 企業이 망해도 이것을 競賣節次를 밟으면 6個月 내지 1年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엉뚱한 쓸데없는 짓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그 당시에 證人을 拘束시키지 않았더라도 不渡가 안났을 것이고 만일에 이렇게 이 정도의 지금 현재 浦項製鐵이 새로 설립한 東進製鋼에게 주는 정도의 特惠을 주었다고 가정을 할때 證人의 企業은 어찌 되어 있겠습니까? 浦項製鐵보다 더 크겠지요?

○證人 朱昌均 10分の1이라도 문제가 없고
아까 對答말씀했지만 24%·18% 金利가 이
事件직후에 8%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黑字가 나고 支援을 하면 더 다른 事
業도 확장했겠지요.

○金東周委員 엄청난 會社가 되었겠지요. 그
런데 아까 證人이 열몇 이야기했는데 여기
銀行書類에 의하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까 그것은 資産이고 在庫 原料製品 6萬t입
니다. 이것은 바로 現札을 주어야 그 당시
사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까?

○證人 朱昌均 예. 못들이지요. 契約金을 갖
다 주고도 한참 걸리지요.

○金東周委員 이것이 당시 208億원인데 76億
에 넘어갔습니다. 76億이면 古鐵價格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約 250億정도 분명히 特
惠 준 것이지요?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두말할 여지가 없지요.

그런데 이 特惠도 어쩌나 하면 現札로 76
億을 받는 것이 아니고 5年据置 無利子 5年
分割償還 아닙니까?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据置期間동안 利子도 없고 이것
이 참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뒤에 日
新製鋼은 이 會社를 정상화 시키겠다하는 명
목을 붙여가지고 浦鐵에서 東進製鋼... 東進製
鋼은 東部 그룹에 이 財産이 그대로 引渡했
지요?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得
을 본 데는 東部 그룹이 보았다 이 말 아
닙니까?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거기까지는 맞아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82年9月8日 日新製鋼株式會社設備
賣却에 관한 會議內容 이것이 場所가 副總理
室 參席者가 副總理 商工部長官 財務部次官
浦項綜合製鐵社長 韓國商業銀行長 日新製鋼設備
賣却의 件 해가지고 이 會議에서 결정이 되
었습니다. 이 서류 못 보았습니까?

○證人 朱昌均 못 보았습니다.

○金東周委員 그 당시 金垸成씨가 副總理입니
다. 이 會議에서 전격적으로 證人의 財産이
일단은 浦項製鐵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會議內容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否認할 수 없겠지요? 同意하지요?

○證人 朱昌均 예. 저는 그때 拘束되어 있
었기 때문에 그때 사정을 잘 모릅니다.

○金東周委員 刑務所에서 한 6個月 있다가
나오니까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 그 말이지
요?

○證人 朱昌均 예.

○金東周委員 아까 證人이 상당히 훌륭한 말
씀을 하셨는데 기히 中小企業일 때는 내企業
이지 大企業이 될 때는 社會企業이다 그러나
현재 77%의 小額株主 그 人員이 700名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대한 日新이라는 하나의
會社의 공신력을 믿고 金融機關에서 구입한
많은 被害者들에 대해서 그 株式 자체가 휴
지조각이 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 뒤에
아무 對策도 없습니까? 지금...

○證人 朱昌均 일단 法律的으로는 解體賣却式
으로 했기 때문에 株主들의 株券만 날라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했지만 빚까지 지고
있습니다. 특혜준 빚을... 싸게 했으니 日新
製鋼株主들한테 싸게 한 것은 빚으로 지우고
실지 財産은 다른데 팔고 이런 형식입니다.

○金東周委員 그러니까 株主들은 株式에 대한
가치도 없지만 日新製鋼의 約 3,000億 이상
되는 資産을 800餘億원에 처분해 버리니까
오히려 나머지 빚에 대한 銀行빚이나 공과금
에 대해서 株主가 돈을 더 내놓아야 된다는
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證人 朱昌均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런데 여기에 證人이 꼭 양심
적으로 대답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證人
의 會社에서 그때 확장준공식인가 기공식인가
할 때 그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證人會社
를 浦項製鐵이 引受하려는 그 단계에 李圭東
씨가 거기에 왔다 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
기를 해 보세요.

○證人 朱昌均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모르겠습
니다. 그런 비슷한 소문은 있었지만 무슨
式때 왔다 간 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金東周委員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당
시에 資産을 實査하는 단계에 李圭東씨가 왔
다 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얘기 못 들
었어요?

○證人 朱昌均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金東周委員 아래서 그 이후에 鐵鋼界의 貴童子가 바로 李昌錫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와 보고 상당히 사업성이 있고 鐵鋼業이 희망이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 아들을 주기 위해서 혹시 이런 욕심을 내 가지고 浦項製鐵로 넘겨 놓았다가 다행히 자기 아들이 또 지금 현재 聯合鐵鋼 여기에도 관여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東國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東部그룹에 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浦項製鐵에서 가지고 갔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朱昌均 그런 소문이 많습니다. 원래 바로 하려는데 하도 사회 여론이 들끓으니까 商業銀行으로 일단 했다가 수습이 또 안되니까 浦項製鐵에 주었다가...

○金東周委員 그래도 안되니까 하도 소문이 나고 여러 가지 證人이 그 뒤에 經濟人聯合會 鄭周永씨도 證人을 위해서 진정을 다 해 놓았더라고요. 각 經濟團體 從業員 2,000餘名の 陳情書 심지어 從業員代表들이 副總理室 銀行長室 다 다녔더라고요. 이렇게 사회 물의가 일어나니까 결국 李圭東씨 생각에 자기 외동아들에게 이것을 주고 싶었는데 사회 물의때문에 못 주고 결국 東部그룹에 넘겨 갔지 않나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朱昌均 그런 말이 많습니다.

○金東周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日新製鐵은 法을 위반해도 보통것은 두서너가지 밖에 위반 안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無效입니다. 얼토당토 않은 일인데 이렇게 第5共和國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張玲子事件을 卑下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선량하고 꼭 國家가 지원해야 되고 또 國民이 다 지원해야 될 양심적인 企業家를 한 사람 이렇게 도탄에 빠지게 만들고 그 株主들은 株式에 대한 배당이익도 받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가까운 財産 다 뺏기고 채무만 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政治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平民黨의 趙昇衡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昇衡委員 내분 委員께서 거의 다 質問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質問하고 答辯하는 가운데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 한 가지만 묻고 그치겠습니다.

아까 金東周委員께서도 물었습니다마는 李哲熙씨로 부터 돈을 빌려 받고 그리고 어음을 발행을 하셨지요?

○證人 朱昌均 예.

○趙昇衡委員 전체 발행한 額을 보면 檢察發表는 509億이라고 되어 있는데 證人은 지금 249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실세는 92億 밖에 안되니까?

○證人 朱昌均 쓴 돈에 대해서 어음 팔고 사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 외에는 92億뿐입니다.

○趙昇衡委員 그러니까 초과된 것이 실세는 92億뿐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2배 내지 7배가량의 어음을 더 발행을 했는데 證人께서는 2배 정도도 안되는 어음을 발행했다 그런 얘기지요?

○證人 朱昌均 맞습니다.

○趙昇衡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證人이 李哲熙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李哲熙씨로 부터 證人이 거꾸로 擔保物을 받았나요?

○證人 朱昌均 이것은 아주 명백하고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2倍數를 했는데 그게 3個月마다 改書를 하는데 날짜도 좀 잘 안지키고 그런데 사실은 그전의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張玲子가 아니고 李哲熙를 만났습니다. 韓行長을 통해서 두번인가 만나서 방침 결정하고 처음에 30億을 썼습니다. 30億 하기로 하고 實務는 우리 부서한테 일임했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한것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날짜가 앞뒤가 맞아 떨어지고 실수가 전연 없어야 될텐데 82년에 들어와서 몇번 期日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면 우리가 꺼 줘야 됩니다. 갑자기 생각도 안했던 돈 30億씩 꺼주니까 혼이 나서 안되겠다 정리하자 그래서 그쪽에다가 不

動産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擔保를 내려 그렇게 해서 不動産이 約 100億인대요. 그것이 銀行에서 인정하는 金額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게 되고 나머지 92億은 한 열흘 더 되면 期限이 돌아옵니다. 期限이 돌아온 다음에 發行 안하면 그만이니까... 정리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리과정이었습시다.

○趙昇衡委員 그러니까 擔保物로 받은 것은 정리과정에서 100億 상당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證人 朱昌均 예.

○趙昇衡委員 그러면 李哲熙씨가 張玲子씨에게... 서로 書信을 주고 받은 것들이 있어요. 5月 4日 5月20日 5月26日에 서로 주고 받은 書信을 보면 李哲熙씨가 張玲子씨에게 쓴 글입니다. 4月22日 父母님과 金次長이 日新製鋼이 우리를 擔保로 銀行에서 빌린 돈을 확인하려는 情報가 있는데 나는 元金에 대해서 확인해 주었다 이렇게 李哲熙씨가 張玲子한테 얘기했어요. 또 5月20日에는 日新製鋼 債務關係 확인해 준게 잘못이었소 이렇게 또 李哲熙씨가 張玲子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金次長에게 債務元金이 왜 이렇게 많으며 누가 사용했는지 알아 보았으면 한다 하는 내용으로 李哲熙씨가 張씨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지난 22日 父母님 金次長 秘書가 接見을 와 가지고 아직 債務確認書를 提出하지 아니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나 참 반갑다 라는 얘기도 張씨에게 李씨가 했습니다. 여기서 日新製鋼이 債務額數 확인을 안해주는 것이 張玲子나 李哲熙씨에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證人은 잘 아실것 같은대요...

○證人 朱昌均 저는 우리쪽에서는 어음이 3個月마다 소환이 되는데요. 어음超過發行한 것은 안되겠다 걸려들면 안되니까... 그래서 있는 不動産을 넣어서 맡겨달라 아마 저희만이 그런 강경한 요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不動産이 들어와서 우리는 어음發行한 것이 不動産하고 맞떨어지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음發行이 줄은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렇게만 했던 것입니다.

○趙昇衡委員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姜信玉委員 訊問하세요.

○姜信玉委員 李哲熙를 紹介해준 韓行長이라는

분은 뭐라고 하면서 紹介합니까?

○證人 朱昌均 하루는 꿈프치는 親睦會會員이기 때문에 들어오니깐 반갑게 만났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돌아가는 經濟가 어떠냐 그때는 81년에 利子를 24%정도를 꼭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企業이 죽는다 야단하고 某 自動車 會社 같은데는 200몇십億이 赤字가 나고 야단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나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資金 많은 사람인데 鐵鋼工業 같은데 자기가 노는 資金을 돌려서 응원할 용의가 있다고 하더라 누가냐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李哲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됐는데 자기가 중간에 선 것은 아니고 직접 만나보시오 하면서 電話番號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뒤로 그 얘기를 듣고 경솔하게 제가 나타날만한 성질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알아 보니까 經歷이 前 國會議員이고 中央情報部次長을 했고 將軍이고 그래 조금 더 알아 보았죠.

그랬더니 돈도 많은데 얼마나 많은 지는 확실히 몰라도 상당히 많다 그거면 저희한테 충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30億 갖다 해볼까 그런 심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韓行長은 같이 안갔고요.

○姜信玉委員 韓行長은 어떻게 알게 됐다고 합니까?

그 후에 얘기가 됐을텐데...

○證人 朱昌均 그것은 묻지 못했습니다.

○姜信玉委員 그 다음에 만나보고 난 뒤에 李哲熙가 믿을 수 있다고 확신을 줬니까? 만나보고 난 뒤에도...

○證人 朱昌均 처음에는 저희 한 30億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00億이상 있다는 소문을 듣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중요시 안하고 그렇게 많이 할 생각이 없었고 가볍게 접촉을 했습니다.

○姜信玉委員 그 다음에 뒤에 張玲子가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까?

○證人 朱昌均 예. 후에...

○姜信玉委員 결혼식한 것도 알고요?

○證人 朱昌均 예.

○姜信玉委員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까?

○證人 朱昌均 저는 안했습니다.

○姜信玉委員 그러니까 張玲子가 있어 가지고 또 신뢰가 더 간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張玲子하고 부부관계고...

○證人 朱昌均 저는 뭐 그렇게 깊이는 생각 안하고 李哲熙씨쪽하고 만나서 方針을 협의했기 때문에 여자까지 만날 생각을 못했습니다.

○姜信玉委員 그러면 그 張玲子나 李哲熙는 단순히 證人の 鐵鋼企業을 위해서 일종의 좋은 일을 한다 이런 事業家로 봤습니까? 아니면...

○證人 朱昌均 그쪽이 말은 그렇게 했고 好意라면 好意 가지는데 나쁠 건 없지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姜信玉委員 아니면 무슨 高利貸라든지 私價놀이 이런 정도로 봤습니까?

○證人 朱昌均 처음에는 무슨 株式장사하는 정도로 알았습니다.

처음의 인상은 株式을 많이 한다 하는 애기고 돈도 상당히 많이 있다...

○姜信玉委員 그 다음에 政治的으로 무슨 權力層들이 뒤에서 도와주어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은 한 적 없습니까?

○證人 朱昌均 그까지는 생각을 안했고 저희 자체가 한 2·30億정도 돌려 써보자...

○姜信玉委員 돈있는 사람한테서?

○證人 朱昌均 예. 있다고 하니깐 그정도가 가볍게 생각해서 하여튼 지난 후에 보니까 情報部次長도 했다고 그런 얘기도 후에 알아 가지고 그렇다면 좀 어디 연락이 있을까 추측만 했습니다.

○姜信玉委員 證人 會社에서 張玲子한테 피해 본 액수는 얼마입니까?

결국 그 90 몇億 그것입니까?

○證人 朱昌均 예.

○姜信玉委員 그것은 지금 負債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張玲子 個人한테 말하자면 그것이 李哲熙한테 받을 債權입니까?

○證人 朱昌均 그렇지요.

○姜信玉委員 그 債權回收方法은 어떻게 뒀습니까?

○證人 朱昌均 그것이 이상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13일에 連行되어가서 12日 不渡處理拘束 公賣申請도 다 끝난 다음에 11月15日

나왔더니 이미 會社는 東進製鋼이 引受해서 사람도 다 그리로 가고 서류도 다 저기 있고 그래서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저하고 가깝던 秘書室 밑에 女事務員까지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 내놓곤... 그래서 일체 書類도 모릅니다. 情報도 없고...

○姜信玉委員 그러면 東進製鋼에서는 왜 訴訟을 안하느냐 그 말이요?

○證人 朱昌均 東進製鋼은 관계없지요?

○姜信玉委員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會社가 돼버렸으니까...

○證人 朱昌均 이것이 이런 상태로 처리했습니다.

과거의 빚은 日新製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려놓고... 日新製鋼株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살려놓고 빚은 거기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싸게 팔면 싸게 팔아 나오는 손해도 거기다 지워놓고 그리고 실지 財産은 梧柳洞工場 仁川工場 釜山工場 本社 하나하나 떼어 팔 생각으로... 싸게 팔수록 株主가 밀지는 것이지요.

○姜信玉委員 그러면 日新製鋼이라는 會社는 있는 것 아닙니까?

○證人 朱昌均 會社는 있었지요.

○姜信玉委員 그 法人이 張玲子를 상대로 李哲熙를 상대로 債權回收를 하는 방법을 취했느냐 말입니다.

○證人 朱昌均 그것은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稅法上 금방 廢棄申請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5년이 지나가니까 폐쇄가 됐고...

○姜信玉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朱昌均證人께서 저희들 聽聞會에 나오셔서 가지고 많은 證言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證人께서 우리 聽聞會가 없었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42년부터 우리 나라 鐵鋼界를 호시처럼 건설해서 키워오신 그러한 공적이 그리고 또 억울하게 政權과 政府와 官吏들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그 日新製鋼은 우리 國民으로부터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聽聞會를 통해서 많은 證人들의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오늘 朱昌均證人이 證言을 하신 바대로 心證의으로 또 여

러가지 자료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게 政治的으로 당한 사건이다 하는 것이 心證的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5共和國의 全세를 비롯한 權力이나 政府나 官吏들이 얼마나 무모하게 不法的으로 자기네들의 가는 길에 거슬리는 政治人이 있고 企業人이 있다면 무자비하게 타살해 버렸다는 그러한 생생한 사건중의 하나가 바로 日新製鋼의 不渡事件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聽聞會가 끝나면 저희들은 이 調查活動을 종결지으면서 우리 國會에서 각 사건마다 處理方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저희들 5共特委도 함께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朱昌均證人에 대한 證人 訊問과 證人聽取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證人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마지막 證人 한분이 남아있습니다.

한 20分 停會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停會하겠습니다.

(16時23分 會議中止)

(16時47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基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을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證人 訊問順序에 따라서 尹錫祚證人에 대한 證人 訊問과 證言聽取가 있습니다. 證人 宣誓에 앞서서 宣誓의 趣旨를 알려드리고 證人이 證言을 拒否할 수 있는 경우와 證人에 대한 處罰規定에 대하여 미리 證人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證人이 宣誓를 하는 이유는 證人으로부터 良心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證言을 하겠다는 誓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證人은 자기 또는 자기의 親族등 近親者가 刑事 訴追 등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는 證言을 拒否할 수 있는 刑事訴訟法 第148條와 業務上 知得한 他人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證言을 拒否할 수 있는 刑事訴訟法 第14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宣誓 또는 證言을 拒否할 수 있습니다.

또한 證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宣誓 또는 證言을 拒否하거나 宣誓한 證人이 虛偽의 陳述을 한 때에는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告發處罰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尹錫祚證人 나오셔서 宣誓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尹錫祚

(證人 宣誓)

○委員長 李基澤 證人席에 앉아주세요. 尹錫祚證人에 대한 當 特委 聽聞會의 訊問要旨는 大韓船洲 讓渡의 強制性與否 大韓船洲株式의 擔保權行使 및 政府機關의 關聯與否 그리고 기타 關聯事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證人 訊問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新民主共和黨 鄭一永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一永委員 新民主共和黨 鄭一永委員입니다.

尹錫祚씨... 앞으로 證人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の 實兄이신 尹錫民씨가 3月13日 聽聞會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나오지 않으셔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本委員의 質問에 대해서 솔직한 答辯을 바랍니다.

證人側은 全斗煥씨로부터 미움을 사고 政治的인 稅務查察을 시발로 해서 企業의 經營難에 봉착하였으며 결국은 不法탈취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事實입니까?

○證人 尹錫祚 예. 事實입니다.

○鄭一永委員 文亨泰·丁來赫事件과 大韓船洲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全斗煥씨가 指示해서 政治的인 稅務查察을 받았다고 하는데 稅務查察을 당하게 된 實質的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尹錫祚 1984年度에 海運產業이 상당히 不況이었습니다. 그래서 84年初부터 5月末까지 1次 海運產業合理化를 마친 연후에 저는 大韓船洲의 營業網을 點檢次 海外的 支店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月21日 韓國 本社로부터 稅務查察이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個月前에 韓國의 海運船社로서는 처음으로 8個月前에 稅務查察을 받았는데 또 무슨 稅務查察이냐고 제가 애기를 했더니 그래도 약 한 40名이 나왔으니까 심상치 않을 거라고 애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서 바로 飛行機票를

끊어가지고 그 이튿날 밤중에 韓國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여러 통로로 點檢해 본 결과 文亨泰씨의 私債돈을 이 會社에서 찾아야 되겠다 두번째는 그러면 株式의 분포라는지 文亨泰... 우리는 단 1원 한장의 私債라는 돈을 쓰는 會社가 아니기 때문에 私債라는 것은 이미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大韓船洲를 와해시키고자 온...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처음에 國稅廳에서 査察의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부술 것이 없이 政府가 애써서 支援을 해주면서 産業合理化까지 해준 이 마당에 무엇때문에 불필요한 査察로 大韓民國에서의 國籍船社로서 代表的인 船社를 때려부술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安武赫씨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安武赫씨는 지금 바로 金斗煥씨한테 直接指示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나온 稅務班長이 책임지고 차근차근 不正이 있으면 또 會社の 잘못된 脫稅가 있으면 분명하게 내가 處罰에 응해서 서명해 줄테니까 이런 政治的인 強壓的인 방법은 나와 文亨泰씨가 관계가 된다고 해서 이 會社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李朝時代에서나 連累法이 있는 것인지 自由民主國家에서 어떻게 이러한 連累法을 적용해서 무슨 사위라는 이것 잘못해가지고 장가를 들 때도 무슨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이러한 社會라는 것은 아직도 옛날 舊習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 韓國의 습관과 마찬가지로의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稅務調査를 받았습니다.

○鄭一永委員 앞으로 答辯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證人 尹錫詐 예. 죄송합니다.

○鄭一永委員 그 實兄이신 尹錫民會長한테 말이지요 上納要求에 不應했다고 하는데 무슨 上納을 요구를 받았으며 또 그 不應한 이유는 무엇인지?

○證人 尹錫詐 上納을 直接的으로 돈을 내라 이러한 이야기는 들은 일은 없습니다마는 國會 그 여러 會議 忘年會席上에서 金斗煥씨가 그 당시에 參席해서 갑자기 여러 國會議員 있는 데에서 尹錫民씨 돈 얼마 벌면 政治資金 좀 많이 내고...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내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찾아가서 어떠한 뭐냐하면 獻金을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害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豫見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會社の 형편으로서는 상당히 海運不況狀況에서 그러한 이 獻金을... 會社가 살기 위해서는 獻金할 수는 있었지만 會社の 그 企業의 이익이 남아서 獻金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鄭一永委員 그 稅務査察을 받을 당시 말입니다. 그 調査員들이 한 100餘名이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와서 하는 소리가 죽은 송장 염하러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尹錫詐 제가... 존경하는 委員님 시간을 좀 더 말씀드려도 괜찮겠는지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7月29日 金斗煥씨가 靑瓦臺에서 靑南臺 休暇次... 27日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29日 갑자기 올라와서 이 과연 올라오게 되면 제가 稅務査察을 받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러한 어려움속에서 살아남 길이 없었니까 어떻게든지 살려주십사 하고 사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多方面으로 노력해보았던 것과 다시 休暇次 잠깐 올라와서 과연 뭐냐하면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직접 어떻게든지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부당한 일에 또한 文亨泰씨와 丁來赫씨 관계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이러한 일로 인해서 화가 났다 하더라도 좀 참아달라고 좀 용서를 빌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체 아무도 안만나고 세시간동안 安武赫씨하고 密談을 나누더니...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는 그 이튿날 분명히 이 稅務調査가 강화해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 이튿날 100餘名으로 증강해서 들어와서 바로 稅務班長이 다시금 말씀을 저한테 직접 전해주었던 이야기였습니다.

○鄭一永委員 직접 班長이 그런 이야기했습니까?

○證人 尹錫詐 예.

○鄭一永委員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합니다. 新聞에 流布시키지 마라... 또 당신들이 살려면 最高責任者와 담판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最高責任者가 누구냐 그러니까 金斗煥大統領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尹錫昨 예, 사실입니다.

○鄭一永委員 證人께서 2次 稅務査察中 代表理事를 84年8月10日 辭退를 하시고 美國으로 가셨습니까?

○證人 尹錫昨 예.

○鄭一永委員 그리고 나서 金斗煥씨가 退任한 후 1個月 후에 美國에서 歸國을 하셨습니까?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鄭一永委員 美國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으며 金斗煥씨와는 무슨 函數關係가 있기에 美國으로 갔다가 그 분이 退任하니까지는 다시 歸國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證人 尹錫昨 84年8月5日頃에 제가 重役들과 會議을 했습니다. 海運産業이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는 會社는 年間 運賃 5億弗 이상이 運賃收入을 올리고 世界 第10位團의 船社로서 國內 韓國주문 35%未滿의 짐을 싣고 約 65%는 海外에서 짐을 싣는 海外營業網과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會社를 政府가 삼아때려서 없애려고 하니깐 내가 힘이 없다 그리고 또 더 더구나 나 때문에 姻戚關係로 인해서 會社가 瓦解된다는 것은 내가 責任을 통감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政府가 한쪽에서는 支援을 해준다 하다가 한쪽에서는 또 자기의 김정으로 삼아때려겠다 이러니 내가 일개 個人 企業人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이러한 稅務査察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내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과연 뭐냐 하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일단 會社에 있는 모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이나하면 3個月 내지 6個月 아니면 1年後에 어차피 金斗煥씨한테 쓰러질 바에는 不渡를 내자해서 제가 不渡를 내기로 決心을 했습니다.

그래서 各 重役들한테 일제 오늘서 부터 들어오는 어음은 막지말라 위에서 잡아 때리니까 그 돌아오는 어음은 당연히 銀行에서 막아 넣어 주든지 不渡를 내주든지 우리가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느냐 해서 不

渡를 내기로 해서 일제 銀行에 出入을 못하도록 제가 막는 바람에 이 不渡가 난다하는 그러한 所聞이 나서 稅務査察班이 바로 撤收를 했습니다. 한 3日후에...

그래서 이러한 強制的으로 이 企業을 不渡를 낸 主犯이 그 企業主였던 尹錫昨아니냐 하는 情報機關으로 부터의 많은 謀報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깐 제가 만약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는 金斗煥씨한테 對抗해서 不渡를 내서 달려들었던 놈이라고 그레가지고 어차피 여기에 있으면 설단이 날 것 같아서 사실은 도망을 샀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여기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美國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大韓船洲는 무엇이나하면 金斗煥이 손에서 쓰러질 테니까... 이것은 내가 60%를 가지고 있는 大株主로서 그리고 代表理事 당시 社長였던 韓相權씨를 代表理事 社長 職務代行을 해놓고 내가 代表理事 副會長으로서 이 會社는 내가 法統만이 라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鄭一永委員 그러니까 政治的으로 아주 치밀하게 計劃을 세워서 강제로 奪取해 왔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證人 尹錫昨 맞습니다. 奪取해가는 방법은 추후에 87年度에 극악하게 일어난 事件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 大韓船洲가 와해되었던 그 부분은 분명히 委員님께서 말씀해주신 83年初에 政治 稅務査察에 의해서부터 大韓船洲가 와해되는 치절한 환경에 놓여있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鄭一永委員 다음은 假契約書部分에 대해서 質疑를 좀 하고자 합니다.

大韓船洲疑惑중에서 假契約書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假契約書의 성격과 내용을 說明해주시고 그 假契約書때문에 會社가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所見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證人 尹錫昨 지난번 檢察에서 司空 壹前財務長官이 87年3月24日 당시 財務部長官 鄭寅用이가 金斗煥 前大統領한테 사전에 決濟를 받아서 韓進에게 넘기기로 했다는 그러한 記

事が 나왔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진에 86年度10月 서부터 저희들 職員을 통해서 들리던 얘기는 趙重勳씨가 자기 韓進海運이 굉장하 그 당시 不實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大韓船洲를 全斗煥씨한테 賂物을 많이 갖다주고 얻기로 했다 그 당시에는 400億을 주었다 150億을 주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저희 職員들이 저한테 전해 가면서 어차피 趙重勳씨한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本格的으로 시작이 된 것은 87年3月31日를 그 假契約書를 作成하는데에서부터 文書의 節次를 밝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87年3月31日字의 假契約書內容에는 81.8%의 尹錫昨과 관련되어 있는 大韓船洲 全 株式을 또 西洲産業의 擔保되어 있는 株式을 일체의 10個 銀行으로부터 合意書를 一個 外換銀行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전부 趙重勳씨한테 넘겨주겠다 그리고 넘겨 주겠다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趙重勳씨는 분명히 外換銀行의 株式을 가지고 있는 所有主가 아니고 또 거기에 緣이 무엇이나하면 단 1株도 가지지 않은 代表理事名目上 社長으로 났었던 韓相權씨하고 도장을 찍어서 그 契約書를 作成을 해서 4月4日 産業政審議會에 通過시키는 會議을 引受하고 引繼하는 必須要件인 契約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契約書를 그들이 虛僞로 作成을 해서 本人의 經營權이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株式을 讓渡한 그 同意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만들어서 金融條件을 거기에 달아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大韓船洲는 會社를 奪取당하는 그러한 첫 수법에 또 일에 무엇이나하면 그 假契約書의 文書上에 나타난 첫 발단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鄭一永委員 당시 代表인 韓相權씨가 假契約書에 도장을捺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變造된 것이 아니냐 僞造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錫昨 저는 檢察搜查에서는 당시 外換銀行 崔昇洛理事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會社에 맡겨놓은 도장을 가지고 그냥 찍었다

그리고 4月4日 産業政策審議會에서 통과한 후에 4月9日 가서 韓相權씨한테 이야기를 했다 또 韓相權씨는 4月9日以後에 자기는 同意를 했을 뿐 역시 도장을捺印한 일이 없다 또 저희들한테도 그 당시에 그러한 소문이 들려서 韓相權씨로부터 자기가 自筆로 전연 그러한데捺印한 사실이 없다고 確認書를 써서 提出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鄭一永委員 들립없는 사실입니까?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鄭一永委員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大韓船洲의 經營權引受가 假契約이 僞造라고 한다고 하면 刑法 第231條 私文書僞造 또는 變造에 해당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當局에 刑事告發을 했습니까?

○證人 尹錫昨 지난 11月21日 大韓船洲가 不當하게 他意 引受되면서 일어난 高位公職者들의 職員濫用 또는 不法한 行爲 이러한 것을 열거해서 제가 大檢에 告訴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鄭一永委員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證人 尹錫昨 88年11月21日입니다.

○鄭一永委員 또 金融機關에 見質擔保되었던 大韓船洲株式의 奪取는 金融機關의 擔保權 實行에 의해서 法院의 判決에 의해서 競賣處分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鄭寅用과 外換銀行에서는 이러한 것을 제멋대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告發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尹錫昨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民事地法에 87年6月28日자로 株券 不法奪取에 대한 원인 절차를 무시하고 또 競賣法 違反 證券上來法 違反등의 不法한 行爲로서 남의 株式을 奪取해간 것에 대해서 民事訴訟을 原因無效訴訟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鄭一永委員 外換銀行이 무슨 權限으로 假契約書의 當事者로 契約書를 作成하고捺印을 했다고 생각하는지요? 또 外換銀行이 各 金融機關의 大韓船洲株式을 전부 자기 銀行의 株式으로 賣却하라고 各 銀行에 다가 通報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權利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證人 尹錫昨 존경하는 鄭委員님! 外換銀行이 아니라 國務總理라 한다 하더라도 남의 株式을 사서 마음대로 다른데다 넘겨주고 몇

千億이 되는지 金融負債에 대해서 蕩減措置를 해주고 償還免除 또는 무엇이냐 하면 나머지 半은 長期 無利子로 해 준다는 그러한 條項을 넣어가면서 假契約書를 通過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權限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全斗煥 이외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權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鄭一永委員 그러니까 外換銀行에서 한 것이 아니라 全斗煥씨 指示에 의해서 했다...

○證人 尹錫昨 全斗煥씨가 당시에 鄭寅用씨한테 指示해서 鄭寅用씨가 4月4日 產政審議會에 빨리 通過를 시켜야 되겠으니 그 假契約書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오라는 指示를 받아서 外換銀行이 당시 作成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一永委員 그 假契約書 書類에도 보면 政府方針에 따라 本契約를 締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證人은 政府方針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政府方針에 의한다면 방침대로 할 것이지 契約書가 필요한 것인가?

또 이것은 自意에 의해 引受시켰다는 것을 合理化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政府의 방침이라고 하면서 이와같이 合理性을 가장한 要式行爲가 필요했다면 결국 權力에 의한 某種의 억지를 反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證人도 틀림없이 그것이 全斗煥씨가 指示한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確認합니다마는 틀림없습니까?

○證人 尹錫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一永委員 假契約書 4條1項 내용을 보면 總發行 株式中 81.8% 이상에 해당하는 證人 및 그 關聯 發行株式를 產業合理化 指定으로 6個月 이내에 별도의 株式 讓受契約를 締結하기로 되어 있는데 별도 讓受契約를 締結하신 바 있습니까?

○證人 尹錫昨 없습니다.

○鄭一永委員 그리고 또 外換銀行 韓進 大韓船洲側이 締結한 假契約內容을 產業合理化審議會가 수차 反復을 해서 引受 株式 持分率을 72.5% 이상으로 變更 議決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契約書가 어떻게 價値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가?

○證人 尹錫昨 產業政策審議會를 세번째 열었을 때는 新聞紙上에도 좀 報道가 됐었습니다마는 定足數 未達인 것을 또 당시 鄭寅用씨가 88年2月16日字에 열었습니다.

자기가 그만두어야 할 날짜를 며칠 앞날겨 놓고 다른 會社의 심부름하기 위해서 大韓民國 閣僚 13名이 모이는 그런 會社를 일부 남의 會社 株式 몇개 짜끼기... 이런 것을 調整해 주기 위해서 그것이 움직였었던 그런 會議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도 심히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鄭一永委員 假契約書 12條 解約部分에 보면 本契約書 締結 當事者가 本契約書에 約定된 事項을 履行하지 않을 경우 解約되게 되어 있습니다.

大韓船洲側에서는 約定內容이 제대로 잘 履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錫昨 말씀의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鄭一永委員 그러니까 假契約上의 여러가지 條件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그 契約條件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는지?

○證人 尹錫昨 저희들은 假契約에 直接的으로 關與한 일도 없고 그 내용도 알지 못할 했었기 때문에 外換銀行하고 韓進 그들 趙重勳씨하고 政府의 高位層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거기에 政府의 金融 資產을 착복해 먹기 위한 그러한 條件이 되면 그것을 履行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하는 뜻으로 그 文句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鄭一永委員 다음은 權力介入部分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大韓船洲 株式를 擔保해서 西洲產業 名義로 450億을 貸出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貸出金 償還 催告狀이 發送됩니다. 그 催告狀이 87年5月2일부터 5月8日... 6日 이내에 償還하도록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6日이면 그 많은 돈을 다 償還할 수가 없다고 本委員도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不渡를 前提로 해서 壓力을 준 하나의... 일종의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證人 尹錫昨 委員님 설명을 한 1分동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大韓船洲關係

는 갑자기 資金이 어려워져서 不渡가 나서 不實企業整理對象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또 어떠한 무슨 특별히 海運景氣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危險만큼은 견딜 수 있는 어떠한 不實의 테두리에는 들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느 어떠한 政府가 손을 대지 않아도 債務를 지고 있는 부분을 金融機關에 가서 충분히 利子를 償還해 가면서 元金만 猶豫를...

조금 편의를 봐준다면 충분히 걸어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船社였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株券을 내놓는다는지 아니면 그것을 뺏아서 다른데다가 들어가는데 있어서의 抵抗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節次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단 한 마다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설명을 조금 더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3月31日 字의 假契約書에 大韓船洲株式를 外換銀行이 단 한 株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시다. 10個 金融機關이 가지고 있는 株式를 전부 賣却을 해서 外換銀行에다가 몰아주라 하는 것을 合意書를 전부 적어놓았습시다.

그러니까 87年5月2日로부터 8일까지 6日 동안에 西洲産業에 貸出金 450億을 갚으라고 催告狀을 보낸 것은 그것은 다 形式的으로 實質의인 株式를 뺏아가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지 實質의으로 돈을 가지고 갚으려고 그러더라도 갚을 수가 없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擔保를 解除해주지 말라고 外換銀行이 또 다시 各10個 金融機關에다가 協調公文을 보낸 일이 있었습시다.

그리고 그 당시에 396億을 西洲産業이 支給保證을 포함해서 貸出金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期日이 到來되어 있었던 부분은 約 30億 그것도 한 3個 金融機關에 조금씩 分散되어 있었고 전연 期限이 到來되지 않았었던 그러한 부분이 360億 정도가 期限이 되지를 않았습시다. 그런데 강제로 그 株式를 뺏기 위해서... 거기에는 現金擔保도 많았고 어느 不動產擔保도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信託銀行 株式 자체도 몇백億원어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단 한가지도 競賣處分하지 않고 大韓船洲 株式만 그냥 그대로 뺏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을 그렇게 處理했다고...

○鄭一永委員 株式뺏기위한 수단이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證人 尹錫昨 예.

○鄭一永委員 2次 産業合理化支援措置에서 最大會社의 하나인 大韓船洲를 제외시킨 根本이유가 大韓船洲를 第3者 引受措置를 하기 위한 事業脚本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證人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錫昨 2次 海運産業措置에서 措置內容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5年据置 10年分割償還 또는 10年据置 10年分割償還에 5年間 利子 猶豫措置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大 海運船社로서 經濟企劃院 陳稔次官이 발표하실 당시에도 분명히 들어있어서 마지막 最終決濟 段階에서 金斗煥씨가 뺏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6名이 金斗煥씨 한테가서 決濟를 받으러 들어갔었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金斗煥씨가 빼라 尹錫民이 會社는 빼 버려라 이것은 해주지 말라 해서 사전에 他業體에다가 金斗煥씨 意向대로 돈을 어떠한 政治資金인지 個人 巨額의 資金인지 이런 것을 받고 넘겨 주기로 했던 것으로 우리가 推算하고 있습니다.

○鄭一永委員 그러면 金斗煥씨가 大韓船洲를 整理 指示를 할 적에 그러면 韓進에다가 引受業體로 指定을 했다고 이렇게 主張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具體的인 證據나 또 아는 바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尹錫昨 아까 말씀드린 것에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다고 하면 5年据置 10年分割償還에 5年間 利子猶豫라고 할 것 같으면 大韓船洲에 가지고 있는 船腹量이라든지 船隊를 가지고 年間 最下의 不況이 된다고 하더라도 備船을 外國에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몇백億씩 돈이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年間동안의 利子를 年間 600億 내지 더 많이 물을 때는 850億까지 물었었던 會社였었기 때문에 利子만 猶豫가 된다 하더라도 5年間 쌓이게 되면 몇 千億 정도의 돈이 쌓일수 있는 그러한 營業網과 그런 營業을 하고 있었던 會社였었기 때문에 2次的 海運産業合理化 措置에 大韓船洲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오늘날 世界 10位圈線上에서

아마 상당한 반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보이고 다 經營能力이 있었기 때문에... 실지 會社에 부실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위에 統治者라는 분을 잘 받들어 모시지 못한 부실한 經營能力이 있었던 것을 뒤늦게 저희들이 발견하고 사실 이렇게 會社를 뺏기고 어울하다고 또 와서 말씀드리게 된 이러한 不德한 이 소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大韓船洲의 부당한 탈취는 오직 金斗煥씨가 權力을 삼기 위해서 부당하게 탈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韓進海運이 그 당시 85年度에 1,900億 정도의 負債였었는데 86년에 4,503億의 債務를 졌습니다. 거기는 政府方針에 1次海運産業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政府로부터 元金에 대해서 猶豫를 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大韓船洲의 2次 合理化指定에 들어가서 韓進海運에 吸收 合併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오늘날 大韓船洲가 탈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韓進과 金斗煥씨는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一永委員 拋棄覺書를 提議할 적에 張世東 安企部長이라는가 李原晥 崔昇洛씨가 많은 압력을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돌리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尹錫昨 外換銀行의 崔昇洛씨는 87年4月4日 虛偽假契約書를 產政審에 通過시키고 바로 15名 정도의 물량배를 데리고 저희 會長이셨던 尹錫民씨 自宅에 밤 12時까지 들어와서 나랏님이 아시는 일이니까 줄개가 뭘 알겠느냐 여기에 署名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署名을 요구하고 한 3日 가까이 車를 집 出入國에 바꾸어대면서 지키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鄭一永委員 나랏님이라 하는 분이 바로 大統領입니까?

○證人 尹錫昨 그런 것 같습니다.

○鄭一永委員 大韓船洲가 韓進에 引受되게 된 것은 많은 政治資金을 提供했기 때문이라고 항간에 많은 所聞이 있습니다. 證人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錫昨 大韓船洲는 86年8月16日 外換銀行管理團이 왔을때에 負債의 統計가 6,850億 정도있었는데 이놈의 負債가 어떻게 둔갑을 했는지 8,990億이 됐습니다. 그런데 負債가 約 3,000億 가까이 2年 사이에 갑자기 늘어났고 또 그 당시에 大韓船洲의 船舶의 資産 또는 其他資産에 대해서 5,500億의 資産評價가 나와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게 부당하게 實査를 해서 古鐵값도 채 評價를 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總 資産은 깎아내려 버리고 負債는 늘어 삼는 식으로 해서 大韓船洲의 總 負債를 7,990億 정도로 늘어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銀行에서 4207億은 완전히 償還辦濟 즉 薄減을 해주었고 31億에 대해서는 20年 猶豫 15年据置 15年 無利子 均等分割償還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大韓船洲가 가지고 있었던 負債라고는 제가 생각을 하더라도 단 1원 한 장도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지고 있었던 32隻의 船代라든지 海外에 가지고 있었던 그 營業網이라든지 최소한도 7·8,000億이상의 財産이 나가는 大韓船洲를 밋 한 톨도 없는 會社를 그대로 주었다는 것은 1,000億의 資金을 特惠를 주고 4,500億에 대한 한전해운의 不實 어러운 부분을 年間 몇 백億씩 損失이 나는 會社에다가 10年据置 10年分割償還으로다가 5年이란 利子猶豫 이러한 特惠를 주었다는 것은 金斗煥씨가 뒤에 미치지 않으면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國民 4千萬名에 2萬원씩 혜택이 돌아가는 國民 資産을 그대로 한개 會社에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政治資金이든 個人의 資産이든 어떠한 것에 미쳤는지 아니면 조종훈씨가 하도 예쁘고 그 사람이 훌륭한 企業人이라 미쳐가지고 주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一永委員 그러니까 證人께서 많은 혜택을 주었으니까 反對給付로 많은 政治資金을 내왔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證人 尹錫昨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一永委員 다른 企業은 그렇게 많은 政治資金을 냈고 그랬는데 大韓船洲에서는 政治資

金을 낸 사실없습니까?

○證人 尹錫昨 그 당시에 政治資金을 낼 형편도 없고 그러고 그러한 돈을 받고 어떠한 政治를 하거나 나라를 統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열심히 방안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그것을 깨우치지 못해서 오늘날 이렇게 다른 企業人들은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會社를 빼앗기고 이 처절한 눈물속에서 나날을 보내는 無能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一永委員 그러니까 아까 문형대씨와 丁來赫씨도 문제가 되었지만 政治資金을 주지 않은 바람에 드린 데에서도 밍보여서 그러한 會社도 문을 닫는 이러한 것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습니까?

○證人 尹錫昨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음에다가 돈이 없으면 거기다가 100億이든 150億이든 써 넣어주면 銀行에서 決濟해 주는 것이니까 갖다가 살려달라고 빌지 왜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金統이 그 당시에 상당히 화가 나가지고 것이여서 會社를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준다고 해서 받겠느냐 내가 친구들한테 방안에서의 얘기입니다. 이 자식 구두발로 차버리면 내 턱이 날라가는 건데 너는 企業을 하면서 맨 이런 짓만 하고 돌아다니느냐고 거꾸로 치면 내가 더 죽는데 어떻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어차피 뺏어가려고 하는 이 강도한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좀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辭退를 하고 이 會社는 尹錫民 會社다 이렇게 위장하기로 하자 尹錫民도 約 28%의 大株主니까 尹錫民이 이것은 내 會社지 尹錫昨 會社가 아니다해서 위기를 모면해 보자 尹錫民 會長께서 3個月만 말아다오 그래서 저 사람이 분이 좀 풀리게 되면 내가 살금살금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빌어서 위기를 넘겨볼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물론 뭐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어음을 또 現金을 조금 갖다주면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행을 못했고 속 마음속에서 꼭 그러한 길만이 살 길이다하고 확신을 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나라의 統治하는 사람이 어음쪽이나 받아가지고 무슨 고양이 귀를 끌리는 그러한 짓만 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鄭一永委員 다음은 金融特惠部分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아까 證人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87年3月30日 假契約書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産業審議會議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大韓船洲 總 負債 7,938億원 중에서 53%인 4,027億원을 탕감해 주고 43%인 3,731億원만 20年 均等分割 還入하게 됩니다. 그것을 15年 據置 15年 無利子 分割償還이라는 엄청난 特惠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틀림없지요?

○證人 尹錫昨 틀림없습니다.

○鄭一永委員 이는 市中銀行 合計資本金의 한 30%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銀行監督院의 주도 내지는 압력이 없었다면 감히 이것은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되면서 앞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틀림없이 이것은 大統領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화증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틀림없지요?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鄭一永委員 證人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당시 尹錫民 前會長이 국민당의 副總裁였습니다. 그러면서 國會議員生活를 하셨는데 任期 6個月을 남겨두고 83年11月 政界를 은퇴하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 항간에는 政治를 할 것이냐 企業을 택할 것이냐 하는 둘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證人 尹錫昨 제가 美國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가서 있었는데 그때 마침 金滿堤씨가 10月末頃 무슨 會議때문에 「뉴욕」에 왔다가 제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尹錫民 會長이 國會議員을 내놓으면 會社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尹錫民 會長 형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金滿堤가 지금 현재 사람까지 병신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절때 辭退하지 말아라 왜냐 하면 몇달 있으면 자동「케이스」로 그만 두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에 출마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무엇때문에 辭退強要에 완전히 체면을 그렇게 파렴치한 人間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辭退를 강요하는

것은 會社를 살려준다고 하면서 辭退시켜 놓고 또 會社도 살려주지 않을 것이니까... 자기가 무슨 財務部長官으로서 우리 會社를 全斗煥한테 얘기해서... 全斗煥은 잡아 때리려고 하는데 살려줄 힘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기에 농락당하지 말고 辭退는 절대 하지 말아라 제가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尹錫民會長은 그 분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辭退를 한 것 같습니다.

○鄭一永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企業까지도 죽게 되었지요?

○證人 尹錫詐 예, 그렇습니다.

○鄭一永委員 또 지난 13代 國會議員選舉時 證人の 實兄인 尹錫民씨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돌연히 國會議員 출마를 辭退宣言 하셨습니다.

證人은 이에 대해서 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證人 尹錫詐 여기 大韓船洲의 不法奪取된 부분하고 그것은 個人的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88年3月26日 여기에 도착이 되었는데 도착 이틀후에 安企部에서 연락이 와서 尹錫詐가 尹錫民의 앞으로 政治하도록 들어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86年10월에 出入禁止된 놈이 여기에 들어왔으니깐 다시 나가지는 못하지만 政治를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尹錫詐가 와서 뒷받침할 것이 아니냐 절대 하지마라 하면은 안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88年4月1日 12時까지 外換銀行 行長 이용만씨한테 尹錫民이가 辭退하지 않으면 어떤 政黨이든 無所屬이든 출마를 포기하지 않으면 완전히 잡아넣을 것을 外換銀行에서 뽑아달라 그리고 12時까지 출마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하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가혹한 行爲로 膺懲을 할테니까 맛을 보려면 봐라 해서 첫번에 벌벌 떨고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민당에서 任期 6個月을 남겨놓고 辭退했었기 때문에 政治人으로서 신의에 어긋나는 일을 했고 어떠한 압박이나 어려움이 있었어도 견디어 있어야 되는데 企業이 와해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辭退를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금 88년에 와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

온다 하더라도 신성한 自由市民으로서 출마를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會社를 부당하게 빼앗겼던 政治權力에 의해서 희생이 되었던 부분을 새로 열리는 國會가 있어서 거기에 진출되는 기회가 된다면 가서 억울함을 얘기를 해보는 기회를 갖자 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가 봐라 해서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갔었습니다마는 약 70名 이상의 安企部 또 稅務查察班이 상당히 못살게 굴고 관련이 되어 있는 친척서부터 너무너무 처절하게 했기 때문에 辭退를 며칠 남겨두고 제가 만났습니다마는 친 형님이지만 야 너 이렇게 압박받아가지고 精神이 도는 것이 아니냐 좀 精神 차려서 끝까지 버텨서 해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돌연 하루를 남겨놓고 견디지 못하고 辭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壓力에 의해서 辭退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鄭一永委員 지금 證人の 생각으로는 그때 尹錫民씨가 國會議員 出馬를 辭退하지 않았다면 選舉結果가 어떻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證人 尹錫詐 오랜 세월 동안에 고향에서 많은 뿌리를 내리고 지내 오면서 그렇게 企業을 경영하면서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좀 많이 밀어 주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鄭一永委員 本委員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當選者하고 辭退하신 尹錫民候補하고 차이가 8,300票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證人 尹錫詐 아닙니다. 6,000票인가 4,000票.

○鄭一永委員 아닙니다. 정확한 통계인데 그래서 저도 政治하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5共和國에 있었던 政治權力者들의 횡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과 같이 證人이 證言한 것이 사실이라면 本委員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韓進이 인수한 負債를 20年동안 均等分割償還한다는 조건도 不實企業 정리사상 유례를 찾아 볼수 없으면서 여기에다가 利子까지 일체 받지 않은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더욱의혹을 남게 했습니다. 韓進이 항우케 된

利得이란 負債蕩減額 4,207億에 引受條件上의 利得을 합쳐 2兆4,639億에 이룬다는 計算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첫째 負債蕩減額 4,207億 원을 이에 대한 利子를 蕩減해주었을때 이를 다른 企業때와 같이 10年据置 10年分割償還으로 받을 경우 7,014億원을 부담하게 되어야 됩니다.

두번째 元金만 갚기로 한 負債 3,732億을 20年分割 引受하고 15年間 받지 않을 때 대한 利子를 計算하면 1兆508億이 된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3,731億원을 15年 동안 分割償還할 때도 利子를 한푼 받지 않기로 하였는데 利子를 받는다고 가정해서 계산하면 2,917億 원이 됩니다. 이러한 金額을 모두 합할 경우 計算上으로 2兆4,639億이라고 하는 金錢上의 특혜가 주어진 것이 됩니다.

이와같이 많은 壓力과 脅迫을 받아 가면서 事業을 포기했습니다.

또 이러한 特惠를 주면서까지 引受를 하도록 한 내막에는 많은 의혹을 國民들은 갖지 않을 수 없으며 78個 不實企業整理를 하면서 直接 間接으로 10兆원에 가까운 金融支援을 함으로써 國民 個人當 22萬원이라는 負擔을 갖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 政治權力者는 이에 대한 각성과 國民 앞에 사죄하고 對策과 方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本委員의 質問을 마치고자 합니다.

(李基澤委員長, 姜信玉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姜信玉 다음 平和民主黨의 朴相干委員 質問順序가 되겠습니다.

○朴相干委員 朴相干委員입니다.

지금 鄭一永委員께서 長時間 訊問하였기 때문에 本委員은 정리하는 입장에서 대략 물어 보겠습니다.

이 大韓船洲에 대한 不實企業 整理過程이 세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稅務査察과 海運社에 대한 特別支援 對象에서 제외된 다시 말하면 不實企業整理 이전에 大韓船洲에 불이익한 先行措置가 있었다는 점

두번째는 不實企業 整理節次가 大韓船洲의 경우는 다른 會社와 달리 특이한 점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세번째로는 引受企業인 韓進側에

사상의 負債蕩減 등이 이루어졌다는점 등 이 세 가지 특징을 들 수가 있는데 時間關係로 政治的인 이유로 稅務査察과 海運會社 特別支援이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整理節次의 特異性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大韓船洲에 대한 不實企業整理가 法的으로 有效하느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딱딱하지만 法律的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5共和國時節에 행하여진 不定企業 整理節次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株式이 主去來銀行에 확보되어가지고 引受企業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株式이 讓渡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產業政策審議會議에서 合理化計劃이 확정됨으로써 租稅減免과 負債償還猶豫 혹은 負債의 免除등 이런 여러가지 合理化措置로 企業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두가지 큰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具體的으로 大韓船洲의 경우를 보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大韓船洲의 主去來銀行인 外換銀行이 不實로 지정이 된 大韓船洲의 株式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主去來銀行이 不實企業의 株式을 취득해서 그 處分權을 확보한 이후에 다른 企業에 이리이렇게 인수하겠소 하고 產業政策審議會議 合理化計劃에 넘기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株式을 취득하지 못했어오, 그래서 產業政策審議會議에서 假契約에 기초해서 產業合理化計劃을 확정합니다. 假契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主去來銀行이 大韓船洲의 株式을 취득해야 되는데 취득을 못했으니 앞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겠습니다. 취득을 하겠으니 產業政策審議會議에서 引受企業인 韓進에 이러한 特惠를 주시오 하고 계획을 짜기 위해서 假契約書가 필요한 것이어오.

그 다음에 이 假契約書를 해놓고 최종적으로 株式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株式을 취득하려고 했더니 大韓船洲의 株式중에 81.8%가 서주産業이라고 하는 大韓船洲의 系列企業의 서울信託銀行外 9個의 다른 金融機關에 대한 擔保로 다른 銀行에 質權이 설정되어 있었어오, 그래서 그 擔保된 株式을 빼앗아서 外換銀行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어오, 그래서 그 外換銀行이 그 株式을 韓進에 넘

거야 비로소 大韓船洲라고 하는 企業이 韓進에게 名實相符하게 引受가 될 수 있다 해서 이루어진 온갖 犯法節次가 방금 鄭一永委員이 물은 여러가지 사항입니다.

저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大韓船洲의 主去來銀行인 外換銀行이 쉽게 不實企業整理를 하기 위해서 尹錫民씨와 證人에게 株式에 대한 拋棄覺書를 요구했을텐데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尹錫詐 그렇습니다. 86年10월에 尹錫民會長이 나보고 辭表를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왜그러냐 했더니 당시 鄭寅用이가 辭表를 써내지 않으면 會社에 金融을 끈겠다고 한다. 그리니까 나보고 辭表를 써줘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당신이 辭表를 써주지 그러느냐 그러니까 네 自筆署名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 이름대로 써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金斗煥이한테 피해를 보더니까...

○朴相千委員 株式을 讓渡하라는 요구를 받은 일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證人 尹錫詐 그래서 추후에 株式의 拋棄覺書보다도 會社의 전반적인 포기 이것에 대해서 署名해 달라고 여러 차례 받았습시다.

○朴相千委員 이의 관련해서 아까 證人이 말씀하신 87年3月初에 外換銀行의 大韓船洲管理團長인 최승낙이 찾아와서 협박한 일 있지요?

○證人 尹錫詐 예.

○朴相千委員 그 뒤에 또 87年5月1日과 5月22日 두 차례에 걸쳐서 安企部의 安家로 끌려간 적이 있지요?

○證人 尹錫詐 예.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렇게 끌려가서 어떻게 협박을 받았습니까?

○證人 尹錫詐 產政審議會가 不法으로 통과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 合理化시켜서 당시 外換銀行 최승락理事가 3月30日 전에도 찾아와서 拋棄署名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끝난 후에도 여러 차례 와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해주기 때문에 당시 財務部長官 鄭寅用씨가 安企部에다 의뢰를 해서 尹錫民을 잡아다가 자기들이 작성한 假契約書를 合法化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당시 張世東安企部長이 尹錫民씨를 잡아다가 지하실에

다 끌어다가 당장 이런 拋棄覺書를 받아내라 했을 때 第1次長이 尹錫民會長을 두 차례에 걸쳐서 拋棄覺書를 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래서 써주었습니까?

○證人 尹錫詐 써주지 않았습니다.

○朴相千委員 이번에 尹錫民씨가 拘束令狀이 발부되어서 수배중에 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 못나왔습니다마는 手配犯罪事實인 外貨逃避 이것을 가지고 협박을 했지요?

○證人 尹錫詐 예.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리고 또 87年5月頃에 銀行監督院長이 협박한 사실이 있지요? 어떻게 협박했습니까?

○證人 尹錫詐 위에서 하는 일이나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企業을 포기하지 않으면 統治權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가 포기하다 그리고 평생에 먹고 살 돈을 주겠다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한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朴相千委員 애초에 政府에서는 全大統領의 뜻을 받들어서 간단히 尹錫民씨 또 證人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大韓船洲 株式을 양도받아서 간단히 끝을 맺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證人하고 證人의 밑에서 끝까지 株式讓渡를 하지 않으니까 法的으로 절차를 취해 갑니다.

그 첫 단계가 假契約書입니다. 87年8月31日字에 外換銀行과 會社法人體인 大韓船洲가 尹錫民씨와 그 家族의 소유로 서주산업의 貨出金擔保로 다른 銀行에 質權이 설정되어 있는 株式 81.8%를 공동노력해서 外換銀行이 취득케 하고 外換銀行이 이것을 韓進에게 넘기고 經營權을 引受한다 하는 내용의 假契約書를 만들지요? 이것을 外換銀行管理團長인 최승락理事가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당시 大韓船洲의 代表理事인 한상권씨의 날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證人께서는 한상권씨는 도장찍은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강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尹錫詐 한상권씨는 大韓船洲 株式을 한株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代表理事 社長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또 大株主가 會長 또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 얘기없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찍어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會社의 理事會를 통과시키고 거기서 결정해서 하는 일이고 또 理事會라든지 代表理事가 어떻게 남이 가지고 있는 株式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준다는 그런 假契約을 할 수 있는 성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래서 證人 말씀을 한상권씨는 株式 한株도 없는 雇傭社長인데 會社業務만 처리하지 大韓船洲의 株主들로부터 株式을 사서 外換銀行에 넘겨 준다는 약속을 할 입장에 있지 않다 또 그런 職責에 있지도 않고 또 하나는 會社의 經營權을 넘길려면 理事會와 株主總會의 決議가 필요한데 그 당시 理事會와 總會가 소집한 일이 있습니까?

○證人 尹錫昨 전혀 없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리고 한상권씨는 자기는 도장을 찍어 준 일이 없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本委員이 外換銀行에 文書檢證을 갔을 때 이 최승락씨가 있기에 물었더니 管理團에서 代表理事職印을 보관하고 있어서 자기가 職員을 시켜서 찍었는데 다만 한상권씨의 口頭同意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상권씨는 口頭同意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한상권씨가 口頭同意를 한 일이 없다고 한 것이 정확한 것이 만일 口頭同意를 했으면 會社代表理事인 한상권씨는 당연히 株主總會와 理事會를 열었어야 했을텐데 그런데 열지 않은 점을 보아서 한상권씨가 代表理事職印을 假契約書에捺印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尹錫民씨하고 證人등 大株主들이 系列社인 서주산업의 銀行 貸出金에 대한 擔保로 서울 信託銀行外 9個의 金融機關에 質權을 설정해 둔 大韓船洲 株式81.8% 이것이 서울 信託銀行外 9個 銀行의 質權實行으로 인해서 外換銀行으로 넘어 갑니다. 넘어 가는데 다 넘어가지 않고 81.8%중에서 72.5%만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證人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길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잘라서 물겠습니다.

그때 大韓船洲의 系列會社인 서주산업의 서울 信託銀行外 9個 金融機關에 대한 貸出金이 期限이 到來했습니까 안 到來했습니까?

○證人 尹錫昨 거의 다 到來되지 않았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때 貸出金이 總 얼마였지요?

○證人 尹錫昨 396億이었습니다.

○朴相千委員 總396億중에서 360億이 期限이 到來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證人 尹錫昨 10個 金融機關 중에서 3個 정도가 期日이 일부가 到來되어 있었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런데 이 株式을 擔保權을 實行해서 株式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拋棄覺書 쓰라니까 안쓰니까 말이야... 그런데 擔保權을 實行하려면 그 貸出金 辨濟期限이 돼야 擔保權 實行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런데 辨濟期限이 안되었다 말이에요. 辨濟期限이 안되니까 財務部側에서 어떤 꾀를 냈느냐고 하면 이 財務部에서 合同會議을 엽니다. 銀行幹部를 오라고 그리고 外換銀行 幹部도 오라고 그리고 또 財務部 理財局長室에서 會議을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꾀를 냈느냐 하면 요즘 銀行들이 貸出할 때 이런 條項이 있습니다 [辨濟期가 안되더라도 그 擔保物에 대해서 다른 債權者로부터 假押留가 들어오면 期限의 利益을 喪失한다]하는 條文이 있습니다.

이것 무슨 소리냐 하면 그때는 辨濟期가 안되더라도 즉시 辨濟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擔保權을 實行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外換銀行이 各 市中銀行등 열군데의 金融機關이 가지고 있는 尹錫民씨나 證人의 株式에 대해서 假押留를 해버리자 그러면 辨濟期가 안되었지만 辨濟期가 되었다고 해 가지고 擔保權을 實行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假押留를 한 것이 언제냐 하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證人 尹錫昨 87年4月...

○朴相千委員 4月4일이지요?

○證人 尹錫昨 예.

○朴相千委員 4月4日 이 假押留를 일제히 합니다. 그런데 이 4月4日 假押留하기 전에 外換銀行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고 하면 제가 이번에 文書檢證班에서 보았더니 그 열 個 銀行과 金融機關에 外換銀行이 무슨 公文을 보냈느냐고

하면 서주산업이 貸出金を 갚겠다고 해서 돈을 갚거나 지금 尹錫民씨나 尹錫祚씨 株式을 다른 擔保物로 代置한다고 요청해오면 일체 許可해 주지 마라 하는 公文을 보냅니다. 그래야 그 株式을 뺏을 수가 있으니까...

○證人 尹錫祚 예.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貸出金を 갚아버리면 株式을 찾아가 버리니까 뺏을 수가 없다 말이야! 그런 公文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4월4日 假押留를 해서 期限의 利益을 喪失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債權을 擔保權을 實行해야 되는데 擔保權을 實行할 때 그 서주산업에 돈을 갚으라는 公文을 보냅니다.

그런데 公文이 언제 왔었습니까?

○證人 尹錫祚 4月末頃에 한 이틀 남겨놓고 온 것이 있습니다.

○朴相千委員 이 公文날짜를 이번 文書檢證에서 보았더니 87年5月1日자로 發送을 했어요. 各 銀行이... 서울信託銀行外 열 個 銀行이 서주산업 보고 우리한테 貸出金 찾아간 것 假押留들어왔으니 아직 辨濟期가 안되었지만 빨리 갚으시오 하고 辨濟催告를 합니다. 辨濟를 促求한다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5월1일에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87年5月7日까지 돈을 갚으라는 것이에요. 369億이라는 돈을 6日만에 갚으라는 것인데 싫지 證人! 서주산업에서 催告書를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5月1日 發送한...

○證人 尹錫祚 文書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신문에만 보았지 文書를 진짜 받은 것은 늦게 받았습니다.

○朴相千委員 실지로는 3·4日前에 받았지요?

○證人 尹錫祚 예.

○朴相千委員 3·4日前에 369億원을 갚으라는 銀行으로부터의 독촉을 받았지요?

○證人 尹錫祚 예.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래 갓았습니까?

○證人 尹錫祚 못 갓았습니다.

○朴相千委員 못 갓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證人 尹錫祚 그냥 뺏겼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렇지 않지요. 그당시 假押留에 대한 異議申請을 했지... 辯護士를 선임해 가지고 假押留에 대한 異議申請 했어요? 그

랬지요?

○證人 尹錫祚 예.

○朴相千委員 異議申請을 하고 돈을 미쳐 준비가 안 되어서 못 갓고...

○證人 尹錫祚 저 朴委員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尹錫民하고 尹錫祚 이름으로 된 것만 外換銀行이 假押留措置를 했습니다. 28%하고 9%에 대해서 37% 정도만 假押留를 했고 그래서 그것 부분만이 사실은 期限의 利益의 喪失을 받은 부분이지 나머지 關聯税金들에 대한 株式은 사실 期限의 利益의 喪失을 받을 수 있는 假押留나 어떤 조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尹錫民이나 尹錫祚 株式과 같이 그대로 처분해서 뜯어 갔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런데 銀行貸出할 때 契約書를 보면 하나가 假押留를 받으면 다 期限의 利益을 喪失한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물론 자기들 마음대로 印刷된 文字지마는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證人會社 서주산업에서 돈을 못 갓으니까 이 質權을 實行해가지고 擔保權을 實行해서 株式을 취득을 했습니다 銀行들이... 취득을 해가지고 87年5月12日에 이것을 外換銀行한테 일괄해서 넘깁니다. 各 열 個 銀行에서 일제히 外換銀行한테 팔았어요. 팔아서 外換銀行이 株式을 취득하는데 방금 여러가지 사정으로 株式의 81.8%를 다 취득을 못 하고 72.5%밖에 취득을 못 합니다 그렇지요?

○證人 尹錫祚 예.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런데 아까 產業政策審議會에서 확정된 假契約書를 기초로 한 不實企業合理化計劃書 거기에는 外換銀行이 株式의 81.8%를 취득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72.5% 밖에 취득을 못 하니까 88年2월에 다시 產業政策審議會를 열어가지고 그전에 取得株式比率를 81.8%에서 72.5%로 바꿈시다 하고 결의를 해요.

그런데 그 決議에 產業政策審議會의 規定에 보면 定員의 3분의2가 출석을 해야 開議를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定員이 열세 명입니다. 長官들이... 열세 명 인데 그때 여덟 명 밖에 출석을 안 해가지고 3분의 2가 출석을 안 했으니까 무효라고 지금 證人의 辯護士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

갔는데 이 全體株式의 72.5%에 해당하는 이株式에 대해서는 株式價格을 얼마로 쳐서 擔保權이 실행이 됐습니까?

○證人 尹錫昨 그 당시에 417원에 外換銀行이...

○朴相千委員 그것이 어떤 價格인가요?

○證人 尹錫昨 그 당시에 會社가 公開企業이 있습니다마는 고의적으로 좌우간 값을 낮추어 가지고 417원에 公賣해 갔습니다. 外換銀行이 金融機關한테...

○朴相千委員 그것은 株式市長의 上場價格입니까? 그 당시에 株式價格이요?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1個月後에는 그 값이 980원으로 두 배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너무 專門인 것이 되어서 실명을 주로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문젯점을 정리를 합니다. 그 銀行이... 물론 財務部가 시킨 일이고 또 財務部는 그 당시 大統領이 시킨 일입니다마는 銀行이 아직 債權 貸出金 辨濟期가 안된 貸出金에 대해서 도중에 갚아라 더구나 그것도 한 3·4日內에 갚아라 하는 公文을 보내가지고 이 辨濟期를 앞당겨버린 것 이것은 소위 權利의 濫用입니다. 또 刑事的으로 보면 職權濫用이요. 刑法에 있는 職權濫用罪라는 죄입니다. 公務員이 그 職權을 濫用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義務가 없는 일을 행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 義務가 없는 일을 모두 시킨거예요. 이렇게 했고 또 催告期間은 銀行에서 보통 빚값이라고 독촉할 때 얼마의 期限을 줍니까?

○證人 尹錫昨 최소한도 3個月 정도 6個月 정도는 줍니다.

○朴相千委員 3個月 내지 6個月씩 기한을 주던 것을 3日 내지 4日만에 전부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法的으로 보면 銀行이 빚값으라고 그럴 때 기한을 많이 주던 적게 주던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金融秩序에 현저히 위반되는 것이고 넓게 보면은 社會秩序 우리나라 經濟界를 떠받치고 있는 오랜 관행 이런 것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이 株式에 대한 質權行使는 세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것이 무엇 무엇이나고 하면 첫째는 아까 말

씀하시는 것이고 두번째는 株式市場에 上場해서 차분하는 것 세번째는 第3 債務者에게 직접 추심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을 지금 株式市場價에 決價를 해서 잡았습니다.

○證人 尹錫昨 資本市場에 上場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朴相千委員 아니 證券市場에 있는 上場價格...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런데 이 株式이 아까 사백십 얼마인가 하는 돈이 價格이 결정되어서 취득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점이 억울합니까?

○證人 尹錫昨 저희들은 원래 78年度에 大韓船洲를 인수받을 때 5倍 이상의 株式經營權을 붙여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배가 여섯隻 밖에는 안 되었었습니다마는...

○朴相千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證人의 말씀은 株式을 가령 100萬株 중에서 1萬株를 살 때 같은 때 10%나 20%를 살 때는 證券市場의 株式價格으로 사면 되지만 50%가 넘는 다시 말해서 經營權을 가져오는 株式을 살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보통 5倍내지 10倍가 붙고 있지요?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런데 이 사람들 株式 가져갈 때 그런 프리미엄 하나도 없이 上場價로 계산해서 가져갔다 그것입니다 經營權까지...

○證人 尹錫昨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算術的으로는 자기들이 맞을지 모르지만은 經濟界 現實로 보면 5배 내지 10배 프리미엄을 大韓船洲主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지금 株式을 가져 갔어요.

○證人 尹錫昨 예 예.

○朴相千委員 이 점도 不法이고 또 銀行들 중에 지금 貸出金보다 더 많이 株式을 가져간 銀行이 있다는 데 어디어디 입니까?

○證人 尹錫昨 大韓相互信用金庫하고 몇 個가 貸出金보다... 貸出金은 예를 들어서 3億인데 株式은 한 6億내지 8億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을 그대로 다 주어버렸습니다.

○朴相千委員 지금 財務部長官의 지시로 大統領令을 받은 財務部長官 指示로 부랴부랴 이 일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忠北銀行 大韓相互信

用金庫 大韓生命保險 이 세 會社는 담보로 받은 株式價格이 아까 같이 市場價額으로 계산하더라도 자기를 貸出金보다 훨씬 가격이 많은데 거기에 해당하는 貸出金과 그 利子에 해당하는 株式만 팔아야 될 것인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株式 전부를 팔아버렸지요?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래서 그 株式價格이 貸出金보다 훨씬 많은 남의 株式를 팔아 버렸어요. 놀래 가지고 바빠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지요?

○證人 尹錫昨 조그마한 金融機關이라 위에서 시킨 것이라 그렇게 不法을 자행했어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朴相千委員 이런 不法이 또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너무 딱딱하니까 그만 둡시다. 그만 두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당시 統治權者가 빨리 株式를 빼앗아서 이리 귀라 이러니까 政府의 經濟企劃院 審議會 議長이다 財務部長官이다 하는 사람들이 놀래 가지고 外換銀行長을 통해서 움직인다 말입니다. 그러면 末端 忠北銀行이다 大韓信用金庫다 이런 데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방금과 같은 도저히 평소의 經濟慣行으로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 또는 法規에 어긋나는 일 이런 일이 빈번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앗아서 넘긴 것이예요. 그렇게 해서 韓進으로 소유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法の 형식만 밟으면 타당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法에 의거한 계약의 내용이 우리 美風 良俗에 맞아야 되고 또 그 經濟界의 오랜 慣行에 맞을 때 유효한 것이자 자기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아까와 같이 남용해서 전혀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소위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라고 해서 혹은 權利濫用의 法律行爲라고 해서 지금 無效로 치고 있는 것이 世界各國 法院의 判例이고 우리 大法院도 그런것 인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法院에서 판가름할 일이니가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봅시다. 왜 당시 政府側은 이렇게 무리하게 방금과 같은 여러가지 不法을 저지르면서 무리하게 大韓船

洲의 不實整理를 大韓船洲를 韓進에게 넘기는 일을 무리하게 急進度로 진행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證人 尹錫昨 2次 海運産業合理化支援政策에 나오게 되면은 도무지 빼앗아서 다른 쪽에 줄 명분을 잃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기기에서 不實이 심하게 됐다는 명분을 해가지고 빼앗아 갔을 뿐만 아니라 87年末까지 거의 全斗煥씨가 임기가 끝나치니까 또 87年末 쯤에 경기가 굉장히 상승되기 시작했습니다. 海運 景氣가...

오늘날에 와서는 韓國海運船社들은 다 黑字로 전환이 되어 있고 몇 1,000億씩 社內유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大韓船洲를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서 韓進쪽에...

○朴相千委員 지금 證人 말씀은 두 가지구만요.

하나는 全大統領의 임기가 88年2月 며칠이 었지요?

○證人 尹錫昨 25日...

○朴相千委員 자기 임기 전에 大韓船洲를 어떻게든지 빼앗아서 다른 데다 주어야 되겠다...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大統領職에 있을 때...

거기에 맞추려고 보니까 무리한 절차가 제시되어서 辨濟期間을 3日이나 6日밖에 안 주고 말아야 절차도 잘 안밟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말아야.

또 하나는 이것은 아마 證人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제가 이번에 공부 좀 하니까 도표를 보았더니 87年度부터 世界海上 運貨이 上昇曲線을 긋고 있대요 그래서 조금 늦추면 잘못해서 大韓船洲가 자기 힘으로 되살아 날 염려가 있다말이야 자기 힘으로 되살아 나서 不實로 도저히 지정할 수 없는 사태가 올지 모른다 그러니 不實에서 헤어내기 전에 負債를 정리하기 전에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빨리 정리하자 이런 취지라는 것이지요.

두번째 이유는 證人이 말씀하신 이유고 첫 번째 것은 저도 수궁이 갑니다 뒤의 것이 맞는지 어쨌든 제가 그 방면에 專門家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引受企業에 대한 여러가지 특혜를 鄭委員께서

자세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銀行은 이렇게 막대한 負債를 탕감시켜 주고 어디서 손실을 보상 받습니까?

○證人 尹錫昨 그것은 어차피 韓銀金融特融 내지 그렇게 된다면은...

○朴相千委員 韓銀特融으로 보상을 받았지요?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朴相千委員 그래서 결국은 이런 不法的인... 不法的이라기보다는 無法的인 財產權 奪取 도 特定企業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결국은 國民의 税金負擔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부분은 다른 委員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證人의 會社에 대한 政府 5共和國 措置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은 우리 大韓民國의 이것이 自由經濟體制의 나라인지 아니면 官權抑壓經濟體制의 나라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銀行 돈 쓰겠습니까? 銀行에 擔保만 되어 있으면 언제 뺏길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銀行이 銀行貸出金利規定과 또 각급 慣行 또 法規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아직 辨濟期도 되지 않은 貸出金을 기한에 이것을 상실시켜가지고 辨濟期를 앞당겨서 이렇게 집행해가지고 뺏아가기 시작하면은 國民들은 안심하고 銀行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政府權力이 各企業에 具體的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소위 自由經濟體制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왜곡된 官權資本主義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共 청산한다고 고생하는데 빨리 이러한 慣行을 뿌리 뽑지 않으면 지금 現段階의 우리나라 經濟發展水準을 봐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經濟發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個個企業에 대해서 이런 非理를 폭로함으로써 指導層에 대해서 경각심을 고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姜信玉 統一民主黨의 金東圭委員 質問하시겠습니까.

○金東圭委員 앞서서 두 委員께서 문제점을 거의 짚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大韓船洲 引受事件이 全斗煥大統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

든 會議 날짜와 文書를 근거로 해서 한번 입증을 해 보면서 證人께 몇 마디 물어 보고자 합니다.

두 委員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형태씨 件이라든지 政治資金問題라든지 또 그후에 2次 海運合理化措置에서 유일하게 발표까지 했다가 제외했다든가 또 產業政策審議會가 定足數未達 인데도 議決했을 뿐만 아니고 尹錫民 會長에 대해서는 심지어 國會議員職을 임기전에 박탈하고 또 立候補한 사람까지도 강제로 사퇴시키고 또 捺印을 안한다고 그래서 그전에는 安企部에 몇 번씩 끌고 가서 강요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이것이 全斗煥大統領 지시없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하는 얘기는 지금 證人도 各委員의 質問에 答辯하셨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假契約書가 체결된 것이 87年3月31일입니다.

그런데 靑瓦臺會議가 있었던 날이 87年3月24日에 당시 鄭寅用 財務部長官이 靑瓦臺에 가서 全斗煥씨의 事前指示에 의해서 작성한 大韓船洲整理方案이라는 것을 報告를 했습니다.

3月24日 이미 事前에 지시를 받았겠지만은 文書로서 報告해서 決裁를 맡은 것은 3月24日입니다. 그러가지고 3月30日 財務部長官 鄭寅用이 서울信託銀行長 具己煥이 등 7명이 모여가지고 對策會議를 했습니다.

그리고 同日字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財務部의 產業金融課長 김우석씨를 비롯해서 또 關係者 7명이 롯데호텔에서 밤 12시까지 對策會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對策會議에 나온 원본이고 사인한 것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첫째 韓進의 大韓船洲引受案件을 產業政策審議會에 빨리 부의한다 여기 날짜까지 박혀있습니다. 4月3日 產業政策審議會에 부의한다 이렇게 첫번째 條項이 되어 있고 둘째 外換銀行과 韓進間 그러니까 뭐 이미 다 정해진 것입니다.

外換銀行과 韓進間 引受契約 체결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外換銀行이 현재 大韓船洲 株式保有 全無狀態니까 한 株도 없으니까 契約當事者로서의 要件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자기들 會議案件에서 자기들 자신이 인

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信託銀行 外 9個 金融機關이 西洲産業 및 大韓船洲에 대한 與信擔保로 취득하고 있는 株式總發行株式의 85.1%입니다. 外換銀行이 讓受를 해야겠는데 이를 위해서 1次로 87年3月31日 그 이튿날 서울信託銀行外 4個 銀行保有株式 이것이 45.3%입니다. 이것을 擔保權 실행을 위해 外換銀行에 賣却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가지고 31日 假契約이라는 것을 체결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形式論理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한 5個 銀行 이외에 5個 金融機關도 追後 같은 방법으로 保有株式을 外換銀行에 賣却토록 해서 87年12月17日 本契約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비추어 볼 때 大韓船洲에 대한 韓進의 株式讓渡는 완전히 靑瓦臺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입증하는데 尹證人은 本委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錫昨 존경하는, 金委員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허위로 만들어졌던 假契約 書를 본 일도 없었고 안 일도 없었습니다. 5共特委에서 그 書類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주었기 때문에 누가 署名을 하고 누가 조작을 해서 株權을 그렇게 탈취해가고 金融條件을 붙여서 다른 會社에다가 팔아넘기는 書類였었던 것을 전혀 몰랐었다가 이번 5共特別委員會에서 書類를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事項에 대해서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고도 사실인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金東圭委員 그 당시 大韓船洲整理方針이라는 것을 靑瓦臺에 報告할 때 韓進에 引受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들러리로 朝陽商船보고 한 번 내보라 해서 朝陽商船이 引受條件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朝陽商船이 財務構造도 월등히 낫습니다. 소위 第一生命 天一高速등 알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不實한 소위 韓進海運에다가 政治的인 결정에 의해서 이것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特惠條件이

제시되어가지고... 파격적입니다. 世間에 의혹을 사게한 것은 그 24日 靑瓦臺報告에서부터 시작해서 30日 財務部長官 關係對策會議 그날 밤에 理財局長室에서 열린 關聯對策會議 이래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假契約을 체결하고 이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調查結果 알아낸 대로 全斗煥大統領 李源祚銀行監督院長 韓進 趙重勳會長이 政治的 恫정으로 결탁되었다고 확신하는데 尹證人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尹錫昨 저희들도 당초에는 銀行監督院長 李源祚씨는 大韓船洲不實整理에 깊숙히 관여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檢察에서 3,600萬弗에 대해서 財務委國政監査時 10月24日 尹錫民會長을 證人으로 출두시켰을 때 14日하고 15日 李源祚씨가 證人으로 출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 李源祚가 그래도 새로운 6共에도 상당히 힘을 쓴다는 사람인데 이것이 또 이렇게 나서서 우리를 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려움 속에서 다시 헤어날 수 없지 않겠느냐 했을 때 당신이 證人에 호출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만나갑니까? 하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0月18日 3,600萬弗 유용 또는 뭐냐하면 社外流出에 대한 대대적인 新聞報道와 外換銀行의 國政監査時에 崔昇洛 理事라는 사람이 발설함으로써 言論에 대대적으로 報道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 깊숙히 李源祚씨가 介入되었다고 저희들은 감을 잡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5共特委에서 銀行監督院의 不實企業整理에 대한 싸인을 받아... 李源祚씨가 사인한 것이 大韓船洲에 7,993億이 負債라고 하더니 거기에 1,000億의 特惠金融을 더 붙여가지고 大韓船洲의 總 負債가 8,990億으로 만들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李源祚銀行監督院長이 깊숙히 大韓船洲의 不實整理에 대해서 어떠한 마지막의 일은... 당시 財務部長官 鄭寅用씨가 이를 작업을 했고 그트머리 어떠한 政治資金아든 어떠한 資金을 챙긴 것은 분명히 李源祚씨가 작업한 것으로 證人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東圭委員 그러면 尹錫民會長이 國會財務委員會에서 그 당시 뭐를 證言하셨느냐 하면은 李源祚前監督院長으로부터 충분히 먹고 살 것

을 해 주겠다 기타 등등을 懷柔條件으로 내세운 사실이 있다고 證言한 바가 있습니다.

○證人 尹錫祚 예. 그렇습니다.

○金東圭委員 그런데 그 제시한 조건이 市中에 소문나기로는 현찰 50億하고 西洲産業에 대한 무슨 特惠條件을 붙인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尹錫祚證人는 그런 사실을 들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證人 尹錫祚 西洲産業은 87年9月14日에 外換銀行에 의해서 不渡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法廷管理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는 約 30年間 無利于措置로 西洲産業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줄테니까 이 大韓船洲에 대한 포기가서를 써내라는 것은 제가 정식으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고 50億에 대해서 돈을 준다 또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 하는 것은 尹錫民會長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전달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金東圭委員 그리니까 이것은 우리 特委 聽聞會에서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李源祚 前監督院長이 뭐가 구린 것이 있길래 이미 法定管理로 들어가 있는 會社를 몇 十年씩 措置期間 두어서 償還猶豫시켜 주어서 너희들한테 돌려 주겠다 그리고 현찰로 먹고 살 것 따로 주겠다 이것이 提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저는 不實企業整理疑惑을 파헤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外換銀行의 崔昇洛理事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이 假契約書를 한상문社長한테 도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管理團의 부하한테 시켜서 찍었다고 인제는 확실히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장본인이...

尹錫民씨가 3,600萬弗의 外貨를 橫領했다 이렇게 新聞에 흘렸습니다.

그 후에는 社外流出이다 또 이런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檢察에서 조사해서 尹錫民會長을 拘束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外貨流出嫌疑는 어디로 가버리고 별 혐의가 없는지 記事만 봤습니다마는 뚜렷하게 잘 안나오고 단지 소위 秘資金을 만들어 써서 다시 말하면 會社들은 橫領한 부문을 가지고 36億이라고 그러던가 얼마라고 新聞에 났던데 이것을 가지고 罪目으로 잡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會社 쳐놓고 이제까지 政治資金을 저렇게 뜯기는 판에 秘資金을 會社에서 안 만들어가지고 뒷돈을 運用안하면 오늘날에 大企業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사실이다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고쳐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다면 다른 大企業과 비교해서 조사를 하려면 그러면 秘資金을 뒤로 만들어서 한 규모가 尹錫民會長이 제일 크냐 鄭周永會長이 더 했느냐 따져가지고 사람을 삼아 넣어도 삼아 넣어야 할 것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尹證人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尹錫祚 年間 저희들 會社의 運賃賣出이 4,000億씩 됩니다 그런데 4,000億 중에서 領收證이 없는 부분만 골라가지고 그것도 81年서부터 86년까지 約 7年間に 걸친 會社에 領收證이 없는 부분이 約 53億된다고 해서 檢察이 이번에 그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事前 拘束令狀을 청구해서 매냈습니다.

그런데 會社에 가지고 있는 장부를 전부 들여다 봐서 그것을 6個月이 걸리는지 1년이 걸리는지 그것을 전부 맞추기 전에는 그러한 資金의 행방을 맞출 수가 없는 것만 골라가지고 또 告訴 告發도 없는 事件을 大檢中央 搜查部가 어떻게 5共和國時節에 會社를 빼앗겨서 눈물을 흘리는 이 被害者에게 어떻게 5共和國 主犯들을 다루는 그런 데에다가 몰아넣어서 이렇게 다시 잔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부당한 일 아니겠느냐 그러한 것에 대해서 뒤에 조종하는 사람들은 과거 5共和國에 너무나 엄청난 不正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조종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앞서서 출추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特別檢察制가 만들어져서 조사가 되어서 원인규명이 되기를 기다렸었습니다마는 오늘날 상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이러한 聽聞會속에서라도 이러한 진실을 규명하고 말씀을 드릴 수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더욱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金東圭委員 그리고 趙重勳씨가 88年12月인가 檢察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選舉前에 50億원을 全斗煥大統領에게 헌납했다고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檢察發表에 나왔습니다.

또 사실로 나타난 것은 趙重勳씨가 大韓船洲株式을 引受할 때 韓進그룹에서 돈을 빼내 가지고 9億6,500萬원입니다마는 빼내서 아들 조 수 이름으로 株式을 매입을 했습니다 아들 會社를 만들었지요.

또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적어도 趙重勳씨가 이러한 大韓船洲같은 엄청난 引受를 假契約을 했든 이러한 本契約을 체결할 때는 적어도 尹會長이나 尹社長에게 契約에 동의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大財閥의 總帥라면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확인해 보았어야 될 것이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현재까지 나타난 韓進의 日海財團 새세대育英會 새마을誠金으로 낸 基金額數가 84億으로 알려졌는데 檢察調査에서 거기서 이디다 썼는지는 모르지만 各種 誠金으로 낸 돈이 275億원이라고 적어냈다 이것입니다.

이것 誠金으로만 낸 것이 이 정도다 나는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市中에서는 大韓船洲 引受特惠와 관련하여 1,000億원 이상의 政治資金이 들어갔다 金斗煥이한테 들어갔다.

또 大韓航空의 飛行機 도입시 飛行機 도입할 때 반드시 리베이트가 外國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받은 1億 달러를 金斗煥 前大統領에게 전해줬다 하는 설이 공공연하게 지금 떠돌고 있는데 尹錫祚證人은 企業을 경영해 본 사람으로서 이만한 일이 벌어지려면 이만한 政治資金이 거래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尹錫祚 大韓船洲를 趙重勳씨가 引受하면서 단 일원 한 장의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大韓船洲의 債務를 7,937億을 완전히 銀行에 떠다 밟아서 金融資産을 축내 버려 놓았기 때문에 大韓船洲의 資産 7,000億 원을 몽땅 자기가 그대로 받고 자기 不實 韓進海運에 대해서 4,500億원에 대한 金融特惠를 받고 또 이렇게 1,000億씩의 特別支援를 받으면서까지 돈을 안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00정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한 1,000億 내지 2,000億 정도의 資金이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6年10月부터 87年12月31日까지

大韓船洲를 引受해 가면서 돈의 韓進 그룹의 움직임 10億원짜리 이상 당하여음 또는 발행이음에 대해서 이것을 당좌원장을 조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어디로 얼마나 샀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기의 소유주식 또는 자기 회사의 證券會社에서부터 주식으로도 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을 추적을 해준다면 國內에서 최소한도 7·800億의 돈이 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海外部分에 대해서는 이 國會次元에서든지 아니면 政府에서 美國財務部の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金斗煥씨한테 KAL이 보잉 사로부터 살 때는 리베이트 관계를 얼마를 주었고 기백을 어디다 해 주었는지를 依賴하게 되면 바로 여기서 質疑에 대해서 答辯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誠意를 보이고 확실하게 좀 더 노력을 해준다고 그런 것 같으면 과거 이 얼룩졌던 이 5共和國時節의 가장 큰 非理를 분명하게 짚출해 내서 다시는 이러한 적과 같은 억울하게 會社를 빼앗기고 누명을 쓰고 指名手配를 받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東圭委員 이장입니다.

○委員長代理 姜信玉 新民主共和黨의 崔戊龍委員 訊問하겠습니다.

○崔戊龍委員 新民主共和黨 崔戊龍입니다.

“大韓船洲 不法脫取의 全貌”라는 題下의 白書를 證人側이 市中에 發表한 事實이 있습니까?

○證人 尹錫祚 예, 그렇습니다.

○崔戊龍委員 이 내용 26 페이지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시 金斗煥大統領은 韓進 그룹에게 막대한 特惠를 주기 위해서 大韓船洲를 넘겨주고 대신 1億弗… 지금 金東圭委員께서 具體적으로 嫌疑點을 말씀을 해주셨습니까마는 1億弗 相當額을 海外에서 전대받았을 뿐만 아니라 國內에서 수백億의 金品을 受賄한 것으로 確信한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 確信한다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尹錫祚 고대로 訊問의 答辯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까마는 大韓船洲의 總資産의 價値로서 約 한 7,000億 이상의 大韓民國의 재일가는 海運船社로 年間 1,000億 이상의

受益을 올릴 수 있는데 負債를 7·800億을 졌다고 하더라도 年間 1,000億 이상의 受益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船社를 1원 한 장 없이 싹 빼져가지고 또 거기다가 1,000億씩 돈을 붙여서 주었다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金斗煥씨가 미치지 않으면 이러한 金融資產을 축내면서까지 이러한 부당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아나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 反對給付로 많은 金品을 囑取하기 위해서 자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崔戊龍委員 그것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證人의 말씀은 心證이 간다 이것이지요? 確信할 수 있는 어떤 物證은 없지요?

摘示할 수 있는 物證은 없는데 “大韓船洲不法脫取의 全貌”라고 하는 題下의 白書內容을 보면 분명히 그러한 金品受賂한 것으로 確信한다 이렇게 내세우셨거든요. 그러면 그 確信하는 부분의 內容을 분명히 여기에서 提示하실 수가 있어야지요...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證人 尹錫昨 여러 가지 情報 채널에 의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움직인 일에 대해서 확실한 거기에 대한 物證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가 잡아낼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情況으로 보아서 그러한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確信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崔戊龍委員 물론 글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그러한 心證은 가요. 그런데 뚜렷이 어떠한 物證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다...

○證人 尹錫昨 그래서 崔委員님! 제가 주장하기를 韓進「그룹」의 總當座元帳을 한번 調査해서 그 돈이 나간 1·200億이 아닌 제가 추정하는... 7·800億 巨額의 資金이 움직였을 것으로 推算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個人으로서는 그러한 書類의 證憑을 받을 수도 없고 閱覽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러한 特委에서 그것을 調査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美國의 割引部分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우리 個人

으로서는 美國의 ILS 國稅廳에다가 依賴를 한다 하더라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國家機關에서 依賴를 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答信이 오기 때문에 그 答信속에는 분명히 그러한 部分이 들어 있을 것으로 제가 確信해서 依賴를 하고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崔戊龍委員 예. 그래서 지금 證言하신 證言의 內容은 다 記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것은 訊問이 아닙니다마는 證人側에서 檢察總長 앞으로 이러한 陳情書를 내신 적이 있지요? 今年 1月末입니까?

○證人 尹錫昨 예. 今年 1月20...

○崔戊龍委員 1月23日字로요... 序頭의 章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國會 5共非理調査特委가 發足 철저히 調査하겠다고 나섰을 때 大韓船洲引受非理가 國會聽聞會와 國政調査를 통해 事件全貌가 철저히 파헤쳐질 것을 경건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時間이 지남에 따라 관계 國會議員들의 糾明意志는 약화되고 調査自體가 有耶無耶되면서 오히려 非理의 主役들의 뒷조정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다 알고 있다시피 非理關聯 主役들이 積極的인 對 國會「로비」활동과 5共殘滓勢力들의 비호에 힘입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밝히셨습니다.

물론 證人의 心情입니다 恨서린 그 恨도 압니다 그러나 그 恨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마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식으로 左衝右突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5共非理를 調査하겠다고 國民의 이름으로 構成을 한 우리 國會議員들이 特委의 委員들이 證人의 말대로라면 積極的인 對 國會「로비」활동에 關倒된 그러한 機構처럼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證人 尹錫昨 뭐 잘못 된 것이 있습니까?

○崔戊龍委員 잘못 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낭독해 드렸지요? 그리고 우리 國會議員들이 전부 다 이 「로비」에 말려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도 하나의 心證이 가는 것입니까?

○證人 尹錫昨 거기에는 여기에 參席이 안되어 있는 이 聽聞會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기 존경하는 委員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뻔히 본 것처럼 여기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떠한 所屬에 대한 委員님들은 또 參席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가지 각도로서 認識을 해주시면 ...

○崔戊龍委員 그러니까 本委員은 이 자리에서 마지막이라고 前提하고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證人이 證言을 하기 위해서 出席을 하고 있는 이 자리 이 聽聞會의 目的은 眞實을 듣는 것입니다. 5共特委의 目的은 非理를 파헤쳐서 眞實을 캐내는 것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裁判은 司法府의 固有權限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恨을 풀기 위해서 提示한 이러한 陳情書를 序頭에 밝힌 것이기 때문에 다소 격한 感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이 序頭의 이 말 이 語彙 이것을 다시 고칠 수 있습니까?

○證人 尹錫昨 고치겠습니다.

○崔戊龍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姜信玉 다음은 平和民主黨의 李東根委員 訊問하시겠습니다.

○李東根委員 李東根입니다.

이 자리 本 特委는 尹錫昨 前 大韓船洲社長을 出席시킨 가운데 訊問要旨대로 大韓船洲讓渡 強制性與否 大韓船洲 株式 擔保權行使 및 政府機關의 關聯與否를 要旨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我田引水格으로만 하시지 말고 보다 진솔한 그리고 진지한 입장에서 答辯해 주시길 바랍니다.

○證人 尹錫昨 예. 감사합니다.

○李東根委員 먼저 引受業體 選定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大韓船洲가 第3者 引受方式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안 것은 언제쯤입니까?

○證人 尹錫昨 2次 海運産業合理化... 87年2月16日字에서 저희들이 빠졌을 때 일단 政府方針과 그 經濟企劃院에서 審議할 때는 올라

가 있었습니다마는 靑瓦臺에서 빠졌을 때부터 3者가 넘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됐었습니다.

○李東根委員 檢察發表에 의하면 現代商船 韓進海運 朝陽商船이 大韓船洲의 引受 候補企業으로 選定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證人 尹錫昨 그것은 사실로 다른 業體에 관련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은 金斗煥씨와 조중훈씨가 86年서부터 여러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密約을 거의 굳혀가는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은 거의 그런 방향으로 서로 추진을 해가면서 어떠한 무슨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東根委員 證人과의 協議는 물론 없었습니까?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李東根委員 그러면 外換銀行이 낸 資料중에서 假契約 締結經緯라는 文書에 나오는 것처럼 韓進海運과는 86年12月26일부터 協議가 시작되고 朝陽商船과는 韓進海運과의 引受條件 協議가 두 차례나 진행된 뒤인 이듬해 87年2月17일에 가시아 引受條件이 協議되었다는 사실도 모르셨나요?

○證人 尹錫昨 委員님 그 말씀중에 한 가지 덧붙여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지요?

○李東根委員 예.

○證人 尹錫昨 86年8月16日 外換銀行管理團이 나오게 된 것은 資金을 支援해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元金 자체를 연장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會社의 收益性은 있고 또 얼마 있으면 海運景氣가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大韓船洲가 지고 있는 債務는 충분히 自體償還할 수 있으니까 元金 자체를 좀 연장을 해달라... 元金에 대해서 25%의 延滞를 부과해 가지고 계속 會社를 두들겨 부숴버리면 어려우니까 직접 나와서 會社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참되게 이 어려운 狀況을 극기해 나가고 있는 것을 銀行에서 직접 나와 보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왔던 銀行管理團이 이것이 서서히 어떠한 변모를 가져왔는지... 銀行管理團이 나오니까 結果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이 會社를 탈취해 가려고 또 引受받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銀行管理團의 성격이 완전히 180度로 변경이 되어서 그런 과정이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李東根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 引受候補 企業側과의 協議가 진행되는 동안에 87年3月6日 引受에 관한 假契約書 草案이 마련되는 등 문제의 假契約書 文案이 作成되는데 契約當事者의 하나인 證人과는 어떤 協議가 없었습니까?

○證人 尹錫昨 전혀 관계없이 또 내용도 알지도 못했고 또 그런 것이 作成이 되는 것조차도 잘 몰랐었습니다.

○李東根委員 그러니까 被引受企業側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整理過程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게 없습니까?

○證人 尹錫昨 완전히 그 銀行에 위에서 시킨 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金融의 條件을... 즉 그 假契約書에 들어있는 것처럼 얼마의 債務가 되든지 간에 받은 償還免除해 주고 받은 20年猶豫 15年 据置 15年 無利子償還이라는 이러한 條件을 넣지 않았었다면 引受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자체의 돈을 投資하거나 아니면 그 會社를 經營해서 黑字를 낼수 있는 자신이 없었으면 그렇게 부당한 일에 끼어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外換銀行이 그러한 條件을 넣어서 이 假契約書를 꾸민 것을 보았을 때 金融機關全體가 너무나 부당한 일에 같이 공모했다고 저는 그렇게 推定하고 싶습니다.

○李東根委員 證人으로서의 기가 막힌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어요. 韓進海運과 朝陽商船이 引受候補 業體로 指定된 것에 대해서 당시 海運船社의 經營主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을 묻는데 그들 會社가 당시에 大韓船洲보다 負債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大韓船洲보다 나은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證人 尹錫昨 다른 事業分野에 있어서는 朝陽이나 韓進쪽이 상당히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海運業에 대해서 만큼은 大韓船洲가 약한 35年동안의 오랜 歷史와 그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海外營業網을 많이 가지고 있

었기 때문에 또 船隊 自體도 32隻의 이 대형「콘테이너」船 여섯隻 10萬t 내지 15萬t짜리 네隻 5萬t級 여섯隻 3萬t級 열여섯隻 이러한 船隊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世界 어떠한 國家의 國籍船社와도 경쟁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船社로서 가장 어려운 不況時에도 5億「달러」의 運賃收入을 올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運賃收入이 좋아지는 好景氣에 맞아서 지금 현재의 船隊를 가지고도 10億「달러」以上の 運賃收入을 올릴수 있는 船隊였었습니다. 저희들이 84年度에 5億「달러」의 運賃收入을 올렸을 때 朝陽이나 韓進은 그의 한 5분의 1도 運賃收入에 따라 올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船隊도 아주 지극히 小型船隊 몇隻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4年서부터 全斗煥이로부터 많이 얻어맞고 이 支離滅裂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저희들 航路에 그들이 많이 政府로부터 航權을 얻어가지고 배를 일부 投入해서 조금씩 올라와서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분명하게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 書類를 내놓거나 또 外形의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大韓船洲가 不實이라는 이야기는 이 韓進海運하고 비교해서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 자체를 어떠한 職員 한 사람이라도 海運業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야기할 수 없는 성질 즉 不實 韓進海運이 어떻게 조그마한 물고기가 고래를 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常識的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李東根委員 알겠어요.

證人과 本委員間의 이 짝박한 引受過程에 대한 訊問만 통해 보더라도 大韓船洲의 정리라는 것은 被引受企業의 議事錄은 완전히 배제된 채 權力과 暗黑的으로 內定된 引受企業과의 談合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이며 이것을 合理的인 節次로 포장하기 위해서 第3의 企業을 둘러리로 내세웠던 것이라고 本委員은 짝박히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다음은 87年3月20日 外換銀行과 韓進側이 大韓船洲引受 假契約書案을 協議한 직후의 事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87年3月24日 大韓船洲整理方案이 財務部長官에 의해 靑瓦臺에 報告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사실은 아셨습니까?

○證人 尹錫昨 추후에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

○李東根委員 그러면 靑瓦臺에 報告된지 몇새 만인 87年3月30日 아까도 잠깐 어느 委員께서 言及이 있으셨지만 저녁 7시부터 子正까지 롯데 호텔에서 財務部主管으로 金融機關 取得擔保株式의 引受事業 讓渡事業對策會議라는 것이 열렸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會議內容이 전혀 公開되지 않아 왔는데 그외 두 會議의 內容을 證人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證人 尹錫昨 그 당시에 잘 몰랐었습니다.

○李東根委員 몰랐었어요? 本委員은 이 자리에서 金斗煥政權이 不實企業整理라는 名目으로 서지른 脫法的이고 不道德한 행위가 어떤 식으로 恣行되었는가를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바로 이 資料인데 大韓船洲株式會社의 擔保讓渡關聯對策會議 結果 報告書... 우선 요지부터 보면 社主 尹錫民側이 所有株式의 讓渡를 기획하므로 引受日程하고 맞추기 위해서 西洲産業 金融貸出의 擔保物로 되어 있는 大韓船洲株式會社를 빼앗아 韓進側에 넘기는 方案이 論議되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書類에... 問題點에 대한 論議라는 項目에 있어서 이 內容을 밝히겠습니까하는 참으로 놀랄만한 發想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에 앞서서 參席者들의 思考方式이 문제라는 것을 미리 지적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擔保株式 賣買價額問題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外換銀行管理側에서 하는 말이 時價買入을 低價로 하면 銀行의 損失과... 말하자면 時價買入후 低價로 賣却하면 銀行의 損失이 引受者特惠라는 社會的 政治的 非難이 야기될 수 있다고 말을 하자 財務部側은 政府承認下의 不實企業整理이고 戰略上의 문제이며 또 外換銀行은 政府出資機關이므로 損失이 났다고 해서 責任을 추궁할만한 民間株主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銀行監督院側은 金融監督側面에서 문제가 만약 일어나더라도 善處를 고려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즉 내려가서 불가피한 경우

는 大韓船洲의 系列社이며 大韓船洲株式會社를 銀行에 擔保로 잡힌 西洲産業株式會社의 一時不渡도 고려할 수 있다는 財務部側의 立場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一時不渡라는 말은 어제도 이 자리에서 梁正模證人을 통해서 言及이 되었었습니다마는 國際 그룹 解體過程에서 國際側에 決定的 打撃을 가한 84年12月26日 저녁부터 27日 이튿날 아침까지 國際 一時不渡와 같은 경우를 바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밑의 下段으로 내려가서 株式의 賣買損失로 발생하는 경우 大韓船洲株式會社의 損失에 轉嫁하여 떠 넘겨서 會計處理하는 方法을 현재까지는 찾지 못하고 있지만은 國際商事 등의 前例를 세밀히 調査하여 方法을 檢討하겠다는 財務部 監督院 主上來銀行인 外換銀行의 意見이 立體的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尹錫昨證人!

○證人 尹錫昨 예.

○李東根委員 이 文書 하나만으로도 不實企業整理의 暴惡性 非合理性 特惠 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는데 소상하게 들어섰겠습니까 들으신 證人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말막하게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證人 尹錫昨 大韓船洲의 자체어음을 돌려서 不渡를 냈다고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서회들이 손을 떼고 물러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大韓船洲를 奪取해서 다른 쪽에다가 넘겨 주는데 상당히 不法한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大韓民國에서 企業을 하면서 돈을 金融機關의 貸出을 안 받아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어떠한 大韓民國의 어떠한 企業이라도 그렇고 全世界 어떠한 企業도 돈을 쓰는데 갑자기 3·4일에 돈을 갚아라 6日만에 갚아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 競賣당하고 다 뺏깁니다. 그러면 競賣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法院의 질차를 밟는 그 期間동안에 돈을 만들어 올 수도 있는데 競賣期間 節次도 없이 그대로 그냥 떠들어대다가 뺏아가는 이러한 無法天地의 不當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李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政府의 과거 5共和國時節에 政府의 한 행위는 다시는 이 땅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번에 이런 聽聞會에서 不當性을 糾明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敎訓을 남겨서 다시는 저와 같이 억울하게 企業을 奪取당해서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서 울부짖는 그러한 가련하고 불쌍한 일이 다시는 再發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李東根委員 아울러서 企業側도 자중을 해야 되겠지요?

(姜信玉幹事, 李基澤委員長과 司會交代)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李東根委員 그리고 마지막 質問으로 87年6月30日 尹錫民逐出을 위해서 開催된 臨時株主總會狀況에 대해서 訊問하겠습니다.

지금 이 文書는 大韓船洲 臨時株主總會 準備計劃하고... 이색적인 「시나리오」가 포함된 文書입니다. 國際職員 한분 證人에게 이 書類 좀 전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拔萃를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될 이 文書는 主去來銀行인 外換銀行管理團에서 作成한 文書입니다.

물론 처음 보시는 文書겠지만 앞의 表紙에 管理團이라고 되어 있고 한장을 넘기면 “目次”해서 株總準備計劃하고 두번째는 「시나리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세번째 장을 넘기면 「시나리오」作成 豫行練習이라는 것이 있고 人員數動員하는 것 有事時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것 이것을 조금 넘어서서 끝 「페이지」에서 두째 「페이지」 組別行動要領이라는 目次를 찾아보십시오.

큰 「페이지」 끝에서 두번째 “1層組” 銀行 「빌딩」의 1層組... 우선 중요한 것만 같이 拔萃를 해 봅시다.

舉動이 수상한 者는 檢問 및 携帶品을 檢査한다.

10時 이후에는 全員 4層에 集合한다.

銀行職員 2名에 警察 20名을 動員한다. 그리고 “4層組” 警察 20名을 動員한다.

接受臺와 「엘리베이터」 옆에 位置한다. 또 한장을 넘겨보십시오.

“會議場組” 外換銀行 및 韓進職員 60名이 앉坐席에 着席한다.

司會者 및 議長席을 보호하고 나머지 65名은 中間坐席에 着席을 한다.

亂動者를 붙들어서 警察에 引渡를 한다.

外換銀行側 株主 發言時는 異口同聲으로 再請이요 三請이요 異議없습니다를 큰소리로 외친다. 어때요? 證人 「시나리오」는 그대로 스란히 實行되었지요?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李東根委員 이외에도 이 文書에는 「마이크」 統制組라는 것도 있고 해서 두명이 「마이크」를 掌握해서 議長이 優先적으로 指名하는 外換銀行 및 韓進側 株主에게 「마이크」를 引渡하고 發言終了時에는 즉시 回收를 한다. 그리고 무단 發言者에게는 奪取당하지 않도록 注意를 하고 議長 發言中止에도 계속 어떻게 어떻게 하고 放送 錄音室 協調를 하고 녹음 「테이프」 2部를 동시에 錄音... 이렇게 꼭 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뒤「페이지」도 이렇게 보면 그와 유사한 作戰들이 「시나리오」로 되어 있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그렇다면 臨時株主總會가 事前에 計劃되어가지고 公開性과 發言의 自由가 완전히... 철저하게 封鎖된 채 株總이 進行되었다고 結論지어도 좋겠지요?

○證人 尹錫昨 그렇습니다.

이것은 警察을 私兵化시켜서 武裝 株主總會가... 예, 그렇습니다.

○李東根委員 株總에 대해서 찝막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證人 尹錫昨 株主總會에 대해서는 韓進側은 그 당시에 株式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外換銀行으로부터 事前에... 추후에 引受받기로 하고 이 株主總會에 亂入해서 警察官을... 約 800名이 주위를 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發言하는 株主들은 전부 잡아다가 留置場에 집어넣었다가 아무 말없이 도로 돌려주고 그 會議場에서는 2·3分內에 尹錫民會長을 經營權에서... 一線에서 逐出하는 決議를 끝마치는 그러한 하늘아래 둘도 없는 이러한 不當한 自由經濟主義에서 株主總會를 갖다가 武裝警官이 그대로 發言하는 株主들을 팔을 꺾고 목을 치고 이렇게 數10名씩 달라들어서 내쫓고 이러한 株主總會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앞으로 이것을 主管한 者가 또 外換銀行인 것 이러한 등등으로... 생각할 때 다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李東根委員 됐어요.

本委員이 지금 公開한 이 두가지 文書는 지난 5共和權이 不實企業整理의 名目으로 靑瓦臺의 命을 받아서 財務部 銀行監督院 그리고 各 銀行이 얼마나 치졸하고 不道德하게 慣行과 經濟基本秩序를 蹂躪했던가를 잘 드러낸다고 本委員은 結論짓고 싶습니다.

○證人 尹錫昨 감사합니다.

國民의 代表機關에 의해서 이러한 國民의 억울한 부분을 調査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資料를 지금 보면서 다시한번 깊은... 委員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荃澤 姜信玉委員 訊問하세요.

○姜信玉委員 제가 몇 마다 물겠습니다.

尹錫民씨는 親兄입니까?

○證人 尹錫昨 그렇습니다.

○姜信玉委員 그리고 尹錫民씨하고 尹錫昨씨하고는 株式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證人 尹錫昨 제가 約 60% 가지고 있고요. 兄님은 2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姜信玉委員 이 會社는 어떻게 引受했어요?

○證人 尹錫昨 78年度 5月3日 漢陽大學校 金連俊總長님한테 저희들이 그 契約을 맺고 사기로 했습니다.

○姜信玉委員 어떻게 계약했었어요?

○證人 尹錫昨 당시에 51%의 株式을 35%는 우선 그 당시에 1次的으로 받고 18%의 株式은 追後에 그분들께서 市場에서 購入을 해서 주기로 하는 51%의... 經營權을 포함한 株式을 引受하는 것을 契約을 했습니다.

○姜信玉委員 그 당시에는 지금 尹錫民씨나... 지금 證人되시는 분이 무슨 事業을 했습니까 살 때는...

○證人 尹錫昨 제가 西洲產業하고... 株式會社 西洲라는 貿易會社하고 또 서원產業이라고 있었습니다. 約 한 2,000弗정도 조그마한 貿易을... 輸出했었습니다.

○姜信玉委員 그 당시에 이것 사는 과정에는 公正한 去來입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는...

○證人 尹錫昨 株式의 時勢보다 한 5배이상을 더 주고 이 會社를 내가 調査를 좀 해보니까... 金連俊總長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배도 6隻밖에 안되고 運賃도 5,000萬弗미만짜리의 會社고 貸出金도 約 1,000億의 負債를 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會社는 이름뿐인 會社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까지 수십년간 約

30年 가까운 이 會社의 傳統이 있기 때문에 이름 하나를 제가 사는 것으로 해서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크게 키워서 나라에 이바지되는 基幹產業으로서 發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돈을 주고서 購入을 했습니다.

○姜信玉委員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마치 證人이 나와서 지금 5共和國의 소위 企業奪取에 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하고 해서 혹시나 證人이 引受할 때에는 그 당시에 證人의 처지가 權力과 좀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어떤 公正한 去來로 取得하지 않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나 들어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證人 尹錫昨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는 三星 그룹도 이 會社를 過半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表面的으로 나타난 35% 株式에 대해서 78年 당시에 25億을 提示를 했고 저희들한테는 45億을 提示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100%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 會社를 引受했습니다.

○姜信玉委員 그 당시에 하여튼 證人의 家族은... 그 당시 4共和國이지요? 朴正熙大統領이 있을 때지요? 그 때가... 맞지요?

○證人 尹錫昨 그것하고 이 會社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姜信玉委員 관계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兄님이 代表理事를 할 때 政治를 했습니까?

○證人 尹錫昨 兄님이 代表理事會長이었고 會社定款上에는 會社는 對外的인 일만 하게 되어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代表理事社長이 業務를 總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姜信玉委員 제가 이것을 묻는 것도 우리나라의 그 당시 분위기에서 政治를 하자면 상당한 돈을 썼다고 추정이 됩니다. 兄님이 出馬함으로써 이 會社의 돈을 많이 썼다고 推定을 할 수가 있어요.

○證人 尹錫昨 그런데 大韓船洲는 公開企業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한참 발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1원 한 장의 돈도 거기에 쓸 수 있는 그런 會社는 아니었습니다.

○姜信玉委員 돈 안썼다는 말이에요?

○證人 尹錫昨 그렇습니다.

○姜信五委員 그러면 尹錫民씨가 결국은 市中에서 그 당시에 尹錫民씨가 國會議員하다가 國會議員職을 그만두게 될 때에는 아마 負債가 상당하다...

市中에는 1兆원에 가까운 負債가 있다 하는 식으로 나온 적도 있지요? 확실한... 물론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적어도 船舶會社들이 상당히 부실한 企業이다 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證人 尹錫昨 그것은 會社를 다른 데에다 넘겨뜨려서 빼앗아 가기 위해서 술한 루머와 投書를 올리는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姜信五委員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묻는 것도 오늘 가만히 들어 보니까 억울하게 빼긴 것 金斗煥씨가 무례하게 한 것 金斗煥씨가 法에 없는 이런 것을 한 것은 우리도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證人도 證人の 家族들도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우선 尹錫民씨가 며칠 전에 證人으로서 채택이 됐는데 왜 안 나왔지요?

○證人 尹錫昨 나올 필요가 없어서 안 나왔습니다.

○姜信五委員 왜 나올 필요가 없어서 안 나왔습니까?

○證人 尹錫昨 분명하게 저희들은 會社를 빼앗긴 被害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떤 賂物을 주고 남의 企業을 빼앗아간 부덕한 企業人을 분명히 대질을 시켜서 거기에서 억울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자기에게 지금 현재 썩어져 있는 누명을 그러한 사람들이 조종해서 썩어진 덩에 걸려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지 되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제가 電話하면 10분이면 올 수 있는 데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聽聞會에서조차도 억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姜信五委員 加害者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證人 尹錫昨 그렇습니다.

○姜信五委員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정말 證人이나 형님이 깨끗하다든지 자신이 있다든지 또 企業을 經營하면서

정말 理論的으로 했든지 지탄을 받지 않는 다든지 이런 자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나 당당해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5共特委에서 證人으로서 채택해서 나오겠다고 또 간접으로 연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檢察에 연락까지 해서 설대로 이 사람을 事前令狀까지도 拘束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交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交渉해 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아마 證人원에서 연락이 왔을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정말 안전하게 여기까지 와서 證證시키려고 제가 차까지 내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데 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남자지 눈치 딱 보고는 加害者가 안 나온다고 자기가 拘束될까봐 억울한 굉장한 非理 아닙니까? 金斗煥이를 우리가 지금 糾彈하고 金斗煥이를 지금 나무라고 그것에 대해 告發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는데 자기 個人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때는 남자답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證人은 어떻게 생각해요? 형님이 안 나온 데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尹錫昨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尹錫民會長은 저의 형님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리어서 저희 형제가 企業을 經營하면서 올바르게 100%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당하대 會社의 公金이나 私用으로 會社의 돈을 축내 가면서 企業을 經營하지는 않은 것을 분명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宣誓할 수 있을 뿐만... 尹錫民會長도 분명히 그러한 사람입니다. 大韓民國 70個 不實한 企業을 整理해 가면서 拋棄覺書를 그렇게 강요를 받고 또한 먹고 살 수 있고 加害가 없도록 어떠한 懷柔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견디면서 해 나온 결과가 5共和國에서 被害를 받았었는데 다시금 6共和國에서 이와같은 일이 가해지는 것이 또 다시 우리앞에 다가올 때에 저희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8年10月24日 國會財務委에서 다시금 假契約 書問題가 나오기 전까지는 尹錫民이가 돈을 많이 받아먹으면서 會社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會社를 넘겨주는 書類에도 「사인」한 사람

이다 라고 열이면 여덟 아홉名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檢察이 의위 대고 있는 3,600萬弗 또는 53億 이러한 것으로 해서 事前拘束令狀을 지금 현재 떼어 놓고 手配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탓에는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姜信玉委員 님이 아니라 현재는 司法府가 옛날같지도 않고 또 證人이나 형님이 정말 正義를 찾기 위해서 呼訴하겠다고 하면 지금 5特特委에 형님은 반드시 나왔어야 하고 또 罪가 없다고 證人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辯護士도 많이 쓸 수 있는 餘力은 있는 것같은데 이라면 正義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예요.

證人도 아까 가만 들이 보니까 美國가서 몇 년동안 피해 있다가 안전하니까 와가지고 내 財産찾기 위해서 여기 와서 지금 떠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 때도 對決을 하든지 또 싸우든지 해야지 아! 편안하게 美國에 도망가 있다가 이제 金斗煥씨가 百潭寺에 가니까 와가지고 金斗煥이 육이나 하는 이런 태도도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지금 실심하면 美國가서 몇 년동안 살다가 떠돌아오고 이런 사람들은 大韓民國에서는 特權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證人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尹錫昨 분명히 여기에서 企業을 保有하고 끝까지 싸웠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도망을 갔다 이제 와서 金斗煥씨가 百潭寺에 쫓겨 가니까 큰소리나 치는 그러한 雜輩가 아닙니다. 저도 企業을 했지 마는 분명하게 國家觀이라든지 올바르게 살아가고 올바른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도 있습니다.

會社를 찾고 안찾는 이러한 財産權問題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한테 가해지고 있는 이러한 被害에 대해서는 會社를 뺐기고 9,056億이라는 이러한 돈에 대해서 訴訟를 받고 있고 512億에 대한 綜合所得稅 100餘年 전의 우리 先祖의 모든 부덕을 差押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의 이러한 현

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또 尹錫民 저의 형에 대해서 全國으로 指名手配가 장 파령치한 企業人으로서 몰아치고 있는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狀況에서 그렇게 비겁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姜信玉委員 그러니까 이번 聽聞會에서 證言을 하고 가지가면 尹錫民씨를 이 特特委에 自進出頭하도록 시켜요. 그것이 正義를 찾는 것이고 그것이 남자입니다. 뭘 도망다니면서 눈치나 보고 내 가거든 證言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이나 해 놓고는 가만 보니까 또 도망가 버리고 이런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證人 尹錫昨 姜委員님! 저 존경합니다. 분명하게 피하고 그런 企業人이었으면 罪가 없다 하더라도 잡아가다 혼쭐 내야 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梁性佑委員 말씀하세요.

○梁性佑委員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大韓船洲 그러니까 尹社長께서 소위 亡命길을 떠나기 전에 大韓船洲의 規模가 흔히 사람들이 「그리스 船舶王」 오나시스의 會社보다 두배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리스 의 유명한 船舶王인 「오나시스 보다 두배가 더 큰 會社」의 社長 尹錫昨씨가 美國으로 亡命을 했습니다. 정말 서글픈 일이었고 한스라운 일입니다. 그 亡命生活 「몽아일랜드」에서 亡命生活을 할 때 生命의 威脅이라든지 또는 生命의 威脅에 대한 어떤 對應策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美國에는 銃도 많은데 銃을 후시 샀다는지 무슨 長銃을 샀다는지 이런 것없었나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證人 尹錫昨 84年8月17日 美國으로 분명히 가면서 제가 도망간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비가 올 동안에는 피했다가 햇볕이 나니까 술그머니 온 것이 아니고 그런 人生이 아니고 美國에 갔을 때는 몸도 상당히 많이 상했고 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작대기가 땅이 많은데... 가난한 농부로 내가 36歲에 장가를 정도까지 밤낮으로 일하고...

○委員長 李基澤 尹錫昨證人 質問도 訊問要旨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答辯도 해 주세요.

○梁性佑委員 銃을 산 일은 없습니까?

○證人 尹錫昨 銃을 산 일이 있습니다.

○梁性佑委員 身邊의 위험을 느꼈다 말이지요?

○證人 尹錫昨 韓國의 企業을 포기해서 「사인」하라고 安企部에서 KAL 비행기에서 실어서 그대로 여기다가 떨어 뜨려버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韓國땅에 와서 그런 「사인」을 하지 않으려고 제가 銃을 샀고...

○梁性佑委員 권총도 샀고 장총도 샀고 그랬다 말이지요?

○證人 尹錫昨 그렇습니다.

○梁性佑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美國에서 돌아 온 뒤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정말 우리 나라의 이 상황 亂斗煥씨가 뿌린 不正의 씨앗이 숲을 이룬 나라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한이 많으신 분인데 한 마디로 答辯하셔서 돌아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證人 尹錫昨 제가 과거에는 大統領하셨던 분이 도와준다면 앞뒤로서 빌어야 했을텐데 그 분이 百潭寺에 쫓겨 갔다고 해서 전방지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당하게 大韓船洲를 많은 國家의 좋은 것도 많았는데 하필 大韓船洲를 빼어다가 다른 데에 주면서 어떠한 金品을 받았다고 그럴 것 같으면 부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것을 제가 직접 그 분을 만나서 談判을 한번 짓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國家의 그 사람이 非理를 저질러서 裁判을 받고 刑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나한테 들어온 被害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왜 不當하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러한 不當한 것을 했는가를 묻고 그에 대해서 응징을 할까 하고 내가 돌아 왔습니다.

○梁性佑委員 알겠습니다. 證人께서는 會社를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動因이 보복적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政治資金을 내지 않아서 일거에 會社를 빼앗기지 않았느냐 아니면 무슨 個人的인 갈등이 있었느냐 이 점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政治자금 많이 안했습니까?

○證人 尹錫昨 존경하는 梁委員님! 저는 때물은 企業人으로서 분명하게 白紙어음狀에 돈 150億을 써서 金斗煥한테 주고 살자 내가 尹錫民會長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돈을 그 놈이 받치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네 會

社라고 해서 갖다 줘라 내가 3個月後에 돌아오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날 大韓船洲를 탈취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指名手配를 받게 되고 不當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梁性佑委員 白紙어음에 150億을 써서 전해 주라고 했는데 尹錫民會長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會社를 빼앗기고 오히려 尹錫民會長이 手配를 받게 됐다 이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證人께서도 會社에 대한 原因無效確認訴訟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의 假契約書는 확실히 위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지요.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梁性佑委員 그런데 韓進側이라든지 外換銀行에 이 假契約書가 있으면 그 契約書를 보자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있는데 내놓지 않았다고 왜 내놓지 않았을까요.

○證人 尹錫昨 內容證明도 보냈고 高等法院이 假處分 承認도 해서 執達官이 갔었습니다마는 내 놓지 않았어요. 88年10月24日 國政監査 때에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假契約 內容에 銀行이 할 수 없는 남의 株式을 다른데 에다가 넘겨 주는 문제 金融業體에 붙어 있는 문제 이러한 銀行間의 合意覺書 이러한 위사람의 어떠한 허가라든가 承認이 없이 이런 문제가 이러한 假契約書가 발견이 돼서 큰 政治問題化라든지 원인이 다 드러났을까와 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梁性佑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尹錫民會長이 手配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먼저번 發表된 이유는 3,600萬弗 海外流出 嫌疑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은 지금 大韓船洲쪽에서는 정당하게 入金된 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國內로 入金된 돈이지요?

○證人 尹錫昨 그렇습니다.

○梁性佑委員 이것을 會社計定에 入金하고 運營資金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證人 尹錫昨 通帳을 저희들이 지정하는 會計士가 가서 조사할 수 있으면 전부 소명해 줄 수 있습니다.

○梁性佑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質問을 하겠

습니다.

당시에 會社經營權을 포기하라 이렇게 협박 받을 당시에 大韓船洲 다시 말하면 證人으로부터 拋棄覺書를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회유도 하고 협박도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입니까? 이름만 쭉 대보세요.

○證人 尹錫昨 최승락 그 다음에 安企部 第2次長 이해구 外換銀行의 상백규... 拋棄覺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梁性佑委員 또 기타 다른 협박...

○證人 尹錫昨 李源祥씨가 證人으로서 서지 말라고 두차례에 걸쳐서 중용했습니다.

○梁性佑委員 그리고 尹錫民씨가 安企部에 불려갔다고 했는데 證人은 安企部에 불려간 적이 없나요?

○證人 尹錫昨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梁性佑委員 이 문제로 檢察에 불려간 적은 없습니까?

○證人 尹錫昨 없습니다.

○梁性佑委員 혹시 다른 第3의 장소에 가서 고문을 받았든지 '린치'를 받았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證人 尹錫昨 없습니다.

○梁性佑委員 證人께서 낸 資料에 의하면 證人등이 拋棄覺書 作成을 거절하자 鄭寅用씨가 당시 張世東安企部長에게 독촉하고 張世東安企部長은 부하들에게 尹錫民의 拋棄覺書를 받아 오라고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財務部나 安企部안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證人이나 尹錫民씨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알 수 있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지요?

○證人 尹錫昨 제가 여기 돌아왔을 때 뿐만 아니라 美國에 있었을 때 연락을 받았습시다. 마는 제 80되는 老母께서 安企部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會社를 어떻게든지 書類를 해주도록 내가 좀 얘기를 하라 사람이 살아야지 정신이 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會社를 어기고 움직였지만 뺏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살아야지 두 형제가 한 놈은 도망가고 한 놈은 여기서 정신이 돌 정도로 이렇게 당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날보고 우리 老母가 여러 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梁性佑委員 알겠습니다.

또 企業 奪取行爲를 全斗煥씨가 지시한 사실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梁性佑委員 司空 晄씨가 檢察에서 大韓船洲의 韓進海運 인수는 86年11月 鄭寅用 財務部長官 報告를 받고 결정했으며 87年3月24日 全斗煥씨의 뜻에 따라 韓進海運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尹錫昨 그 전에 經濟首席 司空 晄하고 당시 財務部長官 鄭寅用씨가 全斗煥씨하고 靑瓦臺 조그만 방에서 세時間 네時間 여러 차례에 걸쳐 모의해서 大韓船洲를 탈취해서 다른 데에 넘기느라고 움직인 일이 있습니다.

○梁性佑委員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두 가지 간단히 물겠습니다. 資產實査 과정에서 前 經營陣 측의 의견이나 참여는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證人 尹錫昨 그렇습니다.

○梁性佑委員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資產價値가 공정하고 客觀的으로 評價되었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證人 尹錫昨 완전히 잘못 되었습니다.

○梁性佑委員 알겠습니다. 資料를 보면 大韓船洲의 86年度末 B/S와 韓進측이 實査 引受 후인 87年末 B/S를 보면 流動資產 중에 외 상賣出金이 1,408億에서 136億으로 1,272億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先給金 및 代理店開店이 1,933億원이거나 줄었습니다. 또 반대로 기타 資產이 3,853億원이 增加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證人 尹錫昨 會社 不實이 너무 많다고 해서 財産이 없다 텅비었으니까 金融資產을 많이 빼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梁性佑委員 韓進측이 大韓船洲를 引受했는데 그 引受이유가 크게 하나 있겠지요. 뭐냐 막대한 이익과 特惠가 있기 때문에 引受를 했을 것입니다. 韓進측이 받은 特惠가 세상에 2兆億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2兆4,000億이라고 주장도 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저는 87年 韓進海運이 이 會社 引

受時點에 大韓船洲의 B/S 안에서만 現實的으로 얼마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가를 현재 價値概念을 적용해서 산출해 보았는데 저의 저의 이 산출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의 算出을 들어 보십시오. 韓進측이 大韓船洲 引受時에 전혀 돈을 1원도 負擔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조금 틀리다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韓進海運의 三男 조수호씨의 취득 株式引受代金이 100億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公式資料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韓進이 大韓船洲를 引受할 당시 大韓船洲의 總 負債가 公式資料에 7,937億이라고 했습니다. 이 7,937億의 완전 蕩減을 4,207億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總 負債 7,937億에 완전 蕩減額 4,207億을 빼면 3,730億이 남습니다. 이 3,730億을 다시 말하면 20年 分割引受해서 15年 据置 無利子로 15年 또 分割償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統算의 해수가 50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3,730億의 현재 價値가 도대체 얼마나 引受當時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이것은 곧 3,730億원의 현재 價値는 결국 65億이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약 65億원이 50年 가까이 즉 42年6個月 정도가 되는 그 해에 가면 정확히 3,730億원이 되고 이것이 현재 價値로 65億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수호 株式取得引受代金 100億에 이 65億을 더하면 165億원을 韓進이 負擔하고 大韓船洲를 引受하는 셈이 됩니다. 전현 1원짜리 하나도 안 내고 大韓船洲를 인수한다 하는 것에 제가 異議를 다는 것입니다.

○證人 尹錫祚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梁性佑委員 두번 제로 公式資料에 大韓船洲의 資産이 나옵니다. 引受當時 韓進측의 取得資産으로 나옵니다. 流動資産은 428億원 投資 기타資産으로서 4,212億원 또 固定資産 즉 船舶이라든가 土地라든가 建物이라든가 주로 船舶代金이 많겠지요. 船舶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固定資産이 2,011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土地 建物이라든가 기타가 126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移延資産으로 48億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資産의 總計는 6,825億원

이 나옵니다. 6,825億원짜리 會社를 韓進이 먹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韓進이 앞에서 負擔했다 라고 추산되는 계산되는 165億을 6,825億원이라는 資産에서 빼야 한다 그러니까 6,825億원의 總 資産에서 165億원을 빼면 6,660億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해서 韓進은 大韓船洲의 資産 總 6,825億원에서 165億원 만을 負擔하고 大韓船洲를 가져 가는데 그로 인해서 實質的으로 現實的으로 6,660億원의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순간에 165億원을 負擔하고 6,660億원의 이익을 얻는다 하는 그런 계산이 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韓進이 받은 특혜가 公式의 인 자료에 의한 계산에 의해서만도 6,660億 원이나 특혜이익을 얻는데 이와 상응하는 액수의 反對給付로 거액의 政治資金을 金斗煥 씨에게 또는 그 집단에게 제공했다 하는 그런 의혹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 시점에서 우리 國民들의 의혹이 나타나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6,660億원에 상응하는 거액의 政治資金을 韓進이 분명히 大韓船洲의 引受條件으로 金斗煥 씨에게 주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산상으로만 나오는 것이고 이것 보다는 이 뒤에 숨은 엄청난 數千億원의 政治資金을 땀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지금 당장...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 하려는 것은 證人을 앞에 두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돈 6,660億 이 돈이 바로 尹錫祚씨 개인의 돈이 아니고 國民의 돈이다 하는 것입니다. 國民의 돈이기 때문에 尹錫祚씨 개인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國民에게 權力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먼저는 企業과 銀行財産의 損失이라고 할지라도 즉 결국은 國民負擔이다 國民이 負擔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金斗煥씨를 위시한 5共和國의 權力層 그리고 당시의 銀行의 責任者들 이들이 國民앞에 사죄해야 하며 國家 權力을 빼앗고 그 權力을 유지하기 위

해서 거액의 政治資金調達을 목적으로 企業經營權까지 빼앗아서 特定財閥에게 넘겨 주는 이런 만행이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겠습니다.

證人에서 訴訟을 提起했는데 提起 中인 訴訟에서 최종 勝訴判決을 받게 된다면 企業經營權의 原狀回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또 企業經營의 原狀回復이 가능하다면 大韓船洲를 재건해서 經營할 사업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質問입니다.

○證人 尹錫昨 大韓船洲는 全斗煥 前大統領의 全的인 권력에 의해서 당시 財務部長官 鄭寅用씨가 각 金融機關에 압력을 넣어서 작업을 했고 막대한 金融 특혜를 베풀어서 7,993億에 대한 金融資産을 축적했기 때문에 분명히 民事訴訟이든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大韓船洲는 原狀回復이 되어야 합니다.

회복을 해서 金融資産에 다시 원점으로 돌리서 반납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60% 제 持分權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經營할 수 있으면 經營하고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팔아서... 내가 이 때물은 돈 1원 한장이라도 내가 다시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이렇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財産權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이 저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애걸복걸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委員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盧武鉉委員 저는 오늘 한마디도 안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아까 白紙手票 150億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證人 尹錫昨 84年度에 全斗煥씨가 政治査察班을 보내서 저희들 會社를 때려 부수는 作業을 하길래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살겠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提案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 警察들이 學生들 「데모」를 막는데도 한번 食事代가 나가게 되면 全斗煥씨 개인이 5億씩을 주기 때문에 그사람 돈도 많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좀 갖다 쥐라 돈이 없으면 어음을 써주면 銀行에 들어가면 銀行長한테 電話 한마디 하면 다 決濟가 된다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盧武鉉委員 그러면 갖다 쥐 보지도 못하고 얘기하다 말았네요?

○證人 尹錫昨 갖다 줬으면 제가 이렇게 때물은 企業人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지요.

○盧武鉉委員 그런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 訴訟도 하고 있고 特委도 하고 있는데요. 證人으로서의 여러가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證人뿐만이 아니고 어제 나왔던 사람들이나 오늘 나왔던 사람들중에 상당수는 企業을 되찾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證人 尹錫昨 大韓船洲는 원점으로 돌려서 필요하면 언제고 제가 讓渡證을 써서 다른 데로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不法으로 탈취 당했던 이러한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盧武鉉委員 이렇게 不法이 저질러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絶對權力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證人 尹錫昨 예.

○盧武鉉委員 어제 梁正模證人은 獨裁때문에 그렇다고 民主化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결론지으면 證人 同感합니까?

○證人 尹錫昨 企業하는 사람으로서 주체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國民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政權을 탈취했던 사람한테 우리가 그러한 기간속에서 이러한 불행이 다가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그렇지요? 지금 그말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달라졌다 해서 그 말도 하는데 완전히 안달라졌으니까 분을 다 못풀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證人 尹錫昨 5共和國에서는 會社를 때겼고 6共和國에서는 제 형님이 指名手配를 받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완전히 안달라졌으니까 못 찾고 있다는 말씀하십니까?

본시 大韓船洲라는 것이 옛날 大韓海運公社지요?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海運公社를 김연준씨가 引受했었지요?

○證人 尹錫昨 예.

○盧武鉉委員 그때는 公賣하는 과정에서 김연준씨가 경쟁을 통해서 引受했습니까?

○證人 尹錫昨 隨意契約이었습니다.

○盧武鉉委員 김연준씨가 그 전에 海運事業에 경험이 있었습니까?

○證人 尹錫昨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김연준씨는 왜 이 企業을 그만 두었습니까?

○證人 尹錫昨 당시 會社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盧武鉉委員 證人이 買收할 때도 公開競爭을 통해서 買收했습니까?

○證人 尹錫昨 隨意契約이었습니다.

○盧武鉉委員 證人이 企業을 취득한 때와 빼앗길 때의 政治的 狀況이 똑같네요? 政治權力의 성격은 비슷하지요?

○證人 尹錫昨 김연준씨가 저희들한테 팔때는 힘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政治權力에 의해서 움직일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런데 어제 오늘 나도 여러가지 묻고 했지만 들으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財閥들이 내 것 빼갔다 하는데 따지고 보면 60年代 후반부터 金融特惠와 外資導入 그리고 기타 認許可 모든 것이 權力에 의해서 성장해 왔지요? 政治權力의 보호속에서 성장해 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證人 尹錫昨 企業을 빼앗기고...

○盧武鉉委員 企業 빼앗긴 것 억울하다는 것은 압니다 다만 그 때부터 權力과 癒着하지 않은 企業은 성장할 수 없었고 權力과 癒着한 企業은 성장했고 財閥相互間에 먹고 먹히는 과정에서는 權力과 얼마만큼 더 癒着하고 돈보따리를 얼마만큼 더 싸들고 다녔느냐 줄을 얼마만큼 더 잘 잡았느냐 핏줄이라도 하나 어떻게 걸쳐지느냐 하는데 따라서 版圖가 결정되었고 財閥과 財閥 이외의 사람들을 대조해 보면 中小商工人이나 農民이나 勞働者들이나 이런 사람들과고 입장을 비교해 보면 자기들끼리는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지만 財閥들만 엄청나게 비대해 갔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인정하지요?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런데 오늘날 어제 나온 사람들이나 오늘 나온 사람들이나 나와서 이제 5共特委라는 것이 만들어지니까 여기 와서 한마디 하는 것을 소원삼아서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證人의 형님같은 경우는 나온다 나온다 마치 미끼던지듯 5共特委를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인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의미있는 자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반쪽國會 半身不隨의 調査特委나마... 지금은 半身不隨가 되었지만 한때 서슬이 시퍼렸던 특委가 많은 國民들에게 희망을 주고 證人같은 사람한테도 엄청난 희망을 주었던 이 자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證人 尹錫昨 國民의 힘으로 반쪽이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쪽을 이루어주면 저같이 부당하게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그런데 나는 여기와서 자기財産 찾겠다는 사람이 民主主義를 위해서 뭘했는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아 있는 國會議員들도 대부분 證人들이 옛날에 가지고 놀던 돈으로치면 푼돈 정도를 全財産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國會議員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國會議員은 「뭇지」라도 달았으니까 다행이지만 아직까지도 길거리에서 이리저리 박해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힘들이면서 옛날 시절에 財閥들한테 피땀 싸이고 그래가지고 民主主義라고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지금도 戰警들의 발앞에서 짓밟히고 있는데 땡땡거리던 사람들 자기들끼리의 투쟁속에서 줄 잘못잡아 가지고 저놓고 여기와 가지고 이제 民主主義가 되었다는 이 판에서... 이것 나는 못마땅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돌아가시거든...

○證人 尹錫昨 財産을 빼앗겼다고 해서 會社를 다시 찾아 달라고 財産을 원점으로 돌려달라는 이런 문제 이것에 앞서서 분명하게 5共和國에 있어서의 權力에 의해서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正義를 밝히기 위한 것이지 財産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까?

○證人 尹錫昨 예.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림 한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지금이라도 자기한테 비위에 안맞다고 괜히 國會議員들 보고 근거도 없는 비난같은 것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풀돈이든 목돈이든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매수하려고 스스로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자기 일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동안에는 역시 社會가 병드는 것입니다. 그것만 당부하겠습니다.

○證人 尹錫昨 충고에 대해서 깊이 깊이 반성하고 명심해 듣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 끝났습니까?

○金東周委員 한 3분만 하겠습니다. 個人的으로 사람이 살아 가는데 長短點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서 온 사람을 명확하게恨은 풀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저도 質問書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同僚委員들 하고 質問이 흡사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證人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지요?

○證人 尹錫昨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분명히 그 당시에 全斗煥大統領하고 여러 權力機關 특히 그 밑에 實務作業을 한 사람은 최승락 이해구 성백규 등인데 이들이 證人의 財産을 不法으로 偽造된 假契約書에 의해서 탈취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同意합니까?

○證人 尹錫昨 그렇습니다.

○金東周委員 그러면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었던 債權이든간에 지금 證人이 同意를 안하는 債權중 87年3月31日字로 7,938億중 4,207億을 蕩減하고 나머지 3,731億을 20年 猶豫後 15年 据置 15年 分割償還으로 無利子로 엄청난 특혜를 준데에 대해서 本委員은 아주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證人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尹錫昨 제가 企業을 잘못해서 國民에게 그만큼 損失을 입혔기 때문에...

○金東周委員 아니에요. 國民損失이나 證人損失을 떠나서 引受企業의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尹錫昨 특혜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歷

史上에 남을 정도의 不正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金東周委員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최승락씨를 告發하지 않았습니까?

○證人 尹錫昨 告發했습니다.

○金東周委員 關聯者 다 民事訴訟했습니까?

○證人 尹錫昨 民事訴訟도 했습니다.

○金東周委員 하여튼 여러가지 委員들이 이야기하는 것중에서 證人이 들었을 때 섭섭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證人의 딱한 사정중 모르는 사실도 우리 同僚委員들의 質問으로 많이 알았고 앞으로 加害者 즉 引受側이나 政府側이 나오면 엄청난 質問攻勢가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할 말이 없으시지요?

○證人 尹錫昨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聽聞會를 열어주시고 많은 訊問을 해 주신 委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불충해서 언성이라든지 태도가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尹錫昨證人에 대한 證人訊問과 證言聽取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직 散會 안했습니다. 委員 여러분들은 1분만 앉아 계서주시기 바랍니다. 22일부터 4日間 人權聽聞會가 있다는 것은 委員 여러분들께서 다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준비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저희들 全體委員會에서 5共非理調査班에 對策委員會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黨에서 4黨입니다마는 民主黨으로부터는 아직 추천을 못받았고 3黨에서 平民黨의 崔洛道委員 그리고 民主黨의 盧武鉉委員 共和黨의 金炫委員 이렇게 세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小委員會가 正式 發足되면 아마 崔洛道委員이 小委員長을 맡기로 대체적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0時1分 散會)

○出席委員

李基澤

金令培

朴相千

梁性佑	李東根	林春元
趙昇衡	崔洛道	姜信玉
金東圭	金東周	盧武鉉
沈完求	金鍾植	金炫
鄭一永	崔戊龍	

○委員아닌出席議員

許京萬	朴泰權	申榮國
俞棋澹		

○出席專門委員及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趙 在 錫
立 法 審 議 官	崔 再 喆

○出席證人

前共榮土建代表理事	邊 康 雨
前日新製鋼代表理事	朱 昌 均
前大韓船洲社長	尹 錫 祚